"주석사찰에서 다비의식을"
연화회 '사찰 다비' 생전접수
상담문의 010-4727-6065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560호 HYUNBULNEWS.COM 2025년 12월 24일(음력 11월 5일) 수요일 / 불기 2569년



"종교간 화합 · 평화의 빛을" 종교간 화합과 평화 염원이 담긴 크리스마스 트리등(燈)에 불이 켜졌다.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12월 18일 서울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크리스마스 트리등 점등식'을 개최했다. 이날 점등한 크리스마스 트리등의 빛이 증오를 녹이고, 갈등을 막고, 모두에게 열린 자비와 사랑의 상징이 되길 기원한 진우 스님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우리 모두의 마음에도 지혜와 용기의 불빛이 타올라 평화를 이루는 원력이 되길 기원한다"면서 "종교를 넘어 손을 잡고 사회적 약자를 먼저 바라보며 함께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글 · 사진=임은호 기자

로터스월드 현대불교신문
미얀마 정수시설 6호 완공

담마 때이디 사원학교 정수시설 지원

강금자 불자 두 번째 후원…총 6기 조성



로터스월드(이사장 성관 스님)와 현대불교신문(대표이사 한명우)이 공동 추진하고 있는 '미얀마 정수시설 지원 캠페인'이 여섯 번째 성과를 냈다.

로터스월드는 11월 30일 미얀마 양곤 따께따 타운십에 위치한 담마 때이디 사원학교에 다기능 필터가 장착된 정수시설 설치를 완공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 3월, 뚜카사리 사원학교 정수시설을 후원했던 강금자 불자가 또 다시 설치비를 후원하면서 진행된 것이라 더욱 뜻깊다. 강금자 불자는 현대불교신문 기사에서 캠페인 소식을 접하고 지원을 이어왔다. 이번 정수시설로 전교생 284명과 교직원 6명, 스님 1명과 함께 사원 거주 스님 5명 등 300여 명이 안전한 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설치된 정수시설은 관정, 각종 필터, 펌프, 물탱크, 수도시설, 정수필터 보호 시설 등으로 구성됐으며, 깨끗한 식수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로터스월드는 완공 후에도 정수시설의 유지·보수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지역 주민과 교직원들이 이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담마 때이디 사원학교는 자체 상수도 시설이 있으나 수질이 좋지 않아 우기에는 빗물을 모아 침전시킨 뒤 이를 식수로 사용하는 열악한 환경이었다. 학생들은 빗물 항아리에서 물을 떠 마시며 수인성 질병에 상시 노출돼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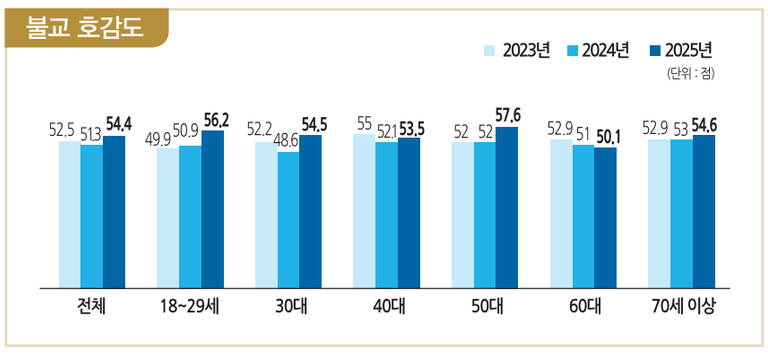
로터스월드 측은 "생활하수와 산업폐수가 뒤섞인 물을 그대로 사용해야 했던 지역에 깨끗한 식수가 공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02-725-4277

후원계좌 : 기업은행 636-024138-01-015 (사)로터스월드

임은호 기자

Z세대 '호감도' 최고…'넥스트 스텝' 고민을

한국리서치 종교인식조사서
호감도 부문 불교가 'TOP'
10~20대 · 50대서 호감 높아
젊은 층 호감도 상승 '긍정적'
"청년 포교사들 육성 통해서
'또래 커뮤니티' 형성 나서야"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한국사회 주요 종교들의 호감도를 묻는 질문에 불교가 역대 최고 점수를 기록했다. 특히 10~20대와 30대의 불교 호감도가 높아진 것으로 확인돼 이들을 불교 신도로 유입시킬 '넥스트 스텝'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는 12월 17일 '2025년 종교인식조사: 주요 종교 호감도와 종교 영향력, 효능감'을 발표했다. 한국리서치는 지난 2020년부터 한국 주요 종교의 호감도를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해 왔으며 올해는 11월 21~26일에 조사가 진행됐다.

이에 따르면 불교의 호감도는 54.4점으로 지난해 대비 3.1점이 증가해 2020년 조사 이래 최고 점수를 기록했다. 가톨릭은 52.7점, 개신교는 34.7점, 원불교는 30.3점, 이슬람교는 16.3점으로 조사됐다.

불교의 호감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람(51점 이상)은 전체의 49%이며, 특히 76점 이상으로 매우 높은 호감도를 보인 사람은 전체의 26%였다. 반면 24점 이하로 매우 호감도가 낮은 사람은 전체의 16%정도다.

세대별로 보면 불교에 대한 호감도는 전 세대에서 50점을 넘겼다. 특히 50대(57.6점). 18~29세(56.2점)에서 호감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지난해와 비교해 젊은 층인 18~29세, 30대에서의 호감도가 5점 이상 상승하며 역대 최고점을 기록한 점이 고무적이다.

반면 종교의 영향력과 효능감을 묻는 조사에서 불교는 이웃종교보다 낮은 지표를 기록했다.

'종교가 내 삶에 영향을 준다'는 응답은 남성(32%)보다는 여성(43%)이 높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18-29세 22%, 70세 이상 56%). 또한 개신교 신자(84%)가 가톨릭(62%)이나 불교(47%) 신자에 비해 '종교가 내 삶에 영향을 준다'고 인정하는 비율이 높았다.

종교의 효능감을 묻는 질문에는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있어 안정감을 얻는데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82%로 가장 높았다. '긍정적인 감정을 갖는 데(78%)', '윤리적인 행동을 하는 데(74%)', '인간관계를 맺는 데(74%)', '소속감을 갖는 데(74%)'에도 4명 중 3명 정도가 도움된다고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나이가 높을수록 종교의 효능감에 대해 긍정적이었는데, 18~29세는 '종교가 소속감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81%로 높았다.

젊은 층의 불교 호감도가 빠르게 상승하는 것은 '힙불교' 트렌드의 영향이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Z세대와 알파세대의 불교 진입장벽이 낮아진 만큼 향후 이들을 신도로 유입시킬 수 있는 '넥스트 스텝'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종교를 가짐으로써 소속감과 유대를 형성하는 젊은 층이 많은 것으로 확인된 만큼 '또래 커뮤니티'로의 불교 공동체 형성이 필요해 보인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최근 템플스테이를 버킷리스트에 올리고 일상생활에서 염주를 착용하는 젊은 '정서적 불자'들이 늘고 있다"면서 "Z세대를 불교로 유입하기 위해서는 SNS와 뉴미디어를 통해 그들이 공감할 불교적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노출시키면서 '또래 커뮤니티'를 자연스럽게 형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종단적으로 청년 포교사를 양성해 '또래 커뮤니티' 형성 및 운영을 맡기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불자회장에 하정우 수석

고문 강훈식 · 간사 이영수 내정
진우 스님에 법명 '혜우' 받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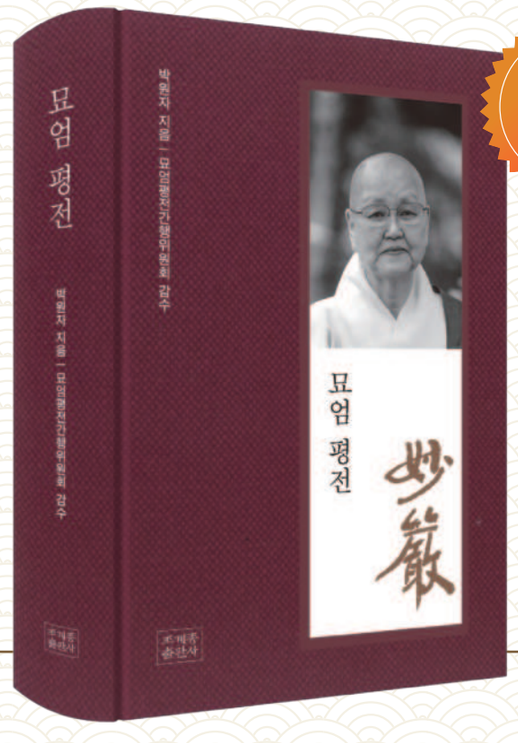


이재명 정부 초대 청와대 불자회장에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사진〉이 내정됐다. 지난 11월 청와대 불자회장에 내정됐다 종교 논란을 빚었던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고문을 맡았다.

불교리더스포럼(상임대표 이기흥)은 12월 12일 열린 '불기 2569년 불교지도자초청 국민화합기원 송년만찬'에서 청와대 불자회 고문에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회장에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 간사에 이영수 대통령실 농림축산수석비서관이 내정됐다고 발표했다. 이기흥 상임대표는 "청와대 불자회는 조만간 조계사에서 법회를 열고 정식 출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 수석은 이날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에게 '혜우(慧友)'라는 법명을 받았다. 진우 스님은 "지혜로 다 함께 벗과 도반이 되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하정우 수석은 1977년 부산 출생으로 서울대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네이버에서 AI 분야를 이끌었으며 'AI 주권'을 강조한 소버린 AI 개념을 제안했다. 지난 6월 15일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에 신설된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에 임명됐다. 여수령 기자



화제의 신간

성철 스님에게 선禪을, 자운 스님에게 율律을,
운허 스님에게 경經을 모두 전해 받은
한국불교 최초의 비구니 율사

묘엄 스님 세주묘엄 世主妙嚴 1932~2011 평전 출간!

박원자 지음 | 묘엄평전간행위원회 감수 | 636쪽 | 값 38,000원

조계종 출판사 지혜와 자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구입문의 : 불교전문서점 향전 www.jbbook.co.kr | 02-2031-2070

잇따른 재해에도 발 빠른 대응으로 종단 안정 도모

2025 종단 결산

신중일 · 김내영 기자

올 한 해 조계종은 각종 화재와 수해로 종단 안팎에서 그 어느 때보다 다사다난한 시간을 보냈다. 잇단 재난 속에서도 발 빠른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부대중이 마음을 모아 복구에 나서며 위기를 극복해 나갔다. 이와 함께 제37대 집행부가 추진해 온 주요 종책들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어졌다. '조직 개편'을 비롯해 '선명상 대중화', '경주 남산 마애불 바로모시기' 등에서는 가시적인 성과도 드러났다. 2018년 관련 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사면·경감·복권'을 시행해 종단 운영의 안정과 내부 화합도 도모했다.

화재 · 수해로 사찰 피해 확산

올해는 대형 재난이 잇따르며 사찰 피해가 컸다.

3월 영남 지역을 휩쓴 대형 산불로 의성 고운사와 운람사, 만장사, 청송 수정사·보광사, 안동 용담사 등이 피해를 입었다. 다행히 주요 불교문화유산은 긴급 이송 조치로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불교계는 즉각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기금 조성에 나서며 한마음으로 힘을 모았다. 사부대중의 정성 어린 원력 속에 피해 사찰들은 현재 복구에 속도를 내며 화마의 상처를 차근차근 회복해 나가고 있다.

여름철에는 산청과 충청 지역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또 한 차례 시련을 맞았다. 산청 율곡사와 서산 천장사, 수덕사 등 여러 사찰에서 산사태로 토사가 유입되며 피해가 발생했다. 조계종은 즉시 긴급구호단을 구성해 수해 복구에 나섰고,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도 직접 피해 현장을 찾아 상황을 점검하며 종단 차원의 적극적인 복구 지원을 약속했다.

총무원 청사 화재…6개월 만에 복구

올해 6월 10일에는 조계종 총무원 청사인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화재가 발생해 종단 전체에 큰 충격을 안겼다.

조계종은 화재 직후 조계사 담소를 비롯한 인근 9곳에 임시 사무공간을 마련해 종무 행정 공백을 최소화했다. 동시에 TFT를 구성해 복구 작업에 즉각 착수했으며, 사부대중 역시 자발적인 기금 전달로 복구에 힘을 보탰다.

12월 15일 업무동 재입주를 시작으로 현재는 단계적으로 공사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선명상' 대중화, 외연 확대

조계종이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선명상 대중화' 사업은 '선명상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추진 체계가 정비되며 한 단계 진전을 이뤘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7월 24일 호우 피해를 입은 산청 지역을 찾아 희생자들의 극락왕생과 조속한 피해 복구를 발원했다. 사진은 산청 율곡사 피해 상황을 살피고 있는 모습.

지도자 양성과 프로그램 개발이 병행됐고,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운영 방식도 점차 자리 잡았다. 이를 통해 선명상은 특정 사찰이나 행사에 국한되지 않고, 누구나 접할 수 있는 '마음 평안' 콘텐츠로 자리 잡았다.

특히 10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2025 국제선명상대회 본행사 및 국제 컨퍼런스'에서는 선명상과 교육을 접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며, 선명상의 사회적 확장 가능성도 모색했다.

마애불, 실대형 모의실험서 30㎝ 양중

불교중흥의 초석을 다지는 사업으로 추진 중인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모시기'도 구체적인 진척을 보였다.

고송문화재보존연구소는 12월 2일 경주 시험장에서 원형 훼손 없이 이동과 입불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한 양중(揚重) 시험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는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조계종 미래본부도 함께했다.

시험에서는 약 110톤 규모의 실대형 모형을 유압 장치를 통해 약 30cm 들어 올리는 데 성공하며 기술적 검증 과정을 밟았다. 연구진은 이번 실험 결과를 종합해 2026년 1월 최종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조직개편 · 사면 등 종단 화합 도모

조계종은 올해 조직개편과 사면·경감·복권 절차 시행을 통해 종단 운영 전반의 체계를 재정비하고, 종단 화합과 연대에 힘썼다.

4월에는 1994년 종단개혁 이후 30년 만에 기존 총무원·포교원·교육원의 삼원 체제를 총무원 일원 체제로 통합했다. 기능이 분산돼 왔던 조직 구조를 정비하기 위한 조치다.

수불·선각 스님 등을 포함한 징계자 10명에 대한 사면·경감·복권도 이뤄졌다. 조계종은 10월 '화합승가'를 위한 종정 교시에 따라 '사면·경감·복권에 관한 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사면 절차를 진행했다.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종무회의, 중앙종회 의결을 거치고 종정스님의 재가를 받아 12월 22일부터 시행됐다.

활발한 의견 개진…달라진 중앙종회

올해 조계종 중앙종회는 기존 관행에서 벗어서 치열한 질의와 토론이 이어지며 변화된 흐름을 드러냈다. 정법회와 선우회 등 새로운 종책모임이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며 긴장감을 높였다. 사안에 따라 의견 차이로 논의가 과열되기도 했지만, 참회와 조정을 거쳐 현안을 정리해 가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특히 11월 5일 개원한 제236회 정기회는 15일 회기 중 3일만 개회했고, 의사정족수 부족으로 2차례 유회되는 상황도 벌어졌다. 격론 끝에 2026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예산안은 1054억원으로 확정됐다. 다만 기대를 모았던 비구니 호계위원 참여를 위한 종헌개정안은 단 한 표차로 부결돼 책임 있는 표결과 신뢰를 둘러싼 과제를 남겼다.

중앙종회는 12월 15일부터 18일까지 해외연수를 통해 화합과 소통의 시간을 갖고,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되새겼다. 내년 제18대 중앙종회 마지막 임기는 주요 현안을 둘러싼 논의가 한층 활발해질 전망이다.

종단 중흥 전기 만든 태고종

불교계 주요 종단들도 바쁜 한 해를 보냈다.

태고종(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올 한 해 종단 중흥의 전기를 만들었다. 이는 11월 8일 서울 광화문광장 일원에서 열린 '2025 태고종 영산재·국제수계대법회'를 통해서다.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이자 국가무형유산인 영산재의 설행과 7개국 스님들이 칠증사로 동참한 이날 법석에는 1만여 명의 태고종도가 참석해 변화된 종단 위상을 보여 줬다.

또한 취임 2년을 맞은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종단 주요 종책사업들의 자문을 위한 '총무원장 직속 대외협력자문위원'들을 대거 위촉하고 종단 외연 확장과 인프라 구축에 매진했다. 영남 산불과 호우 등 재해 극복을 위한 자비행과 종교편향 등 사회 현안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올해 창종 60주년을 맞은 관음종(총무원장 법명 스님)도 10월 24일 서울 탑골공원에서 기념법회를 열고 AI시대 전법·포교를 선도할 종단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종정 영산 홍파 대종사는 법어를 통해 "AI시대에 변화를 알아차리는 지혜의 눈[慧眼]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화재 6개월만…조계종 청사 업무동 입주

12월 15일, 입주 기도 거행
올 연말까지 단계적 정상화

조계종 총무원 청사가 화재 발생 이후 6개월 만에 복구 공사의 일부를 마무리하고 업무동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조계종은 조속한 시일 내 공사를 마무리해 종무 행정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회복한다는 방침이다.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12월 15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앞마당에서 입주 기도식를 거행하고 본격적인 업무 정상화에 나섰다.〈사진〉 이 자리에는 총무원 교역직



스님들과 일반직 종무원 150여 명이 함께해 원활한 종무 운영과 종단 발전을 발원했다.

참석대중은 발원문을 통해 "우리의 역량이 곧 교단 발전의 근간임을 엄중하게 새기고 서로서로 아끼고 존중하며 탁마하겠다"며 "인연 있는 존재들과 인연을 맺어야 할 생명들의 바르고 행복한 삶을 위해 언제나 변함없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입주 기도를 거쳐 총무부와 기획실, 포교부 등 2·3층에 위치한 부서들은 우선 입주해 업무 공간 정비에 나섰다. 다만 일부 공사가 이어지고 있고, 사무실 내부 정리도 필요한 상황인 만큼 정상적인 종무 운영까지는 며칠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1층과 4층 총무원장 집무실, 지하 전통문화예술공연장 등은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입주할 예정이다. 화재 발생 지점이었던 국제회의장 등은 내년 2월 완공을 목표로 복구 공사가 진행 중이다. 김내영 기자

불교광장 회장 경우 스님 "연대·협력 강화"

12월 14일, 하림각서 '송년의 밤'
경우 스님 "종단 안정·화합 최선"

조계종 중앙종회 최대 종책모임 불교광장이 신임 회장 경우 스님의 취임을 맞아 그간 지향해 온 종책 담론의 방향성을 재정비하고, 회원 간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화엄 1·2·3회와 무량회, 비구니회로 구성된 불교광장(회장 경우 스님, 선운사 주지)은 12월 14일 서울 하림각에서 회장 취임 축하연을 겸한 '불기2569(2025)년 불교광장 송년의 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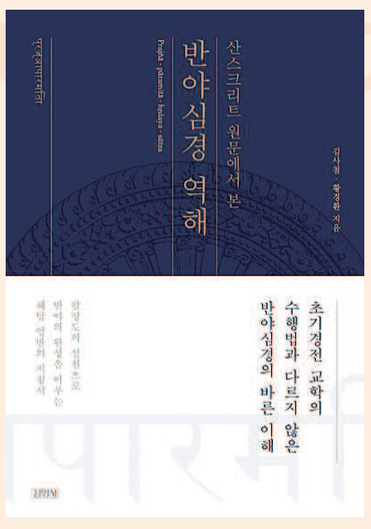
을 개최했다.〈사진〉 이 자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 호계원장 정묵 스님, 불교광장 회장 경우 스님을 비롯한 소속 회원 스님 53명, 총무원 총무부장 성웅 스님을 비롯한 부실장 스님 등 70여 명이 함께했다.

경우 스님은 "'종단의 소통과 안정, 화합과 발전'이라는 지향은 반드시 지켜 내야 할 초심의 가치다. 잠시 흐트러졌던 본분사를 돌이켜, 가고자 했던 정도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날 경우 스님은 불교광장 종책연구기금 2000만원과 종회의원 해외연수 지원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진우 스님은 치사를 통해 "(경우 스님은) 현직 교구장이자 다선 교구장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불교광장을 잘 이끌어 주실 것으로 믿는다"며 "불교광장이 경우 스님을 중심으로 화합과 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내영 기자

초기 경전의 교학 이론과 수행법을 통하여 '공'과 '지혜'의 의미를 새롭게 밝힌다



산스크리트 원문에서 본
반야심경 역해

이번에 김영사에서 1판 5쇄로 출판(2025.11.26)된 『산스크리트 원문에서 본 반야심경 역해』(저자 김사철, 황경환)는 서기 649년에 중국의 현장 스님께서 자국의 언어인 한문 260자로 번역한 이후 1300여년 넘게 우리나라에 전승 되어온 내용을, 17자를 빼고 11자를 추가 삽입한 254자로 수정 보완하여 출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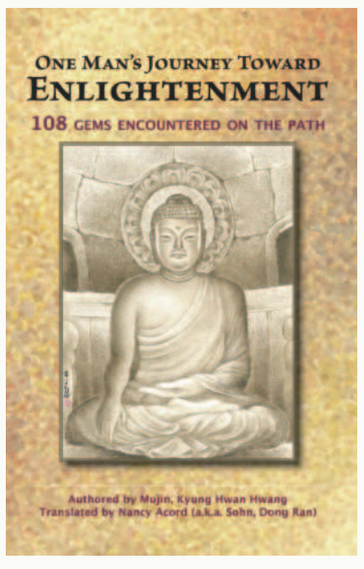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수정보완판에 대하여(14쪽~19쪽)]에서 현장 스님 번역의 오류를 지적한 부분, 원문에 없는 내용이 첨가된 부분은 삭제, 원문에 있음에도 번역에서 결락 된 부분은 다시 번역을 추가했다는 것을 밝히면서 이번 5쇄로 출판된 본 『산스크리트 원문에서 본 반야심경 역해』를 접하는 불교학자나 불자들께서는 그 동안 반야심경에 대한 나름대로의 자기 견해나 또는 소설을 쓰지 않았으면 하는 기대도 함께 해 본다.

저자 無塵 황경환

"《반야심경》을 초기불교 수행법에 따라 체득하겠다는 도전과 진솔한 체험이 담긴 이 책은 우리 시대의 방식으로 《반야심경》의 생명력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강성용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소

김사철·황경환 지음 | 김영사 | 280쪽 | 15,800원

"깨달음의 여정에서 건져올린 108가지 보석 같은 이야기"



ONE MAN'S JOURNEY TOWARD
ENLIGHTENMENT
108 GEMS ENCOUNTERED ON THE PATH

근본 불교가 가리켜 보이는 진리의 핵심 대의에서부터
양자물리학이 말하는 불교 사상에 이르기까지
초기불전연구원 선임연구원인 저자가
평생에 걸쳐 수집해 온 108가지 보석 같은
이야기들을 통해 영원한 자유의 길을 펼쳐 보인다.

'깨달음의 여정에서 주워 올린 108개의 보석들'이라는 제목으로
영문판 발행, 아마존에서 페이퍼백, 전자책, 오디오북 발매중!

· 사)21세기불교포럼 경주시 알천북로 345 | 사무국장: 최진홍 010-9210-2959, 회계과장: 임정은 010-8562-7312

문제 개선 목소리 높이고 취약계층 자비 실천

2025 사회·복지·NGO 결산

노동자 위한 제도 개선 행동나서
'나는 절로'로 청년 만남 장려도
산불 · 지진 국내외 재난 구호 활동
종교편향 비판…시정 강력 요구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조계종과 아름다운동행 주최로 11월 18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 앞 특설무대에서 열린 '산재사망 희생자 추모 위령재'에서 진우 스님과 김민석 총리가 헌향하고 있다.

2025년 불교계는 사회문제와 취약계층에 몸과 마음을 함께하는 행보를 이어 갔다. 또 청년들의 삶에 희망을 안기기 위해 노력했으며 또 국내외 구호현장에서 이재민을 위한 다양한 행보를 펼쳤다. 매년 발생하는 종교편향 문제에 대해서는 비판과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이어 갔다.

올해 불교계는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개선을 위해 멈추지 않고 행동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합동 49재를 시작으로 SPC, MBC 등에서 발생한 노동자들의 억울한 죽음을 규탄하는 연대활동을 적극 펼쳤다. 특히 이주노동자의 산재 사망이 이어지자 이들에 대한 진상규명과 제도 개선에 목소리를 높였다. 안전하고 차별 없는 일터를 기원하는 염원이 모이자 조계종은 11월 18일 서울 조계사에서 '산재사망 희생자 추모 위령재'를 봉행했다. 위령재에는 산재 노동자 140여 명의 위패가 모셔졌으며 김민석 국무총리와 30여 유가족이 동참했다.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은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지난해에 이어 만남 템플스테이 '나는 절로'로 청년들이 불교적 가치와 만남의 장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시켜 줬다. '나는 절로'는 회를 거듭할수록 식지 않는 열기를 재확인했다. 특히 지난 9월 실시된 '신흥사' 편에서는 24명 선발에 2620명이 접수, 역대 최대 규모 참가 신청을 기록했다. 최근에는 결혼 1호 커플이 탄생하며 전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진우 스님은 대통령 직속기구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로부터 젊은 세대들이 긍정적인 결혼관을 형성하도록 돕는 한편 가족친화적 사회 문화가 조성되는 데 기여했다며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불교계 NGO와 구호단체들은 산불과 지진 등 자연재해를 당한 국내외 구호현장에서 이재민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바쁘게 움직였다.

3월 영남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산림과 가축, 농작물이 피해를 입은 가운데 천년고찰 고운사가 전소되는 아픔을 겪은 불교계에 산불복구를 위한 마음이 모였다. 전국 사찰과 불교단체에서 모연되 피해복구기금과 물품이 피해 사찰과 지역민에게 전달됐다. 사찰림 복원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대고 대책 마련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3월 28일 미얀마에 강진이 발생하자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재난사회복지전문기관 더프라미스와 함께 4월 8일 지진피해 긴급구호 합동선발대를 구성, 현장을 찾아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을 위해 구호활동을 펼쳤다.

재단법인 아름다운동행은 지난 7월 말, 현지에 방문해 2500만원 상당 복구기금과 물품을 전달했다. 로터스월드도 6월, 미얀마 지진 현장을 직접 방문해 쌀과 식용유 등 생필품을 전달하며 주민을 격려했고 특별히 영아들을 위해 2억원 상당의 아동복을 지원하기도 했다. 로터스월드는 또 본지와 공동 캠페인을 통해 수인성 질병에 노출된 미얀마 국민을 위한 정수시설 설치를 꾸준히 이어 가 최근 6기를 완공했다.

올해는 종교편향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해였다. 가톨릭 국제 행사인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를 앞두고 특별법이 발의되자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협의회와 중앙종회는 즉각 반발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현재 특별법은 표류 중이다.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김문수 후보가 기독 편향 발언으로 불교계의 경고를 받고 불교계에 직접 사과하기도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개신교 편향적 발언을 이어 가다 불교계의 강한 비판을 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계종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을 초청해 격려했다. 왼쪽부터 아름다운동행 상임이사 법오 스님, 이재명 대통령, 김혜경 여사, 박경숙 아름다운동행 이사. **사진 제공=대통령실**

李, 나눔 확산 기여 '동행' 격려

이재명 대통령이 조계종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진우 스님) 등 기부·나눔 문화 확산에 진력하고 있는 단체를 초청해 격려했다.

대통령실은 12월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5 기부·나눔단체 초청행사'를 열었다. 행사에는 아름다운동행이 불교계 단체 중 유일하게 초청받아 참석했으며 구세군, 대한결핵협회, 바보의나눔, 유니세프 등 15개 기부·나눔단체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이재명 대통령 내외는 참석 단체에 성금을 전달하며 소외이웃을 돕고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단체들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송정인 수습기자

태고종 상진 스님, 구세군에 성금 전달

12월 13일 이웃돕기 성금 기부
주석 사찰 청련사서 기금 모연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12월 13일 서울 구세군빌딩을 방문해 개신교 자선단체인 구세군에 이웃돕기 성금을 전달했다.〈사진〉 이번 성금은 주석처인 양주 청련사에서 십시일반 모금돼 의미를 더 했다.

상진 스님은 "이웃 종교와 함께할 수 있어 남다른 기쁨을 갖게 된다"며 "종교의 경계마저 넘어서면서 사회를 따뜻하게 만드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이에 한세종 구세군 한국군국 서기장관은 "불교와 기독교의 가치관이 하나 되는 활동이 많은 이들을 감화시킬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중일 기자

진우 스님, 김영배에 "시민 행복 정책" 조언

12월 16일, 출마 선언 후 첫 일정
김 의원 "아우르는 행정 펼치겠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첫 공식 일정으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만나 서울시민을 아우르는 행정의 방향성에 대한 가르침을 구했다.

진우 스님은 12월 16일 서울 조계사 템플스테이관 3층 담소에서 김영배 의원을 예방을 받고 "서울 시민의 행복을 위해 미래 비전을 분명히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사진〉

김영배 의원은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진정성 있는 소통의 과정이 우선돼야 할 것 같다"고 화답했다.

김내영 기자

신관 건립 · 갤러리 개관 20돌 동국대일산병원 발전 '잰걸음'

12월 11일 신관 건립 선포
'땅 한 평 원력'운동 전개
12월 17일 '갤러리 숨' 개관


동국대일산불교병원은 12월 17일 1층 로비에서 '갤러리 숨(SUM)' 개관 초대전 개막식을 개최했다. 사진은 기념촬영 모습.

올해 개원 20주년을 맞은 동국대일산불교병원(병원장 백용해)이 발전과 변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동국대일산불교병원은 12월 11일 병원 4층 중강당에서 신관건립기금 모금 '땅 한 평의 원력'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번 모연은 5년간 600억원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며 상급종합병원으로 진입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로 풀이된다. 원력을 모아 첫 참여에 나선 백용해 병원장은 "오늘의 '땅 한 평의 원력'은 우리 병원이 상급종합병원으로 나아가는 귀중한 첫걸음이자 지역사회에 회향하려는 서원"이라고 말했다.

선포식 이후 교직원들의 높은 관심과 공감대가 형성돼 기금 약정 동참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발적 참여가 진행되면서 '땅 한 평의 원력' 모금 캠페인이 미래를 준비하는 뜻깊은 여정으로 거듭나고 있다.

동국대일산불교병원은 "이번 모금 캠페인을 통해 모아진 귀한 정재로 신관을 건립하고, 이를 토대로 불교적 인술과 자비 정신을 실천하는 의료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약사여래의 원력이 살아 숨 쉬는 치료 환경을 구축해 지역사회에 더욱 원만하게 회향하는 의료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12월 17일 1층 로비에서는 환자의 마음 치유와 지역 사회와의 소통을 위한 '갤러리 숨(SUM)' 개관 초대전 개막식이 열렸다.

예술을 통해 일상에 쉼을 불어넣는 열린 치유 공간을 지향하는 '갤러리 숨'은 생명의 순환과 불교적으로는 '한 호흡에 깨어 있음[息念, anapanasati]'을 의미한다. 갤러리의 지향점에 맞춰 개관전 작가로는 강민정 동국대 WISE 캠퍼스 디자인미술학과 조교수가 '순환'이라는 주제로 회화 작품들을 선보인다.

개관식에서 이해원 동국대 의료원장은 "이 공간이 우리 병원을 찾는 환자와 보호자, 의료진 모두에게 잠시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다시 힘을 채워 넣는 치유의 순환이 머무는 길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갤러리 숨' 개관 초대전 '순환'은 내년 2월 27일까지 전시가 이어진다. 이후에도 회화, 카툰 등 다양한 전시를 환자와 보호자, 지역사회에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신중일 기자



단기출가학교로 출가장려…대학생 전법 활발

2025 포교·신행 결산

총무원 일원화로 포교원→부 재편
출가진흥 · 인력 조직 · 신도 활성
동국대 중심 대학생 전법 · 포교
전법특임교수 신설로 인프라 확충

신중일 · 임은호 기자



조계종이 출가장려 사업 일환으로 올해부터 전국 교구본사를 중심으로 단기출가학교를 개설했다. 교구본사 중 처음으로 수덕사가 9월 12일 제1기 선출가학교를 운영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지난 4월 1일 30년 간 유지해 온 삼원체제를 총무원으로 일원화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세대가 바뀌었고 탈종교화와 인구 감소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제기된 조직개편 필요성에 따라서다. 이에 포교원은 포교부로 재편, 출가 진흥과 포교 인력 조직화, 신도 활성화에 집중하는 한 해를 보냈다.

단순히 출가를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출가 인력을 양성해 나는 것이 핵심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조계종이 출가장려 사업 일환으로 전국교구본사를 중심으로 추진한 단기출가학교가 수덕사에서 첫발을 내디뎠다.

제7교구본사 수덕사(주지 도신 스님)는 9월 12~21이 '제1기 禪출가학교'를 실시했다. 열흘 간의 일정에는 행자 13명이 입교해 전원 무사히 수료했으며, 출가를 결심한 행자도 배출돼 단기출가학교의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졌다. 수덕사는 1기 활동을 바탕으로 제2기 선출가학교를 동안거 해제 이후 운영하기로 했다.

제24교구본사 선운사(주지 경우 스님)도 11월 21~30일 '선운사 제1기 단기출가학교 쉼, 그리고 시작'을 실시했다. 14~66세까지 총 11명이 입교한 가운데 9박 10일간의 일정에서 입교자 전원이 무사히 일정을 수료했다.

내년에는 제3교구본사 신흥사와 서울 진관사 등이 단기출가를 준비 중에 있다. 조계종은 10개 권역 교구본사에서 출가학교를 순차적으로 개설해 출가 진흥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포교 손길이 닿지 않는 취약 지역 중심으로 전법단 역량을 강화하고 산발적을 포교인력을 결집, 선명상 지역축제를 활용한 지역포교 활성화를 도모하기도 했다.

지난 6월 21일, 인천 강화 지역 불자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역 결집대회 일환인 선명상 축제가 열렸다. 참가자들은 대한민국 제2도시로 웅비하는 인천광역시 위상에 맞게 자비를 실천하고 이웃에게 봉사하는 지역문화를 꽃피을 것을 다짐했다.

지역역량 결집대회는 올 하반기에도 이어졌다. 11월 22일에는 세종 광제사에서 '대전·세종·충청 포교역량 결집대회 – 1250인 아라한 야단법석'이 개최됐다. 어린이·청소년·대학생·포교사 등은 전법을 다짐하는 실천선언문을 함께 발표하기도 했다.

대학생 전법·포교 분야는 올 한해 동국대(총장 윤재웅)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됐다. 올해 2월 동국대는 교내 전법을 담당할 '전법특임교수' 제도를 신설하고 전법 인프라를 확충했다. 전법특임교수 제도는 동국대에서 기존에 운영하던 지도법사단에서 한 단계 발전한 형태다.

이와 함께 동국대는 불교동아리 활동 강화를 위해 신행 마일리지인 '드림 패스(Dream Path)' 제도를 도입했다. '드림 패스 마일리지'는 동아리 가입, 영캠프 참여 등에 점수를 부여하고 이를 적립할 시 불교계 장학과 우수 활동 포상에 혜택을 주는 제도다.

이 같은 인프라 확충의 성과는 9월 16일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2025 영캠프:주인공'에서 3500여 명이 수계를 받는 것에서 나타났다. 실제 9월 4일 시작한 참가 신청은 2분 만에 마감돼 11일 한 번 더 500석 추가 신청이 진행됐으며, 이 역시도 시작과 동시에 매진됐다.

나아가 동국대는 대학생 전법으로 탈북민 포교의 새 장을 열었다. 동국대를 중심으로 한 24개 대학 53명의 학생이 참여하는 북한 출신 학생 불교동아리 '無이판사판'이 9월 25일 창립됐다. 북한 출신 학생 불교동아리 창립은 전법·포교의 중요한 성패는 '관심'에 있음을 다시금 보여줬다. 한국교수불자연합회(회장 이상훈, 이하 교불련)는 대학생 전법 현장에서 활용하기 위한 교재 제작에 들어갔다. 8월 11일 열린 워크숍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교재 발간을 위한 워크숍을 이어가고 있으며 내년 하반기 발간한다는 계획이다.

재난이 일상 된 시대, 불교계 대응 어디까지 왔나

조계종복지재단, 미래 포럼 개최
'재난 일상화 시대 불교계 역할'



'재난의 일상화 시대'라는 안타까우면서도 피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재난 예방과 회복, 사회적 연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불교계 재난 대응의 현재와 과제를 점검하고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도륜 스님)은 12월 17일 서울 노무현시민센터 1층 다모여강의실에서 '재난 일상화 시대: 불교계 역할'을 주제로 미래복지포럼을 개최했다.〈사진〉 포럼은 조계종 긴급재난구호봉사대 창립 20주년과 더프라미스 국제재난심리지원단 이지스 출범 10주년을 기념해 마련됐다. 이날 포럼에서는 심리·정서 회복과 불교계 차원의 대응체계 구축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특히 재난 대응 패러다임이 '물자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에서 불교계의 자비 실천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오유현 더프라미스 국제재난심리지원단(이지스) 단장은 '이지스 10년간의 활동'을 통해 재난심리지원이 선택적 프로그램이 아니라 필수 인프라임을 강조했다. 오 단장은 "재난은 눈에 보이는 피해보다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처를 더 오래 남긴다"며 "심리지원은 재난 이후에 여유가 있을 때 하는 사후 프로그램이 아니라, 대응 초기부터 설계돼야 할 핵심 요소"라고 말했다.

이지스는 지난 10년간 국내외 재난 현장에서 아동·노인·이주민·난민 등 재난약자를 중심으로 심리지원 활동을 전개해 왔다.

특히 이지스는 피해자뿐 아니라 재난 현장에서 활동하는 봉사자와 활동가의 심리적 소진에도 주목해 왔다. 출국 전·중·후 심리지원을 위한 다층적 지원을 통해 '돕는 사람을 돌보는 구조'를 실천해 왔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오 단장은 "지속가능한 재난 대응을 위해서는 이중 안전망이 필요하다"며 "피해자와 활동가 모두가 회복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에서는 박정환 조계종사회복지재단 후원사업부 대리가 '조계종 긴급재난구호봉사대 20년의 발자취'를 돌아봤다. 박 대리는 "구호봉사대는 수해 지원에서 출발해 태안 기름유출 사고, 해외 지진, 세월호 참사, 코로나19까지 국내외 주요 재난 현장을 함께해 왔다"며 "불교계가 가장 먼저 손을 내미는 현장 실천의 상징이 돼 왔다"고 평가했다.

특히 최근 구호봉사대의 활동은 물자·인력 지원을 넘어 심리지원, 아이돌봄 쉼터, 재해구호 나눔터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대리는 "재난 이후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회복시키는 것이 진정한 복구"라며 "구호봉사대 역시 사람 중심 대응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임은호 기자

서울 불광산사, 장충동서 성북동 이전

12월 13일, 성북동 법당서 첫 법회
"새로운 인연 맺고 지역 적응"



서울 장충동에서 성북동으로 이전을 앞둔 서울 불광산사(주지 혜호 스님)가 새 법당에서 연말법회를 열고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6년 활발한 활동을 예고했다. 서울 불광산사는 12월 13일, 새로운 터전인 성북동 법당에서 연말법회를 봉행했다. 불광산사는 현재 장충동에서 성북동으로 터전을 이전하고 있다. 이날 연말법회는 성북동 법당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법회로 신도 50여 명이 동참했다.〈사진〉

서울 불광산사는 내년 봄, 성북동 법당을 정식 개원할 예정이다. 다만 장충동 법당도 당분간 유지된다. 혜호 스님은 "성북동 법당에 정식으로 부처님을 모시기 위해 인연 있는 불상을 살피는 중"이라면서 "법당을 잘 꾸며 여법하게 모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북동 법당에는 현재 주지 혜호 스님과 비구 스님 1명 등 총 2명의 스님이 상주하고 있다. 혜호 스님은 내년 봄 정식 개원에 앞서 교리강좌 같은 신도교육을 비롯해 서예, 다도, 태극권 등 지역주민이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운영·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혜호 스님은 "설비보완 등을 거쳐 자리를 잡으면 대외적으로 문을 열고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라며 "새롭게 법당을 찾은 이들과 인연을 맺고 새로운 지역에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불자 리더들 "새해도 자비로 희망 전할 것"

12월 12일, 불교리더스포럼 만찬
김혜경 여사 "국민 보듬어 주길"


사진제공=대통령실

사회 각계에서 활동하는 불교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해에도 사회에 희망과 울림을 전하는 등불이 될 것을 다짐했다.

불교리더스포럼(상임대표 이기흥)은 12월 12일 서울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불기 2569년 불교지도자초청 국민화합기원 송년만찬'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한 종단 지도자 스님들과 이재명 대통령 부인 김혜경 여사, 불교리더스포럼 회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진우 스님의 안내로 5분간 '행복으로 가는 선명상'을 한 후, 서로 합장 3배를 하며 송년 인사를 나눴다.

김혜경 여사는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아픔과 시련이 더 큰 도약과 화합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불교지도자 여러분이 국민의 마음을 더 따뜻하게 보듬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기흥 상임대표는 새롭게 구성된 리더스포럼 7기 대표단을 발표하고 "앞으로도 사회에 희망과 울림을 전하는 역할을 묵묵히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7기 리더스포럼은 17개 분과, 23개 지역교구에서 회원 1080명이 참여한다.

진우 스님은 '정신문명의 개막과 선명상의 길' 주제로 법문했다. 여수령 기자

동국대 지역불자장학 기금 전달 잇달아

수덕사 3000만원 · 삼천사 5000만원 '쾌척'



'예산 수덕사 지역미래불자육성장학 장학증서 수여식' 모습.

조계종 제7교구본사 덕숭총림 수덕사(주지 도신 스님)와 서울 은평구 삼천사(회주 성운 대종사)가 지역미래불자육성장학기금 전달하고 동국대 재학생들과 새로운 인연을 맺었다.

동국대(총장 윤재웅)는 12월 17일 본관 5층 건학위원회 회의실에서 '예산 수덕사 지역미래불자육성장학 장학증서 수여식(제133회)'을 개최했다. 이날 수덕사는 장학금 3000만원을 전달했으며 충남 예산·당진·홍성·서산·태안 출신 재학생 10명에게 각각 장학금 100만원이 수여됐다.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은 "덕숭총림 수덕사와 첫 인연을 맺게 된 충남 예산·당진·홍성·서산·태안 출신 재학생들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면서 "겨울 방학기간 고향 가는 길에 수덕사에 방문해 좋은 추억과 인연이 함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수덕사 주지 도신 스님은 "미래 사회와 미래 불교를 이끌 인재를 위해 어떻게 후원할지 방법을 고민하던 차에, '지역을 살펴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조언에 지역미래불자육성장학에 동참하게 됐다"면서 "인재불사를 위해 앞으로도 지역미래불자육성장학에 계속 참여해 힘을 보태겠다"고 기부 소감을 전했다.

앞서 은평구 삼천사는 12월 16일 본관 4층 로터스홀에서 열린 '지역미래불자육성장학 장학증서 수여식(제132회)'에서 기금 5000만원을 쾌척했다. 장학금은 서울 은평구 거주 학생과 이과대학 불교동아리 '자연科 함께' 회원, 대학원 학인스님, 북한출신 학생 등 총 50명에게 각 100만원씩 수여됐다.

윤재웅 동국대 총장은 "장학생들이 어긋나지 않게 성장하고 불심을 키우고 사회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도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삼천사 회주 성운 대종사는 "동국대가 올해 보여준 놀라운 규모의 단체 수계법회를 삼천사 먼발치에서 지켜보며 응원했다"면서 "젊은 불자 양성이라는 목표를 향한 이사장 스님과 총장님, 학교 관계자들의 노력이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생들의 성장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지속적인 기부를 약속했다.

한편, 지역미래불자육성장학은 2021년 동국대학교 건학위원회가 시작한 장기 프로젝트로, 동국대 학생들과 지역 사찰을 연결해 지역사회 공헌과 미래불자 양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인재불사 장학 사업이다. 신중일 기자



"홍보대사 배아현과 연탄 온기 전해요"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도륜 스님)이 홍보대사 배아현 씨를 비롯한 팬클럽 '아트' 회원 30여 명과 함께 12월 14일 서울 은평구 수색동 연탄골목에서 '온기를 전하는 연탄자비나눔'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지난 1월 연탄 나눔 당시 주민들이 호소했던 어려운 현실을 기억하고 '다시 찾아뵙겠다'는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연탄골목 일대 6가구에 전달된 연탄은 2000장. 이미 연탄을 구매한 7가구에는 이불 13세트, 라면 20박스, 커피 13박스 등 생필품을 전했다. 임은호 기자

불교의례 '보편 기준' 모색한다

12월 26일, 전자불전硏 주최
남산책방서 '불교의례 세미나'

불교의례의 기원과 전통을 재조명하고, 세계 불교가 공유할 수 있는 보편 기준을 모색하는 학술세미나가 열린다.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소장 주경 스님)는 12월 26일 서울 남산책방 2층에서 '불교의례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예경과 찬탄, 공양, 참회, 수희, 회향 등 불교의례의 핵심 요소를 중심으로 동북아시아 불교권과 남방 불교권에 전승돼 온 의례 전통을 비교·검토하고, 국제 교류 시대에 부합하는 공통 의례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둔다.

경완 스님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불교 수계의례의 기원과 정비(이자랑 불교학술원 교수) △중국 전통 총림의 불교의례(서울 불광산사 혜호 스님) △신라 의례의 흔적을 찾아서-일본의 논의(김지연 불교학술원 연구원) △미얀마의 불교의례(이진영 동국대 교수) △세계에 표준을 제시하다-한국 전통 불복장 의례(김연미 이화여대 교수) △국제 불교교류 합동의례를 위한 한국불교 의례 요소 분석(강향숙 불교문화연구원 연구원)이 발표된다.

전자불전연구소장 주경 스님은 "세계의 불교도들이 다른 문화권의 의례를 이해하고 수용하기 위해서는 각 전통의 현황과 초기 모델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며 "이번 세미나가 세계 불교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의례적 공통분모를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위기 속 빛난 자비와 혁신, 미래 향한 등불 밝히다

현대불교신문 선정 2025년 10대 뉴스

올 한 해 불교계는 계엄 사태와 조기 대선이라는 정치적 혼란 속에서 국민을 위로하고 화합을 이끌며 사회 통합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했다.

반면 대형 산불과 수해로 천년고찰이 소실되는 아픔을 겪었고, 종단 행정의 중심인 조계종 청사 화재라는 악재를 맞았으나 위기에 굴하지 않고 신속한 복구와 종무 정상화를 이뤄냈다.

전법의 현장에서는 활력이 넘쳤다. '힙불교'로 상징되는 젊은 세대와의 접점을 확대하고, 국내외 재난 현장에서는 활발한 구호 활동을 펼쳤다.

현대불교신문이 선정한 '2025년 불교계 10대 뉴스'는 위기 앞에서 공동체의 아픔을 위로하고 시대의 요청에 응답해 온 한국불교의 현재를 보여준다. 〈편집자 주〉



올 한 해 불교계는 대형 산불과 수해로 천년고찰이 소실되는 아픔을 겪었지만, 사부대중은 마음을 모아 복구와 치유의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은 3월 발생한 산불로 훼손된 고운사 범종.



조계종 청사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은 화재 발생 6개월 만인 12월 15일 업무동 재입주가 시작됐다.



조계종이 8월 14일 봉행한 '8·15광복 80주년 기념 남북의 평화와 화합을 위한 기원법회'.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11월 30일 진행한 이주노동자 인권 향상 발원 삼보일배.

1. 국민 위로하고 화합 이끌어

우리 사회는 12·3 비상계엄 선포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새해를 맞았다. 불교계는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정치적 이해를 넘어 국민의 불안과 상처를 어루만지고, 민주적 절차에 따른 해결과 사회 통합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발표해 종교의 사회적 책무를 다했다.

불교 각 종단은 비상계엄 선포 후 신속하게 성명을 내고 국민의 아픔을 위로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른 조속한 사태 해결을 위해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파면 선고 후에는 '대화합의 길로 나아가자'는 메시지를 내 분열과 혼란을 막았다. 특히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정치인들에게 "사회적·경제적 위기를 초래한 데 책임을 느끼고 참회해야 한다"고 매섭게 경책했다.

위기의 순간마다 국민 곁에서 평안과 통합을 발원한 불교계의 이 같은 행보는, 종교가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공동체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음을 보여준 상징적인 장면이다.

2. 대형 산불·수해 천년고찰을 삼키다

3월 영남 지역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조계종 제16교구본사 고운사와 운람사 등 6개 전통사찰이 피해를 입었다. 특히 고운사는 전체 30동의 건물 가운데 21동이 전소됐고,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인 가운루와 연수전도 화마를 피하지 못했다. 운람사 역시 전각과 부속건물 등 7개 동이 모두 불에 타는 아픔을 겪었고, 인근 산림도 광범위하게 훼손됐다.

여름에는 산청과 충청 지역을 덮친 집중호우로 전국 사찰 47곳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산사태로 토사가 유입돼 대웅전 벽이 무너지고, 요사채·석축 붕괴, 도로 유실, 싱크홀, 전각 침수 등이 발생했다.

3. 화재 악재 딛고 종무 정상화

6월 10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조계종 총무원 청사가 피해를 입었다. 국제회의장 인근과 업무동 일부가 훼손됐으나, 현장 대응이 신속히 이뤄지면서 인명피해와 문화유산 손실은 없었다. 종단은 화재 직후 인근 시설을 활용해 임시 업무체계를 가동하고, 전담 조직을 꾸려 복구 절차에 착수했다. 피해 조사와 정비 공정을 거쳐 12월 15일부터 업무동 재입주가 시작됐고, 현재 종무 행정 정상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4. 태고종·관음종 '도약'

태고종은 11월 8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2025 태고종 영산재·국제수계대법회'를 통해 종단 중흥의 전기를 만들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이자 국가무형유산인 영산재의 설행과 7개국 스님들이 칠증사로 동참한 이날 법석에는 1만여 명의 태고종도들이 참석해 변화된 종단 위상을 보여줬다.

올해 창종 60주년을 맞은 관음종은 10월 24일 서울 종로 탑골공원에서 기념법회를 열고 AI시대 전법·포교를 선도할 종단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다.

5. '힙불교' 열풍 이어져

힙한 불교 열풍은 올해에도 이어졌다. 불교 굿즈는 Z세대들에게 '힙'함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지 오래다. 지난 4월 열린 서울국제불교박람회에서도 각종 불교 굿즈들은 구매하기 위해 문전성시를 이뤘고,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자체 캐릭터인 '반달이'의 스님 버전 '반달 스님' '반달 동자 스님'을 출시해 완판 행렬을 이어갔다.

힙불교 열풍에 힘입어 동국대를 중심으로 대학생 전법도 활발히 이뤄졌다. 특히 9월 16일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2025 영캠프:주인공'에서 3500여 명이 수계를 받으며 높은 호응도를 보였다.

6. 불교사회복지 30년, 국내외 자비 손길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창립 30주년을 맞았다. 30년 전 21개였던 시설은 181개로, 300여 명으로 출발한 복지 종사자는 5600명으로 늘었다. 복지서비스 영역은 아동·청소년·보육·장애인·노인·종합복지 영역으로 확대했다. 최근 선보인 '나는 절로', '청년밥心' 등 시대 변화에 발맞춘 프로그램은 불교계 안팎으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국제구호에도 앞장섰다. 3월 28일 미얀마에 강진이 발생하자 복지재단은 재난사회복지전문기관 더프라미스와 함께 긴급구호 합동선발대를 파견,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을 위해 구호활동을 펼쳤다.

7. 광복 80주년, 불교 독립운동을 기리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불교계는 각 종단 및 사찰에서는 기념법회를 열어 순국선열과 불교계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넋을 기리고, 분단과 갈등의 시대를 넘어 자비와 평화의 길을 모색했다. 또 불교 항일운동을 조명하는 학술세미나와 자료 발굴, 전시회 등을 통해 그동안 충분히 조명받지 못한 스님과 재가불자들의 독립운동사를 복원했다.

특히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사찰들은 8월 15일 오전 10시에 33번의 타종을 울림으로써 광복의 의미를 새기고 국민화합을 발원했다.

8. 사회적 약자에 귀 기울인 불교계

불교계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취약계층과 함께하는 행보를 이어가며 사회적 역할을 다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노동자의 억울한 죽음을 규탄하는 연대활동을 적극 펼쳤고, 산재 사망에 대한 진상규명과 제도 개선에 목소리를 높이며 추모 위령재를 봉행했다. 정부도 위령재 취지에 호응, 김민석 국무총리가 직접 참석했다.

산불과 지진 등 자연재해를 당한 국내외 구호현장에서 이재민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모연활동과 긴급구호대 투입 등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을 지원하는 등 취약계층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9. 우리 시대 선지식 '원적'

올해 한국불교 현대사를 일구고 수행과 전법에 매진한 큰스님들을 떠나보내는 큰 슬픔을 겪었다. 조계종 포교원장 등을 역임하며 한평생 전법의 길을 걸었던 조계종 원로의원 금산당 도영 대종사는 11월 20일 원적에 들었다. 조계종 중앙종회 불교광장 회장이자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인 만당 스님의 갑작스러운 입적은 불교계에 큰 충격을 안겼다.

또 불교 사회복지를 선도하며 한국 비구니 승가를 이끈 전국비구니회 원로의장 안산 수현 스님과 부산 도원사 주지 만오 스님 등 선지식들이 대중의 곁을 떠났다.

10. 종교인구조사

올해 10~11월에는 10년 주기로 진행되는 '종교인구조사'가 이뤄져 불교계가 범종단적 대응에 나섰다. 종교인구조사 결과는 우리 사회의 종교지형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이자 정책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불교계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차원에서 불자들의 적극적인 조사 참여를 독려하며 정확한 불자 현황을 반영하기 위해 역량을 결집했다. 조사 결과는 2026년 11월 말 공표될 예정이다.

동방불교대학 2026학년도 신입생 모집
2025.12.22~2026.02.05

동방불교대학 QR code

모집학과
불교학과
- 2년 과정
- 인터넷 강의

범패학과
- 2년 과정
- 주 1회 출석 강의

자격 및 서류
자격
- 만 18세 이상
- 학력제한 없음
- 서류전형

제출 서류
- 입학원서 1부
- 주민등록등본(선택발급)

원서교부 및 접수
원서 교부
- 대학 홈페이지: http://dongbang.org/

원서 접수 기간
- 2025.12.22~2026.02.05

접수처 (우편,팩스,이메일)
- 팩스: 02-733-0728
- 이메일: dongbang2030@naver.com

입학문의
동방불교대학 교학처
- 02-745-2030
- 010-3224-34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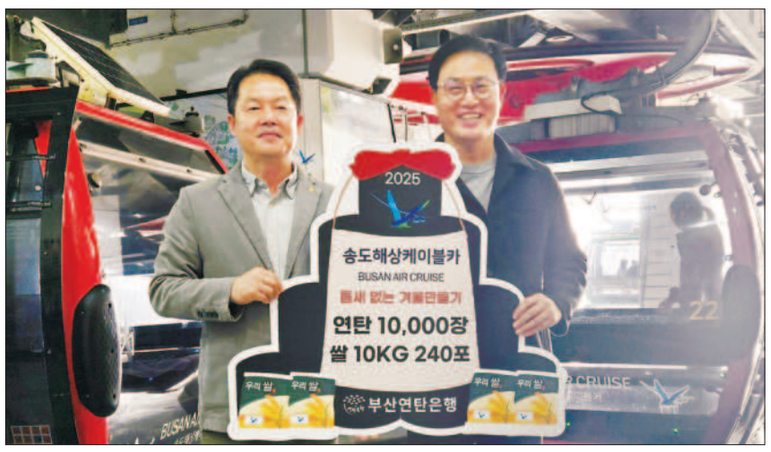
합격자 발표
- 2026.02.26
-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한국불교태고종 종립 동방불교대학
(우 03062)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길 31 1층 TEL: 02-745-2030 FAX: 02-733-0728

송도케이블카 "지역과 상생이 기업의 몫"

전문환 송도해상케이블카 대표
올 한해 소외 이웃에 2억여 원
'사회공헌', 경영 방침 맞닿아
이용객 기부금 적립해 나눔도
시공부터 자연 훼손 최소화 주력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hasm77@hanmail.net



대월플러스 기업 계열사 송도해상케이블카는 사회환원을 통한 지역 상생을 추구하고 있다. 사진은 전문환 송도케이블카 대표(왼쪽)가 부산연탄은행에 연탄 등을 전달하는 모습.

"관광시설을 통해 얻은 수익이 회사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과 함께 나누고 상생하는 것이 기업의 몫입니다"

2억 1280만원. 2025년 한 해 동안 송도해상케이블카(대표 전문환)가 지역 소외 이웃을 위해 나눈 금액이다. 2017년 개장 당시부터 8년간 이어온 나눔이 연말을 맞아 알려져 따뜻함을 전하고 있다.

12월 16일 송도해상케이블카 사무실에서 만난 전문환 대표는 "관광시설을 안전하게 운영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이 있다면 지역 사회에 다시 환원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것이 기업의 몫"이라며 "단순히 고객을 많이 유치해 매출을 늘리는 것 자체가 목표는 아니다. 이는 불자 기업으로 나눔과 사회 환원의 가치를 강조했던 최효섭 총괄 사장의 경영 방침과도 맞닿아 있다"라고 밝혔다.

송도해상케이블카는 부산 서구 송도해수욕장과 암남공원을 연결하는 해상 케이블카 시설로, 관광 콘텐츠를 통해 부산 원도심 관광의 한 축을 맡고 있다. 매년 외국인 관광객 70만명 이상을 유치하는 등 지역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아울러 쌀 나눔과 연탄 지원, 장학금 전달, 복지단체 후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도 정기적으로 이어가 기업운영의 모범적 선순환 구조를 보이고 있다. 매월 마지막 수요일을 '나눔의 날'로 지정해 케이블카 이용객 참여를 통해 기부금을 적립하는 방식도 운영 중이다.

전 대표는 "생필품이나 쌀을 전달하고 나면, 오히려 우리가 고맙다는 마음을 느끼고 돌아올 때가 많다"며 "받는 분들의 반응을 통해 기업 역시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고 말했다. 직원들 역시 회사의 사회공헌 활동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이러한 공감이 조직 내부의 화합으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송도해상케이블카 개장 이후 지역 변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전 대표는 "과거 송도 일대는 관광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이었지만, 케이블카 개장 이후 숙박시설과 상권, 관광 편의시설이 정비되는 흐름이 나타났다"며 "동부산 중심의 관광 흐름이 서부산으로도 확장되면서 균형 발전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정규직과 계약직, 단기 근로자를 포함해 연간 1000명 이상이 근무하며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했다.

특히 회사는 환경보호를 위해 케이블카 시공 단계부터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는데 주력 했다. 전 대표는 "바다 시공 과정에서도 흙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법을 선택했고, 운영 과정에서도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케이블카는 전기를 이용하는 시설로, 차량과 같은 매연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도 특징"이라고 말했다. 시공 당시 환경단체와 지역민들의 소통도 잊지 않았다.

전문환 대표는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안전사고 없이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며 "관광을 통해 얻은 성과가 지역 사회로 다시 돌아가는 구조를 이어가고, 눈에 잘 띄지 않는 곳까지도 살피며 나눔을 지속해 나가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대원플러스 기업 자회사인 송도해상케이블카는 2025년에는 사랑의 쌀독 운영 지원으로 총 3760포, 1억6986만원 상당의 쌀을 부산 지역 6개 구에 전달했으며, 애아원과 은애모자원 등 복지단체에 생필품 지원으로 998만4000원을 후원했다. 또 교육취약 학생을 위한 장학 지원으로 송도중학교에 1800만원을 지원했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산타원정대'와 자립키트 지원에 455만7970원을 후원했다. 이와 함께 부산연탄은행을 통해 연탄 1만장과 컵라면 2000개 등 총 1040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했다.

부산불교문인협, 제28회 실상문학상 시상

12월 13일, 홍법사 대적광전서
대상 이석래 · 윤유점 시인 영예



사단법인 부산불교문인협회(이사장 차정연)가 12월 13일 부산 홍법사에서 '제28회 실상문학상 시상식'을 거행했다.〈사진〉 이날 시상식은 한 해 동안 이어온 문인들의 창작 성과를 돌아보고 불교문학의 발전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대상은 이석래·윤유점 시인이 수상했다. 우수상은 고순옥 시인, 작품상은 구본윤·박선옥·명은애·이경순·임정서·최선희·홍종원 시인이 이름을 올렸다. 부산불교문인협회의 발전에 기여한 조현호·최경화·최인숙·권철 시인은 공로상을 받았다.

윤유점 시인은 수상소감에서 "실상문학상이 오늘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스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 기쁘다"고 전했다. 이석래 시인은 "앞으로도 불교문화를 위해 더욱 정진하고 문학 발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혜총 스님, '제1회 종교평화상' 수상

종교 화합 · 평화 실천 공로



한국종교인연대 제1회 종교평화상 개인 부문에 혜총 스님(감로사 주지·전 조계종 포교원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국종교인연대(상임대표 김대선 교무)는 12월 18일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 프란시스홀에서 '제1회 종교평화상' 시상식을 열고 종교평화상 개인 부문 수상자인 혜총 스님에게 상패를 수여했다.〈사진〉 단체 부문은 크리스챤아카데미가 수상했다.

한국종교인연대는 지구촌 화합과 평화를 위해 애쓴 종교인들을 격려하고자 올해 처음 종교평화상을 제정했다.

혜총 스님은 종교 간 대화와 평화에 기여하고 불자 운동선수·북한 주민 지원 등을 통해 미래세대에 평화의식을 전하는 데 앞장서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혜총 스님은 "앞으로도 이웃을 배려하고, 몸과 마음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수행 정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송정인 수습기자

포교사단 부산지역단, 박종안 신임 단장 취임

12월 13일, 500여 명 참석
"미래 중심 전법으로 도약"


박종안 조계종 포교사단 부산지역단 제14대 단장이 회기를 흔들고 있다.

조계종 포교사단 부산지역단(단장 박종안)이 12월 13일 금정총림 범어사 선문화관 대강당에서 '2025년 전진대회 및 단장 이·취임식'을 봉행했다. 제14대 단장으로 선출된 박종안 포교사는 취임사를 통해 "소통과 미래 세대 중심 전법으로 새 도약"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포교부장 정무 스님, 범어사 주지 정오 스님, 부산지역단 지도법사 해공 스님, 반야선원 선원장 안도 스님을 비롯해 김영석 포교사단 단장, 송재린 제13대 포교사단 부산지역단장, 부산지역단 포교사와 불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신임 단장의 취임을 축하했다.

박종안 신임 단장은 취임사에서 소통과 협력의 조직 운영,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포교 방식,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전법, 포교사 역량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박 단장은 "모든 포교사와 함께 걷고, 함께 고민하며, 함께 성장하는 부산지역단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박 단장은 포교사의 정체성과 역할을 강조하며 "포교사는 봉사 인력이 아니라 수행과 실천을 겸비한 전법자"라며 "부산지역단이 지역사회 속에서 신뢰받는 전법 공동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포교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지역단은 지난 한 해 동안 35개 팀, 580여 명의 포교사가 활동하며 도심 포교와 환경 보호, 자비 나눔 등 생활 속 전법을 실천해 왔다. 이날 행사에서는 우수 포교사와 장기 근속 포교사에 대한 시상도 함께 진행됐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공창종합사회복지관, 사랑의 김장나누기

저소득 이웃 600세대에 전달



사회복지법인 공덕향(대표이사 정창효)이 운영하는 공창종합사회복지관(관장 박신자)이 12월 13일 지역 이웃을 위한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를 개최했다.〈사진〉 이날 개관기념식도 함께 열려 의미를 더했다.

이날 공덕향은 공창종합사회복지관에서 총 2000포기의 김장김치를 담가 지역 어르신과 저소득 가정에 전달했다. 복지관은 매년 600세대에 김장김치를 지원하고 있다. 행사에는 자원봉사자 140여 명이 참여해 배추 손질부터 양념 버무리기, 포장까지 전 과정에 힘을 보태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박신자 관장은 "매년 600세대에 김치를 나누고 있지만 늘 부족함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지역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인도 네팔 성지순례 10일
2월01일 출발~2월10일 도착
■ 일정: 인천-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영축산-나란다대학-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기원정사-아그라-델리-인천
▶ 동참금 : 320만원

인도 문화탐방 9일
인도의 주요 관광지만 가는 일정입니다.
2월11일 출발~2월19일 도착
■ 일정: 인천-델리-바라나시-카주라호(인도 최고의 조각상)-아그라-자이푸르-델리-인천
▶ 동참금 : 350만원

인도 히말라야 라다크 순례 8일
고색창연한 티베트 사원들과 천년벽화의 신비 알치곰파
그리고 유명한 헤미스사원 축제
6월21일 출발~6월28일 도착
■ 일정: 델리-라다크(레)-알치-라마유루-레-헤미스-판공호수-레-델리
▶ 동참금 : 369만원

중국 아미산,낙산대불,대족석굴 5일
보현보살의 도량 아미산과 낙산대불,
중국 4대석굴중에 하나인 대족석굴 순례
3월25일 출발~3월29일 도착
▶ 동참금 : 149만원

중국 문수보살의 성지 오대산 성지순례 5일
1,500년전에 조성된 운강석굴과
문수보살의 화현처 오대산 순례
6월07일 출발~6월11일 도착
▶ 동참금 : 159만원

중국 실크로드 성지순례 10일
삼장법사 현장스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최고의 순례 길
4월01일 출발~4월10일 도착
■ 일정: 인천-서안(진시황병마용갱,화청지)-법문사(부처님불지사리)-천수(맥적산석굴)-난주(병령사석굴)-장액(대불사)-칠채산(일곱빛깔 무지개산)-가욕관·돈황(막고굴,명사산)-유원-투루판-우루무치(천산천지)-인천
▶ 동참금 : 349만원

중국 구화산, 보타산 6일
지장보살의 도량 구화산과
관음보살의 도량 보타산 순례
3월21일 출발~3월26일 도착
▶ 동참금 : 169만원

백두산, 고구려유적 순례 5일
6월25일 출발~6월29일 도착
■ 일정: 인천-연길-백두산 천지(북파,서파 2곳 등정)-집안(고구려 옛수도-광개토대왕비)-심양-인천
▶ 동참금 : 159만원

우주의 중심- 티베트 수미산 순례 16일
부처님의 탄생과 같은 말띠 해인 2026년도는
12년 만에 찾아오는 성스러운 수미산 순례의 기회입니다.
6월16일 출발~7월01일 도착
▶ 동참금 : 570만원

티베트 순례 칭짱열차 8일
라싸-갼체-시가체-삼예-칭짱열차-서녕-서안 등
티베트 주요 성지순례 일정입니다.
6월06일 출발~6월13일 도착
▶ 동참금 : 문의

중국 운남성 성지순례 7일
아름다운 운남성의 곤명-대리-
여강(옥룡설산)-샹그릴라 성지순례
4월06일 출발~4월12일 도착
▶ 동참금 : 239만원

예약 · 상담 02)720-9600
마음여행 실크로드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8, 에스앤에스빌딩 901호
마음여행사 검색

“힘들 때 와라” 청년 포교는 이 말부터

지역 불교人 화엄사 빛고을포교원 주지 연성 스님

남부대 · 호남대 불교학생회 지도
청년들과 신뢰 쌓으며 친교 우선
불교 스며들도록 유도하며 전법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청년 포교의 중요성은 누구나 공감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이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지는 여전히 답을 찾기 어렵다.

광주에서도 불교세가 가장 약한 지역으로 꼽히는 광산구 하남동에 문을 연 화엄사 빛고을포교원은 이 질문에 대한 하나의 실천적 응답이다.

개원 4주년을 맞은 빛고을포교원을 이끌고 있는 주지 연성 스님은 “청년 포교는 기약 없는 투자지만, 그럼에도 반드시 해야 할 불교의 길”이라고 강조한다.

연성 스님은 오늘날 청년 포교를 ‘시기의 문제’로 바라본다. 스님은 “불교 교리는 ‘삶은 고통이다’라는 인식에서 출발하는데, 그 고통을 가장 처음으로 실감하는 시기가 바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중반”이라며 “입시와 진로, 사회 진출을 앞둔 이 시기에 불교가 삶을 해석하는 관점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와 달리 종교 활동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시대지만, 그렇기에 오히려 이 시기의 만남이 오래 가는 인연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광주 광산구에 있는 남부대·호남대 등의 불교학생회를 지도해 온 스님은 청년들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요소로 ‘친해지는 시간’을 꼽았다. 스님은 “요즘 청년들은 공짜로 무언가를 받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속마음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다”며 “처음부터 교리나 경전을 앞세우기보다 충분한 시간을 들여 신뢰를 쌓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법회와 만남을 이어가며 1~2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진짜 고민을 털어놓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스님의 경험이다.

연성 스님은 “지금은 좋은 말을 많이 해주기보다 ‘힘들 때 스님에게 와도 된다’는 메시지를 반복해서 전하는 시기”라며 “대화 속에서 불교의 사고방식이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거처럼 경전 공부 중심의 방식은 오히려 거리감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연성 스님은 빛고을포교원이 ‘대중의 곁으로 다가간 도량’이라고 설명한다. 화엄사가 오랜 시간 광주 포교당의 필요성을 고민해 온 끝에 문을 연 곳이다. 특히 터를 정할 당시 은사이자 화엄사 주지였던 덕문 스님은 “주변에 사찰이 없고, 젊은 사람들이 많은 동네여야 한다”는 기준을 세웠다고 한다. 스님은 “서로 신도를 빼앗는 구조가 아니라 불교가 처음 닿는 공간이 되길 바랐던 뜻”이라며 “이곳은 도심에서 조금 떨어져 있지만, 오히려 마음이 지친 이들이 조용히 부처님을 만나고 돌아가기에는 적당한 거리”라고 말했다.


화엄사 빛고을포교원 주지 연성 스님은 광주 남부대 · 호남대 불교동아리 지도법사를 맡아 지역 청년포교에 앞장서고 있다.

개원 후 4년을 돌아보며 연성 스님은 “인생에서 가장 빠르게 지나간 시간이자, 가장 많은 것을 배운 시간”이라고 회고했다.

첫 주지 소임을 맡아 숱한 슬럼프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그만큼 수행자로서 한 단계 성숙해졌다는 것이다. 다만 포교원 자체의 성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다고 솔직히 털어놨다. 스님은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마음이 남아 있고, 그 부족함을 채우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말했다.

앞으로의 포부에 대해 연성 스님은 ‘행동하는 불교’를 강조했다. 청년과 지역민이 함께 참여하는 봉사단을 꾸려, 사회 속에서 불교가 실천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것이다. 스님은 “여건이 쉽지는 않지만 청년 포교와 지역 포교가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어가고 싶다”며 “이 도량을 찾는 사람만큼은 웃으면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말했다.

호국불교 50년을 이어낸 “용인불교 상징 도량”

호국선봉사 창건 50주년 법회
12월 14일 김윤후 승장 추모도

호국불교 전통을 계승해 온 호국선봉사가 창건 50주년을 맞아 지난 반세기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새로운 도약을 발원했다.

용인 호국선봉사는 12월 14일 ‘창건 50주년 기념법회 및 김윤후 승장 추모다례재’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자광 대종사와 동도사 주지 도원 스님을 비롯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주성운 제3지상작전사령관, 이언주·이상식 국회의원, 정하용 경기도의원, 이교우 용인시의원, 최영철 용인문화원장, 현태주 용인불교신도회장 등 각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호국불교의 의미를 함께 되새겼다.


용인 호국선봉사는 12월 14일 ‘창건 50주년 기념법회 및 김윤후 승장 추모다례재’를 봉행했다. 사진은 기념촬영 모습.

김윤후 승장 추모다례재는 자광 스님과 호국선봉사 주지 정행 법사의 헌다와 이상일 시장을 비롯한 내빈 및 선봉사 신도단체장들의 헌화로 진행됐다.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 참석자들은 처인성 전투를 승리로 이끈 김윤후 스님의 호국정신을 기렸다.

이어진 창건 50주년 기념법회에서는 선봉사의 지난 50년과 미래 비전을 담은 영상이 상영됐다. 축사에 나선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이언주·이상식 국회의원, 최영철 용인문화원장은 호국선봉사가 군과 지역사회, 불교계를 잇는 중심 도량으로 수행해 온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자광 스님은 축하 법문을 통해 호국선봉사와의 인연을 회고하며 참석 대중에게 따뜻한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스님은 “세상에는 참 좋은 사람과 아주 좋은 사람, 그리고 좋은 사람이 있다. 참 좋은 사람은 부처님이고, 아주 좋은 사람은 보살님”이라며 “여러분은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 아주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할 분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봉사에서 맺은 인연은 모두 아주 좋은 인연이었고, 앞으로도 그런 인연이 계속 이어져 선봉사가 용인불교의 상징 도량으로 자리매길 하길 바란다”고 축원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발원문 낭독과 선봉사 어린이회의 꽃공양이 이어져 호국불교의 정신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또 주지 정행 법사는 자광 스님에게 기념 선물을, 주성운 제3지상작전사령관은 부대를 찾아준 자광 스님에게 기념패를 전해 훈훈함을 더했다.

홍승도 경기남부지사장

한마음선원 울산지원, 청소년 장학금 전달

천곡중·호계고에 각 300만원
20여 신행단체 송년 윷놀이도



한마음선원 울산지원(지원장 혜안 스님)이 지역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며 한 해를 따뜻하게 마무리했다.

울산지원은 12월 14일 대웅전에서 청소년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전달식 및 송년 윷놀이대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지원장 혜안 스님과 총무 혜자 스님, 재무 혜담 스님, 허정식 호계고등학교 교장, 김은미 천곡중학교 교무부장, 천주현 신도회장을 비롯한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이날 울산지원은 천곡중학교와 호계고등학교에 장학금 각 300만원을 전달했다.〈사진〉 장학금은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울산지원장 혜안 스님은 인사말에서 “학생들을 위한 소중한 장학금을 마련하게 된 데 큰스님과 십시일반 마음을 내 준 신도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청소년은 우리 사회의 근본이다. 청소년들에게 정성과 관심이라는 물을 계속 주어야 훗날 꽃을 피우고 가을에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 있다”며 “그 결실은 두부와 된장처럼 많은 이들에게 기쁨을 나누는 모습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윷놀이대회는 화합을 다지는 자리로 마련됐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한마음선원 통영지원, 교사직무연수 수련회

12월 13~14일 연수 수료생 대상
“교사 마음 회복 프로그램 지속”



한마음선원 통영지원(지원장 혜연 스님)은 12월 13~14일 교사직무연수 수료생을 대상으로 특별 수련회를 개최했다.

수련회는 대행 선사의 가르침인 ‘제 나무는 제 뿌리를 믿어야 푸르게 살 수 있다’를 주제로, 교사들이 일상과 교육 현장에서 흔들리기 쉬운 마음을 점검하고 자신의 근본인 ‘주인공’ 마음자리를 재확인하도록 돕는 실참 중심 수행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첫날에는 ‘수련회를 열며’ 시간을 통해 수행의 방향을 정한 뒤 울력으로 몸과 마음을 함께 쓰는 공생 실천 수행을 이어갔다. 이어 사경 수행에서는 대행 선사 법어집 구절을 한 획 한 획 마음을 모아 쓰고, 각자 느낀 변화와 원력을 나누는 대화의 시간이 마련됐다.

둘째 날에는 새벽 예불로 하루를 열고 해맞이 ‘선(禪)책’을 통해 걷는 수행으로 마음의 흐름을 살폈다. 또 ‘주인공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프로그램에서는 교사들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현실적인 질문을 수행의 관점에서 점검하고, 경험을 나눴다.

지원장 혜연 스님은 “교사들이 자신과 타인을 살피는 마음의 힘을 회복해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교사들을 위한 수행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익산 불교계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를”

12월 14일 익산불교신도聯 주최



익산불교신도연합회(회장 이후범)가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를 한마음으로 기원했다.

익산불교신도연합회는 12월 14일 익산불교사암연합회(회장 일행 스님)의 후원으로 익산 궁 웨딩홀 그랜드 홀에서 ‘익산불교인의 밤’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전북불교회관 회주 평상 스님, 금산사 주지 화평 스님, 태봉사 주지 영산 스님을 비롯한 지역 스님들과 김관영 전북도지사, 정헌율 익산시장, 김경진 익산시의장, 안수빈 포교사단 전북지역단장, 이원택 국회의원을 비롯한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2036 하계올림픽 전북개최를 위한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올림픽 유치를 기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여수 향일암, 자비나눔 김장 축제 성료

12월 9일 보문복지회 함께



추운 겨울, 사찰과 기업, 시민이 한마음으로 이웃을 향한 따뜻한 손길을 모아 김장김치를 나눴다.

여수 향일암과 사회복지법인 보문복지회(이사장 연규 스님, 향일암 주지)는 12월 9일 ‘2025 자비나눔 김장 축제’를 열고 지역 소외계층에게 사랑의 김장김치를 전달했다.

여수 하얀연꽃 앞마당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보문복지회 산하 20개 시설 종사자와 향일암 신도 등 150여 명의 봉사자가 참여해 김장김치 1250박스(총 1만2500kg, 약 5200만 원 상당)를 관내 독거어르신 및 사회복지시설에 후원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연규 스님은 “여수 시민 모두가 하나 되고 이웃이 이웃을 살피는 따뜻한 공동체의 힘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개심사지 오층석탑 국보 승격 축하”

예천불교총연합회 · 직지사, 송년법회 봉행



예천불교총연합회(회장 도문 스님)와 조계종 제8교구본사 직지사(주지 장명 스님)는 12월 13일 신도시 스텐포드호텔에서 ‘개심사지 오층석탑 극보승격 기념-을사년 송년법회 및 예천 불자의 밤’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개심사지 오층석탑’ 국보 승격을 사부대중이 함께 축하하고, 예천 불교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예천불교총연합회장 도문 스님과 직지사 주지 장명 스님, 예천불교사암연합회장 현종 스님, 직지사 회주 법성 대종사, 원로의원 법등 대종사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도문 스님은 “오층석탑의 국보 승격이 단지 문화유산의 승격에 그치지 않고, 지역 수행 공동체의 원력과 수행 정신이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내영 기자

양산 금천암, ‘수행도량’ 개원법회

성화 스님 “수행·기도도량으로”



양산 금천암(주지 성화 스님)이 3개월 간의 불사를 마무리하고 12월 13일 수행도량 개원법회를 봉행했다.

금천암 대웅전에서 열린 개원법회에는 주지 성화 스님을 비롯해 시드니정법사 무구 기후 대종사, 전 동화사 주지 성문 스님, 의성 대곡사 혜산 스님(조계종 중앙종회의원), 도솔암 원봉 스님, 구미 남화사 정화 스님과 김종길 신도회장, 김희철 남화사 신도회장, 김윤희 맑은소리 맑은나라 대표 등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주지 성화 스님은 “지난 10월 2일 주지 소임을 맡아 본격적으로 도량 정비를 진행해 왔다”며 “앞으로 참선과 기도, 경전 공부가 함께 어우러지는 열린 수행도량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동국대 생활풍수 총동문회, 송년회 개최

12월 14일 서울 프레스센터서



동국대 행정대학원 생활풍수CEO 과정 총동문회(이하 동풍 총동문회)가 12월 14일 서울 프레스센터 18층 서울클럽에서 ‘2025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송년회에는 동풍 총동문회 선·후배와 현장교수, 자문위원, 연구위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총동문회장 도심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날 풍수지리는 화장문화 확산 등으로 사회적 인식과 환경이 크게 변하고 있다.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연구와 노력을 통해 인테리어 풍수 등 생활 풍수로 확장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대행 선사 "생각 내면 법신" 의미는

대행선연구원 제25회 계절발표회 성료

오진영, 대행 선사 법신관 조명
'主人空'이란 법신 현실서 작동
"수행 궁극 지향점 일상서 구현"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한마음 주인공 관법'이라는 생활선 수행으로 중생 교화에 힘쓴 묘공당 대행 선사(1927~2012)의 사상을 집중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마음선원 부설 대행선연구원(원장 혜선 스님)은 12월 13일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에서 제25회 계절발표회를 개최했다.

김호귀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된 이번 계절발표회에서는 대행선연구원의 전문 연구원 2인이 주제 발표자로 참여해 대행 선사의 사상에 천착한 결과물들을 대중들에게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유식의 삼신불 사상과 대행 선사의 법신 사상'을 주제로 발표한 오진영 대행선연구원 연구원은 유식학의 삼신불 사상과 대행 선사 특유의 법신관을 비교·고찰했다.

오 연구원에 따르면 유식학은 팔식의 단계적 정화 과정에서 지혜가 순차적으로 획득되고 구경위에서 삼신(화신·보신·법신)이 동시에 구족되는 구조로 이해하고 있다. 반면, 현대불교의 현실적인 수행론을 설파했던 대행 선사는 이를 '주인공(主人空)'이라는 '공(空)'적 기반 위에서 깨친 자의 관점으로 근본적으로 재해석해 삼신은 이미 지금 구족된 상태로 현현하고 있음을 제시하는 데 주목했다.

특히 대행 선사는 '가만히 있으면 부처, 생각을 내면 법신, 움직이면 화신'이라는 명제로 삼신의 동시성을 강조해 왔다. 이는 "성불한 부처의 관점에서 구경위에 도달한 부처의 삼신이 한 찰나에 동시적으로 작동함을 보인 것"이라는 게 오 연구원의 설명이다.

오 연구원은 "유식학이 '어떻게 법신에 도달할 것인가'를 묻는다면 대행 선사는 '법신이 지금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를 보여 준다"며 "대행 선사는 깨친 자의 관점에서 일상의 매 순간이 이미 삼신의 완전한 현현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12월 13일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에서 열린 대행선연구원 제25회 계절발표회에서 발표자와 내외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오 연구원은 대행 선사의 현재적 법신관은 "수행의 궁극적 지향점을 일상 속에서 구현"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대행 선사의 법신관이 단순한 개인적 통찰이 아니라 불교 사상사의 여러 전통을 통합한 결과"라며 "이는 '주인공'이라는 대행 선사의 독창적 개념으로 통합돼 현대적으로 재구성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생각을 내면 법신'이라는 명제는 전통적인 법신 이해를 근본적으로 전환시켜 지금 우리의 행동 모두가 법신의 현현으로 재해석한 통찰"이라며 "생각 그 자체가 법신의 작용이라는 통찰은 일상의 모든 생각을 거룩하게 만들며 수행과 일상의 경계를 해체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원섭 대행선연구원 연구원은 '대행 선사의 불전(佛傳) 수용과 법수(法數)'를 통해 대행 선사가 부처님 일대기를 설명하는 동아시아 불교의 전통을 수용하는 양상을 살폈다.

한편, 대행선연구원 제25회 계절발표회는 '한마음선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법인 스님의 **문자반야**

㉓ 화안애어(和顔愛語)

다정한 얼굴이 세상의 답이다

"성 안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이요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불자들에게 두루 사랑받는 문수보살의 이 게송은 음미할수록 고요하고 깊은 울림을 전한다. 마음 씀은 얼굴과 언행으로 드러난다. 내면이 평화롭지 못하고 이런저런 속셈이 가득하면 얼굴빛과 말투가 맑을 수 없다. 불만이 잦고 분노가 감정을 지배하면 일상의 언행은 자연히 거칠어진다. 그러므로 내가 만나는 이의 얼굴에서 경직되거나 거만한 기운이 느껴질 때, 마음이 편안해지기 어렵다.

얼굴과 언행은 곧 자신을 가꾸는 수행이며, 이웃에게 기쁨과 평안을 건네는 보살행이다. 그렇다면 석가모니 부처님의 얼굴은 어떠했을까.



초기 경전에는 부처님을 '환하게 미소 짓는 분'으로 묘사한 구절이 자주 보인다. 삼매에 잠긴 고요한 얼굴, 제자들을 대할 때의 친절하고 자상한 얼굴, 고통 속의 중생을 향한 연민의 얼굴이 그것이다.

〈증일아함〉에는 '무재칠시'가 설해진다. 이는 재물 없이도 실천할 수 있는 일곱 가지 보시이다. 그중에는 이웃을 대할 때 부드럽고 자애로운 눈길을 건네는 안시(眼施), 온화하고 다정한 얼굴을 내미는 화안시(和顔施), 진실하고 위로가 되는 말로 힘을 북돋우는 언시(言施)가 있다. 보살의 실천 덕목인 사섭법에는 애어(愛語)가 있고, 팔정도에는 정어(正語)가 있다.

〈대지도론〉 또한 분별과 집착을 떠난 반야공성(般若空性)에 바탕하여, 재물에 기대지 않는 보시의 가치를 거듭 강조한다. 동아시아 유교 문화권에서 용모와 언행의 수양이 주로 도덕과 윤리에 초점을 둔다면, 불교는 내면의 수행과 자비의 보살행을 동시에 실천하는 관점을 지닌다. 이는 "세상의 평화를 원한다면 먼저 자신이 평화가 되라"는 가르침과도 맞닿아 있다. 내가 화안과 애어의 삶을 살아갈 때, 그 평화로운 기운은 자연스레 이웃에게 스며든다.

화안애어의 반대편에는 교언영색(巧言令色)이 있다. 공자는 교묘한 말과 꾸며 낸 얼굴을 경계했다. 겉과 속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화안애어는 연기적 관계 속에서 더욱 분명해진다. 내가 친구를 바라보는 동시에, 친구 또한 나를 바라보고 있다. 결국 '성 안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이며,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미묘한 향'임을 다시 확인하게 된다.

〈화순 불암사 주지〉

해외불교는 지금

"평화는 우리 내면에 있어요"

평화 위한 3700km 도보순례
10월 26일부터 20여 명 스님
텍사스에서 워싱턴 D.C.까지

약 20여 명의 스님들이 텍사스주 포트워스에서 워싱턴 D.C.까지 3700km를 걷는 도보순례 '평화를 위한 행진(Walk for Peace)'을 이어가고 있다. 스님들은 지난 12월 10일 미시시피주의 주도인 잭슨시를 통과하며 평화를 위한 집회를 가졌다. 스님들의 순례와 집회의 모습을 '미시시피 프리 프레스', '슈퍼톡 미시시피' 등 현지언론들이 특별보도했다.

지난 10월 26일 미국과 전 세계에 평화, 자비, 연민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도보순례를 시작한 스님들은 베트남계 테라와다 불교사찰인 후옹다오 위빠사나 바바나 센터의 스님들이다. 스님들은 이 순례를 '평화를 위한 행진'으로 이름 붙였으며 미시시피주는 워싱턴 D.C.에 도착하기 전 거쳐 가는 10개 주 중 하나다.

미시시피 주 의사당 앞에서 스님들을 기다린 공무원, 주민, 비영리단체 관계자들의 환영을 받은 스님들은 세계 평화와 자비를 위한 집회를 가졌다. 순례를 이끄는 판나카라 스님은 짧은 법문을 통해 평화와 자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스님은 "우리 순례단이 여러분 모두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수는 없다"라고 웃으면서 농담을 건넸다. 이어 "하지만 평화는 언제나 우리 내면에 함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라고 덧붙여 대중의 박수를 받았다.

집회 후 많은 시민들이 잭슨시를 통과하는 약 4km의 구간을 스님들과 함께 걸었다. 일일 도보순례에 참가한 지역사회운동가 매들린 코츠는 "걷는 동안과 후에 모든 시간이 나에겐 마음챙김 연습이었다"며 소감을 전했다. 그는 "사회운동을 하면서 현재 미국의 정치상황과 그것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빈곤 같은 문제가 매년 점점 더 악화되는 것 같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그렇지만 이곳 잭슨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사람들이 이런 평화와 자비, 연민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어 정말 기쁘다. 순례는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했다.

집회 주최 측은 "미시시피주 의사당에서 열린 평화집회는 성공적"이라면서 "평화를 위해 함께 걷고 연대하기 위해 모인 수많은 지지자들의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며 집회는 물론 함께 일일 순례를 해준 시민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특히 순례단의 잭슨 방문은 미시시피주가 미국 연방에 가입한 지 208주년이 되는 날에 이루어져 의미를 더했다. 잭슨시의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우연의 일치가 우리 주의 역사와 그 역사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는 다양한 공동체를 상기시켜 준다"고 밝혔다.

순례단은 이날 시 외곽의 공원에서 좌선을 하며 하룻밤을 보낸 후 워싱턴 D.C.를 향한 순례를 이어 나갔다. 순례단은 2026년 2월 13일경 워싱턴 D.C.에 도착할 예정이다.

박영빈 객원기자


미시시피주 의사당 앞에서 평화집회를 가진 순례단과 연대 시민들.

사진 출처=슈퍼톡 미시시피



세계적인 명상 스승과의 문답!
불교와 명상, 마음챙김으로 살아가기
현대 최고의 마음챙김 스승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반테 G.(애칭) 스님이 지난 반세기 동안 주고받은 다양한 대화를 간결하게 집대성하여 20개의 주제로 엮었다.
헤네폴라 구나라타나 지음, 박경미 옮김/신국판/384쪽/값 24,000원

법화경은 '수행'의 경전이다!
법화경 수행 연구
『법화경』을 '신앙의 경전'에서 '수행의 경전'으로 재해석한 최초의 체계적 연구서로, 초기불교부터 대승불교까지 연결되는 수행의 지도와 흐름을 보여준다.
현수 저/신국판/양장/444쪽/값 28,000원

연기를 보면 곧 진리를 본 것이다!
쫑카빠의 연기찬 주석
쫑카빠는 불교의 가장 기본 사상인 '연기'를 52개의 간략한 게송으로 보여주고, 여기에 짱캬 롤빼돌제가 주석을, 역주자가 알기 쉬운 설명을 붙였다.
쫑카빠 게송, 짱캬 롤빼돌제 주석, 정성준 옮김/신국판/316쪽/값 20,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불교, '문화 전성시대'를 열다

2025 불교 문화 결산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불교문화에 대해 이보다 관심이 높았던 적은 없었다. 불교 관련 굿즈들이 품절 사태를 맞고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유명 아이돌 멤버는 불서를 추천했다. 이처럼 불교 문화계는 어느 해보다도 뜨거웠다.

불교 엔터 · 굿즈…Z세대 사로잡다

불교문화에 대한 인기를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 사업이다.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유명 걸그룹 블랙핑크의 멤버 제니는 올해 1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신곡 'ZEN(젠)'을 발표했다. ZEN은 '선(禪)'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로 실제 'ZEN'의 가사와 뮤직비디오에는 '공(空)' '무아' '번뇌' '명상' '연꽃' 등 불교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제니는 지난해에도 불교의 진언(眞言)을 뜻하는 'Mantra(만트라)'를 발매해 주목받은 바 있다.

걸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은 지난 1월 유명 예능 프로그램 '유퀴즈 온 더 블록'에서 출연해 불서인 〈초역 부처의 말〉을 읽고 큰 위로를 받았다고 밝혀 화제가 됐다. 장원영은 "일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거나 부치는 순간이 분명히 온다. 그럴 때마다 이 책을 보면서 또 내일을 살아갈 힘을 얻는다"고 책을 추천했다.

인기 드라마에서도 불교는 중요한 소재로 사용된다. 올해 방영된 SBS금토드라마 '나의 완벽한 비서'에서는 직장상사의 과중한 업무 지시로 스트레스를 받는 인물이 혼자 〈반야심경〉으로 마음의 안정을 찾는 장면이 방송돼 눈길을 끌었다.

불교 굿즈는 Z세대들에게 '힙'함의 상징으로 자리잡은지 오래다. 지난 4월 열린 서울국제불교박람회에서도 각종 불교 굿즈들은 구매하기 위해 문전성시를 이뤘고 인기 상품들은 금방 동이 났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자체 캐릭터인 '반달이'의 스님 버전 '반달 스님' '반달 동자 스님'을 제작·출시했다. 출시 즉시 '반달 스님' '반달 동자 스님'은 현재 2차분까지 전부 완판된 상황으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불교문화는 서브컬쳐의 영역으로도 진출했다. 조계종 승적을 가진 진짜 스님이 버튜버(버츄얼 유튜버) '불법(佛法) 스님'으로 데뷔해 화제가 됐다. 네이버 스트리밍 플랫폼 '치지직'에서 활동하는 '불법 스님'은 데뷔 방송부터 4000여 명이 동시접속해 시청하는 등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다.

사찰음식, 국가무형유산이 되다

올해에는 불교무형유산이 국가 지정 유산으로 등재되는 경사도 이어졌다. 가장 주목받은 유산은 단연 '사찰음식'이다. 불교의 정신을 담아 사찰에서 전승해 온 음식인 '사찰음식'은 지난 5월 19일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됐다. 국가유산청은 "'사찰음식'은 불교 전래 이후 발전해오며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으며, '살아있는 것을 죽이지 않는다'는 불교의 불살생 원칙과 생명 존중의 철학적 가치를 음식으로 구현해 고유한 음식문화를 형성했다"고 지정의 이유를 전했다.

국가무형유산이 된 사찰음식을 대중에게 소개하는 '사찰음식 대축제'가 6월 7~8일 개최돼 눈길을 끌었다. 사전등록자만 1만 5000여 명이 넘었고, 이 중 20·30대가 56%를 넘는 등 Z세대들의 사찰음식에 대한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8월 19일 열린 사찰음식 국제학술심포지엄에서는 세계음식학 석학들과 세프 등이 참여해 사찰음식이 기후위기 시대를 넘는 지속가능한 식문화임을 강조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사찰음식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할 계획이다.



지난 4월 3일부터 6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서울국제불교박람회에서 청년들이 목탁을 직접 쳐보고 있다. 사진=서울국제불교박람회



서울 진관사의 사찰음식. 사찰음식은 올해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됐으며, 향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도 추진된다. 사진=한국불교문화사업단

불교의례도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무형유산이 됐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7월 서울 강남 봉은사에서 설행되는 생전예수재를 국가무형유산 신규 종목으로 지정하고 (사)생전예수재보존회(대표 원명 스님)를 보유단체로 인정했다. '봉은사 생전예수재'는 〈동국세시기〉에 19세기 중반 윤달의 대표적인 풍습으로 언급되는 등 역사성, 학술성, 대표성이 확인돼 국가무형유산으로 최종 지정됐다.

태고종에서는 영산재 등 불교전통의식의 작법과 이운에 필수적 악기인 태평소(太平簫)의 체계적 교육과 전승을 위한 보존회가 출범됐다. 태고종(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12월 3일 서울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1층 회의실에서 '벽응 스님계 재(齋) 태평소 보존회'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보존·전승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었다.

불교 대형 전시 · 공연 '눈길'

불교 관련 대형 전시들도 눈길을 끌었다. 대표적인 것이 제14회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에서 진행된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 선예전 '명명백백'이다. 서예, 민화, 도자 등 다양한 장르에서 독창적 작품세계를 보여온 성파 스님의 예술세계를 확인할 수 있었던 전시에서 스님은 전시 공간 전체를 폭 3m, 길이 100m에 이르는 순백의 한지 한 점으로 감싸는 작품 '명명백백', 칠흑 같은 옻칠 속에 자개가루 은은히 반짝이며 밤하늘의 별빛과 이를 담아내는 우주를 연상시키는 '별들의 향연' 등을 선보였다. 전시 기간 중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가 성파 스님과 함께 전시회장을 찾아 화제가 됐다.

불교 관련 뮤지컬이 제작·상연된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는 2월 28일부터 3월 2일까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다큐뮤지컬 '비구니 스님들의 독립운동 이야기(비·스·독)'을 공연했다. '비·스·독'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기념관 겨레의집 특설무대에서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공연이 이뤄졌다.

상월결사는 전국을 순회하며 문화공연법회 '잠시멈춤(PAUSE)'을 개최해 문화포교의 새 장을 열었다. 문화공연법회 '잠시멈춤'은 비보잉, 뮤지컬, 미디어 아트 등을 통해 불교의 가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공연이다.

이밖에도 광복 80주년과 만해 한용운 스님 열반 81주기를 맞아 성북구 심우장에서 창작뮤지컬 '심우'가 상연되며 만해 스님을 추모했다. 극단 야성이 뮤지컬 '사명 대사' 갈라쇼를 구미 대둔사에서 공연했으며 진관사는 '백초월 스님의 조국과 태극기 사랑'을 주제로 한 여성소리국극을 '백초월길 예술축제 진관아리랑'에서 선보이기도 했다.

불교유산 보존과학 인프라 구축

올해 3월 5일에는 양평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이하 보존센터)가 문을 열었다. 조계종의 핵심사업 중 하나인 보존센터는 2013년 4월 사업계획이 수립된 이후, 2017년부터 본격적인 건립을 시작했다. 2022년 착공해 2023년 상량식을 거쳐 2024년 12월 준공을 완료했다. 총 사업비 195억원이 투입된 보존센터 건립은 국가유산청의 지원을 비롯해 경기도청과 양평군청 등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국가유산의 보존관리에 더욱 나은 환경에서 갖추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한국불교만의 독특한 불화인 '괘불'을 보존처리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보존·연구시설이어서 향후 전문 연구기관으로 발전이 기대된다.

이밖에도 도난 후 35년만에 제자리로 돌아온 예천 보문사 신중도를 시작으로 금산 보석사 신중도, 당진 영탑사 신중도, 대구 달성 용연사의 영산회상도와 삼장보살도, 신흥사 시왕도 등이 환지본처되기도 했다.

불교문화유산 복원·기록 성과, 한자리서 만나다

불교문화유산연구소 전시회 2제
양평 문화유산보존센터서 개막
실물콘텐츠 제작 등 결과물 선봬
'傳–유산, 잇다'…영인·모사 전시



양평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 지하 1층에서 진행되는 '전(傳)–유산, 잇다'에서 선보이는 진주 청곡사 영산회 괘불탱의 초 모사본.

문화유산은 영원하지 않다. 자연재해로 멸실되기도 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손상이 깊어져 원형을 잃어버리기도 한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보존과학기술이다. 문화유산이 최대한 덜 손상되도록 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원형을 기록해 놓아 멸실을 대비하는 것이다.

양평에 건립된 조계종 불교문화유산연구소(소장 혜공 스님)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이하 보존센터)는 전적, 불교회화 등을 전문적으로 보존처리하는 전문 연구기관이다. 보존센터는 올해 '동산문화유산 실물콘텐츠 제작 사업'과 '한국의 불교회화 보존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했다.

'동산문화유산 실물콘텐츠 제작 사업'은 민간소장 국가지정 동산문화유산의 효율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해 전적·회화류의 영인·모사본을 제작하는 사업이다.

'한국의 불교회화 보존처리 지원 사업'은 복권기금과 국가유산청의 지원을 받아 진행한 공익 사업으로, 불교회화의 보존수명 연장과 원형 복원, 가치 제고 등에 목적이 있다.

올 한 해 이뤄진 일련의 보존처리 및 기록화 사업의 결과물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시가 보존센터에서 열린다.

보존센터 지하 1층 다목적전시실에서 열리는 '전(傳)-유산, 잇다'에서는 '동산문화유산 실물콘텐츠 제작 사업'의 결과물들이 선보인다. 특히 눈길이 가는 것은 '진주 청곡사 영산회 괘불탱'(국보)으로 보존센터는 괘불탱의 초(草, 불화의 밑그림)를 모사한 것을 이번 전시를 통해 대중에게 선보인다. 10m에 달하는 대형불화의 초를 눈앞에서 볼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은 만큼 불화에 관심 있는 이라면 찾아가 볼만하다.

12월 19일 1층 일반전시실에서 열린 '손 끝의 공덕' 전시는 '한국의 불교회화 보존처리 지원사업'의 결과물들을 처음 선보이는 자리였다. 보존처리를 통해 새로운 생명을 얻은 '완주 대원사 진묵대사 진영', '영광 불갑사 일명 진영' 등을 비롯한 15점의 고승 진영들이 대중에 소개됐다.

한편, '傳-유산, 잇다'는 내년 1월 9일까지 진행된다.

신중일 기자

왜곡된 '무오 법정사 항일운동' 바로잡기 나선다

봉려관불교문화연구원 학술세미나
'근대 제주불교사 진실을 찾다' V
내년 1월 10일 제주교육박물관서

왜곡된 근대 제주불교 역사를 바로잡고 진실을 조명하기 위한 학술세미나가 열린다.

사단법인 봉려관불교문화연구원(원장 혜달 스님)은 2026년 1월 10일 제주교육박물관에서 '근대 제주불교 역사 그 진실을 찾다' V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근대 제주불교사에 대한 왜곡을 바로 잡기 위해 시작된 봉려관불교문화연구원의 노력은 지난 2019년 '제주의 여성리더 봉려관, 항일의 꽃을 피우다'를 주제로 개최된 국제심포지엄을 시작으로 2021년부터는 '근대 제주불교역사 그 진실을 찾다' 시리즈로 이어져 올해로 5회째를 맞았다. 이번 학술세미나에서는 '무오 법정사 항일항쟁 운동'의 왜곡상을 고찰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연구 논문이 발표돼 눈길을 끈다.

봉려관불교문화연구원장 혜달 스님은 '무오 법정사 항일항쟁 운동의 왜곡상 고찰-김석윤 배후설을 반박하며'를 통해 법정사 항일운동의 김석윤 배후설의 진위를 밝히고 운동 참여자 숫자에 대한 왜곡도 지적한다. 특히 법정사 항일운동 관련 서술에서 나타나는 여러 오류가 한 연구자의 논저에서 비롯돼 무비판적으로 재인용되며 확대되고 있음을 비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성수 불교신문 기자(동국대 겸임교수)는 '근대 제주불교와 만암·묵담 스님의 역할'을 통해 근대 제주불교의 부흥 과정에서 만암 스님과 묵담 스님이 수행한 역할을 규명하고, 일제강점기 육지 사찰의 제주 포교 활동이 제주불교 발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제주불교의 연구현황과 과제-제주 관음사, 법정사 창건을 중심으로'를 발표하는 이석환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연구교수는 근대제주불교 중흥과 관련된 주요 연구주제인 관음사와 법정사에 관련한 연구를 조망할 예정이다.

신중일 기자

동국대-월정사, 불교한글유산 플랫폼 구축

12월 15일 MOU 체결식 개최
상원사중창권선문 등 한글유산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추진키로



상원사중창권선문 등 불교한글문화유산이 디지털 아카이브 플랫폼으로 재탄생한다.

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주지 정념 스님)와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소장 김일환)는 12월 15일 월정사 화엄루에서 'K불교 세계화 3D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상원사중창권선문, 월인석보 등 월정사 및 소속 말사 불교한글문화유산의 자료 조사 및 정밀 실물 촬영 △오대산 월정사 관련 불교한글문화유산 지식정보 수집 및 시맨틱 콘텐츠 집적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사업 관련 상호 협조 등을 추진한다. 주지 정념 스님은 "월정사가 소장한 불교한글문화유산과 관련 지식정보를 활용하기 쉽게 구축하는 데 의미가 크다"면서 "월정사의 성보들이 국내외 많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중일 기자

태고불교문화학회 출범…회장 김방룡 교수

12월 13일 충남대 문원강당서
'태고선 사상' 주제 학술대회도



태고 보우(太古普愚, 1301~1383) 국사의 사상과 가르침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학회가 출범했다.

태고불교문화학회는 12월 13일 충남대 문원강당에서 출범식 및 제1회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정방사·열린선원·용월사·향림사·혜광사·용운사·천련사 등 태고종 소속 사찰 및 스님들의 후원과 불교학계 연구자들이 합심해 출범한 태고불교문화학회는 초대 회장으로 김방룡 충남대 철학과 교수를 추대했다. 학회 총무이사로는 법우 스님(용월사), 편집위원장으로 원영상 원광대 교수, 감사로는 김탁(한국학중앙연구원), 심일 스님(태고종 초심위원)이 임명됐다.

김방룡 학회장은 취임인사를 통해 "여러 스님들과 학자들의 귀한 원력이 모여 출범하는 학회인 만큼 그 씨앗이 튼실하게 자리 잡고 자라나서 만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한국이라는 문화적 현장 속에서 향유되어온 불교의 사상과 신앙, 문화에 대한 학술적 정립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2/17~12/23

불교전문서점

조계종출판사 불교전문서점 향전 제공 02)2031-207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나도 내 마음을 모를 때 불교심리학	보만	불광출판사
2	마음을 다스리는 금강경 백팔배	성범	구봉
3	샨띠데바의 입보리행론	청전옮김	담앤북스
4	선문염송 요칙	문광 집요역해	올리브그린
5	스무살 반야심경에 미치다	김용옥	통나무
6	윤회와 해탈	이중표	불광출판사
7	홀연히 깨어나는 신심명	원제	불광출판사
8	고등학생을 위한 금강경	김형중	운주사
9	깨달음으로 이끄는 대장경 속 한마디	김형중,허회태	운주사
10	깨어나는 삶 화엄의 길	관응문도회	불교시대사

불서총판 운주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수행초탈인가 치유인가	박찬욱 기획/한자경 편집	운주사
2	법정스님이 세상에 남긴 맑고향기로운 이야기	법정/김계윤 그림	불교신문사
3	성자와 범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	김원수 지음	바른법연구원
4	이제서야 이해되는 반야심경	원영	불광출판사
5	이제서야 이해되는 금강경	원영 스님	불광출판사
6	요가디피카	아행가/현천 역	선요가
7	한마음 요전	대행스님	한마음선원
8	불교 이후	스티븐 배철러/강병화	운주사
9	인생과 싸우지 않는 지혜	곽철환 지음	불광출판사
10	붓다의가르침	월폴라 라훌라/이형두	맑은소리맑은나라

삶의 완성으로 가는 '흐름의 기술'



어른이 되는 흐름의 기술
마가 스님 지음
불광출판사 / 2만원

마가 스님, 40년 수행 담은 방법론
분노·두려움은 흘려보낼 '손님'
고통 생멸, 있는 그대로 바라보길
"어른은 마음 방향 잃지 않는 사람"



마가 스님은 12월 16일 서울 인사동에서 열린 출판간담회에서 "책에 힘든 감정을 흘려보내고 마음의 주인으로 사는 법을 담고자 했다"고 밝혔다. 스님 왼쪽의 족자 '통류(通流)'는 무비 스님이 직접 쓴 추천사다.

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마음에 여유가 없어 주변 사람과 가족을 소홀히 대하고 있어요." "상실과 공허를 견디기 힘들어요." "멀어진 인연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오늘을 사는 이들의 고백은 조금씩 닮아 있다. 감당하기 어려운 감정과 얽힌 관계 앞에서 사람들은 흔히 '버티는 법'이나 '견디는 요령'을 찾는다. 하지만 잘 이겨 내는 듯했던 삶은 다시 위태로워지기를 반복한다.

수행자이자 상담가로 40년을 살아온 마가 스님은 고통을 견디거나 제거해야 할 장애물로 보지 않는다. 대신 그것을 '흐름이 막힌 상태'로 진단하고,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무상(無常)과 연기(緣起)의 지혜를 통해 다시 흐르게 하는 길을 제시한다. "없애려 애쓰지 않고, 흐르게 하는 법을 배울 때 비로소 삶은 완성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무상을 '사라짐'이나 '상실'의 언어로 이해한다. 그러나 스님에게 무상은 정체된 삶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다. 집착하고 움켜쥔 마음을 놓을 때, 삶은 비로소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이다. 책은 상처, 분노, 갈등, 비움, 감사라는 삶의 여러 국면을 '흐름'이라는 하나의 원리로 꿰어 낸다. 고통을 밀어내는 대신, 그 고통이 생겨나고 머물다 사라지는 전 과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한다.

그 과정에서 독자는 과거의 상처에 머물지 않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불안을 앞당겨 살지 않으며, 지금 이 순간 마음이 쉴 자리를 발견하게 된다. 스님이 말하는 '어른'이란 강한 사람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잃지 않은 채 흘러가도록 허용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책은 독자를 가르치려 하거나 섣부른 해답을 내놓지 않는다. 대신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알아차리고, 왜 막혔는지 발견하도록 돕는다.

책 곳곳에는 수행자의 언어가 일상의 말로 옮겨져 있다. "인생은 겸손에 대한 오랜 수업이다." "누군가를 손가락질할 때, 검지와 엄지를 제외한 나머지 세 손가락은 자신을 가리킨다."

고전의 문장을 오늘의 삶과 연결하고, 수천 년을 관통해 온 마음의 구조를 현대적 언어로 풀어내는 대목에서 수행자의 내공이 드러난다.

각 장 말미에 실린 '오늘의 명상'과 부록의 '참회·감사·사랑 일기', '108 마음약방+미고사 세트'는 독자를 일상의 수행으로 이끈다. 몸이 아프면 약을 찾듯, 마음이 아플 때 스스로 꺼낼 쓸 수 있는 약방문을 마련해 둔 셈이다.

마가 스님은 특히 청년 세대가 연애와 결혼, 직장을 포기한 채 무력감에 머무는 현실을 보며 자신의 삶이 작은 메시지가 될 수 있을 것이란 마음에 책을 쓰게 됐다고 말한다. 때문에 책에는 안양교도소 명상법회, 자비나눔 공양, 무료급식 등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길'을 실천적으로 보여 주는 스님의 삶이 그대로 녹아 있다.

마가 스님은 "자비명상을 통해 부족함과 실수, 상처까지도 나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다"며 "나를 용서하고, 타인을 용서하고, 삶의 모든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는 수행을 넘어 삶의 방식이 됐다"고 말한다.

우리 시대의 대강백 무비 스님은 이 책에 '도시통류(道是通流)'란 추천사를 남겼다.

"육조 혜능 스님은 진리니, 삶이니, 길이니 하는 것을 툭 터져 흐르는 것이라고 했다. … 출가 40년의 지혜가 담긴 이 책은 툭 터져 흘러들지 않는 곳이 없는, 행복한 인생을 보는 안목을 열어 줄 것이다."

마가 스님이 전하는 삶의 기술은 단순하다.

"그래도 괜찮아. 이만해서 다행이야. 그럴 수도 있지."

큰스님과의 인연, 생활불교로 이어지다



세월의 강물, 법향으로 흐르다 1·2
대원성 이정옥 지음
담앤북스
각 권 1만6800원

대원성 보살 '법연' 산문집
태도로 남은 큰스님 가르침
가정에서 이어진 수행의 길
생활불교로 회향된 삶의 여정



대원성 이정옥 보살은 12월 17일 부산 대광명사에서 열린 출판간담회에서 큰스님들과의 인연과 그 가르침이 생활불교로 이어진 과정을 이야기했다. 대광명사 주지 목종 스님과 대원성 보살이 일타 스님의 친필 '정심(靜心)'을 들어 보이고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hasm77@hanmail.net

법연(法緣)으로 맺어진 만남은 삶을 바꾸는 힘이 됐다.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만난 인연은 보석처럼 마음에 남았고, 생활 속 실천으로 이어졌다. 대원성 이정옥 보살의 산문집 〈세월의 강물, 법향으로 흐르다〉(전 2권)는 법연과 신심이 삶으로 회향된 기록이다.

1권에는 청담·경봉·고암·성철·일타·법정·운허·혜인 스님 등 36명 선지식과의 인연을 담았다. 스님들의 말투와 태도, 삶의 결을 보여 주는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구성돼 친숙하게 읽힌다. 저자가 직접 촬영해 간직해 온 사진과 친필 서신, 붓글씨가 함께 실려 기록의 생동감을 더했다.

특히 일타 스님과의 만남은 깊은 울림으로 전해진다. 보살은 자신의 미숙함 앞에서도 먼저 감싸 주던 스님의 모습을 회고하며 "스님은 늘 말이 아니라 태도로 가르쳐 주셨다. 지금도 사람을 대할 때마다 그 모습을 기준 삼아 나 자신을 돌아본다"고 했다.

고암 스님과의 인연도 전했다. 자신의 불명과 자녀 이름까지 지어주며 가족의 삶을 보듬었던 인연이다. 약속에 늦었을 때도 기다려 주던 모습, 물질보다 마음을 먼저 보라는 가르침은 삶의 기준으로 남아 있다. 또 경봉 스님의 화두, 법정 스님의 생활 수행에 대한 조언 등은 한 재가불자가 불교를 삶으로 체득해 온 과정을 보여 준다. 저자는 "큰스님들께서 남기고 가신 말씀과 태도는 여전히 나를 돌아보게 한다"고 말했다.

12월 17일 대광명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자리에는 목종 스님이 참석해 저자와의 인연을 소개했다. 목종 스님은 "전법에 대한 신심과 원력, 큰 스님들과의 일화를 통해 많은 가르침을 받았다"며 "항상 존경하는 도반이자 스승 같은 존재"라고 말했다. 이어 "뵐 때마다 오히려 내가 더 충전되고 동기부여를 받는다"며 "불교와 전법의 길에서 매우 귀중한 인연"이라고 덧붙였다.

2권에는 스님들의 가르침을 가정과 일상에서 실천해 온 생활불교의 여정을 담았다. 저자는 결혼 후 연년생 네 자녀를 키우면서도 수행의 끈을 놓지 않았다. 아이들이 잠든 밤마다 108배와 기도를 올리며, 이웃과 주변 사람들을 위한 발원을 이어 갔다.

그는 "돈이 없는 집에는 형편이 나아지기를, 아픈 집에는 병이 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했다"며 "기도가 끝나면 사람들을 불러 밥을 나누고 부처님 이야기를 했다"고 회상했다. 이러한 작은 실천은 자연스럽게 전법으로 이어졌다.

가정은 곧 수행의 공간이었다. 단칸방 시절부터 집 안에 작은 불단을 모시고 매일 108배와 사경을 이어 왔고,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는 꾸중 대신 108배를 함께 했다. 그는 "108배를 하고 나면 마음이 먼저 풀어진다"며 "그 과정 자체가 훈육이자 수행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경전을 사경해 책으로 엮고, 이를 전국 사찰과 기도처에 보시해 왔다. 한글 사경본이 드물던 시절, 경전을 생활의 언어로 풀어낸 이 기록은 불교를 처음 접하는 이들에게도 자연스럽게 다가갔다. 사경은 가족 수행으로도 이어졌다. 남편과 자녀, 손주들까지 사경을 하고 있고, 명절에는 손주들에게 경전 사경을 권해 불교의 가르침을 자연스럽게 전하고 있다.

저자인 이정옥 보살은 1977년 부산 신행단체 '연꽃모임'을 창립해 40여 년간 회장 등 소임을 맡았고, 부산불교신도회 부회장을 16년간 역임했다. 보현봉사회, 소림청심장학회, 내생장학회, 군법당후원회, 공림공양회 등 여러 불교단체를 조직·운영하며 지역 불교 포교와 봉사 활동에 헌신해 왔다.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부산불교포교대상(1988), 홍법대상(1994), 제30회 조계종 포교대상(2018) 등을 수상했다. 저서로는 〈바라밀 일기〉, 〈누가 허공을 비었다 했는가〉가 있다.



마가 지음
352쪽 | 20,000원

모든 것은 흐른다,
물처럼 바람처럼

묶인 감정, 꼬인 인연, 멈춘 마음을 푸는 '흐름의 지혜'

출가 40년,
'힐링 멘토의 원조' 마가 스님의 진정한 인생 수업
삶의 완성으로 가는 '어른의 조용한 행복'을 발견하다!

"도시통류(道是通流). 육조혜능 스님은 진리니, 삶이니, 길이니 하는 것을 툭 터져 흐르는 것이라고 했다. 한순간도 걸림이 없어 툭 터져 있어야 행복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이다. 출가 40년의 지혜가 담긴 이 책은 툭 터져 흘러들지 않는 곳이 없는, 행복한 인생을 보는 안목을 열어 줄 것이다."
_ '우리 시대의 가장 존경받는 대강백' 여천무비 스님의 추천사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



자비실천으로 생명 나누며 일상을 바꾸다

생명나눔, 새로운 시작

12. 2025년 생명나눔 활동 총결산

장기기증 희망등록 6100명
조혈모세포는 2200명 동참
환자치료비 1억원 지원해
일면 스님 "자비 현장 응답"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불교계 유일의 장기기증 희망등록 단체인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스님)는 2025년 한 해 동안 '생명 존중'과 '자비 실천'을 기치로 국내외를 아우르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불교적 사회참여의 지평을 넓혔다. 장기·조직기증 희망등록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캠페인과 더불어, 중증·희귀질환 환자 치료비 지원, 해외 의료물품 전달·구호 활동까지 이어진 생명나눔실천본부의 행보는 '나눔은 말이 아니라 실천'이라는 불교계의 오래된 명제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2025년은 생명나눔실천본부가 장기기증 운동의 고유 영역을 지키는 동시에 생명 존중과 자비 실천의 종합 플랫폼으로 도약했다. 환자 개개인의 삶을 직접 살피는 치료비 지원과 해외구호 활동을 한층 강화한 해였으며 생명을 잇는 제도적 운동과 생명을 살리는 현장 지원을 동시에 수행하며 불교적 자비가 어떻게 사회적 언어로 구현될 수 있는지를 보여 준 한 해였다.

흔들림 없이 이어 온 희망등록 캠페인

생명나눔실천본부의 근간은 단연 장기·조혈모 기증 희망등록 캠페인에 있다. 올해에도 전국 사찰과 불교 행사 현장을 중심으로 희망등록 캠페인을 이어 가며 생명나눔의 가치를 꾸준히 확산시켰다. 수계법회, 법회 현장, 불교박람회, 연등행렬 등 신행의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장기기증의 의미를 알리는 방식은 생명나눔실천본부가 오랜 기간 축적해 온 강점으로 꼽힌다.

올 한 해 장기기증 희망등록자는 장기 3200여 명, 조직 2900여 명에 달한다. 70여 차례 진행한 캠페인에서 거둔 성과다. 조혈모 희망등록의 경우 올해 45차례 진행된 캠페인에서 2200여 명을 동참시켰다.

2025년 한 해 동안 진행된 희망등록 캠페인은 단발성 홍보를 지양하고 장기기증 이후의 의미와 유가족에 대한 존중까지 함께 설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이를 통해 '등록 숫자' 중심의 성과를 넘어, 생명나눔에 대한 인식의 깊이를 더하는 데 주력했다.

치료비 지원 1억원…생명나눔의 얼굴

2025년 활동 가운데 특히 주목받은 분야는 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이다.

중증 질환을 앓는 아동,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환자, 갑작스러운 사고로 생계와 치료를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이웃들이 주요 지원 대상이었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 환자와 가족의 상황을 세심하게 살피며 치료 과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원을 이어 갔다. 올 한해 환자 치료비 지원 금액은 1억원에 달한다.

특히 치료비 지원 사례를 단순한 미담으로 소비하지 않고 질병과 가난이 맞물린 사회 구조적 문제까지 함께 조명하려고 노력했다. 치료비 전달과 함께 환자 가족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생명 존중과 사회적 연대의 필요성을 불교계 안팎에 꾸준히 알렸다.

국경을 넘어 이어진 생명 연대

생명나눔실천본부의 2025년 활동은 국내에 머물지 않았다.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해외 지역을 대상으로 한 구호·의료물품 지원 활동 역시 한층 확대됐다. 아시아 불교국가를 중심으로 기본적인 의료 접근조차 어려운 이웃들에게 생명나눔의 손길을 전한 것이다.

현대불교신문과 연중 공동캠페인으로 진행된 해외구호 활동은 단기적 물자 지원을 넘어, 현지 상황에 맞는 의료 지원과 생필품 전달, 그리고 지속 가능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6월 9~14일에는 캄보디아 시엠립을 직접 찾았다. 불교계 국제구호 네트워크와의 협력을 통해 중복 지원을 피하고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자원이 전달되도록 힘썼다.

일면 스님은 해외구호와 관련해 "부처님 가르침에는 국경이 없다"며 "고통받는 생명이 있는 곳이 곧 수행의 도량"이라고 강조해 왔다. 생명나눔실천본부의 해외 활동이 단편적인 구호를 넘어 불교적 세계관에 기반한 연대 실천임을 분명히 했다.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연대 · 교육

이밖에도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연대 활동과 교육에도 힘을 쏟았다. 학교, 군부대,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강연과 캠페인을 통해 장기기증과 생명나눔의 의미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데 주력했다.

특히 생명나눔 자살예방동아리 따숨 활동가들과 자발예방 캠페인을 꾸준히 진행하며 사회적 공감을 이끌어 내기 위해 힘썼다. 이는 사회 전체의 생명윤리 담론으로 확장하려는 시도로 평가받는다.

"숫자보단 생명 하나하나를 바라봅니다"

이사장 일면 스님은 2025년을 돌아보며 "성과를 숫자로만 평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장기기증 희망등록자 한 명, 치료비를 받은 환자 한 사람, 해외에서 도움을 받은 아이 한 명, 그 각각이 모두 하나의 우주와 같은 생명"이라며 "생명나눔실천본부는 그 생명 하나하나를 소중히 바라보는 공동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장기기증이란 본래 사명을 굳건히 지키면서 사회가 요청하는 새로운 자비 현장에도 응답할 것"이라며 "불교계 유일이란 수식어에 안주하지 않고 가장 책임감 있게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단체가 되겠다"고 말했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2026년을 향해 장기기증 인식 개선의 저변을 넓히는 동시에, 치료비 지원과 해외구호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2025년 송년사 이사장 일면 스님

생명을 살리는 약속, 더 단단히 이어 가겠습니다

2025년 우리 사회는 많은 아픔과 과제를 안고 있었고 그만큼 생명을 향한 관심과 연대가 절실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생명나눔실천본부는 흔들림 없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2025년에도 불교계 유일의 장기기증 희망등록 단체라는 책무를 가슴에 새기며 생명나눔 운동을 이어 왔습니다. 사찰과 법회 현장, 불교 행사 곳곳에서 장기기증은 죽음을 준비하는 일이 아니라 생명을 향한 가장 큰 보시이자 수행임을 꾸준히 전해 왔습니다.

올해 우리는 숫자보다 사람을 먼저 바라보고자 했습니다. 그 마음은 환자 치료비 지원 활동으로 더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치료를 포기할 위기에 놓인 환자들에 대한 지원은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병상 곁의 작은 도움이 다시 삶을 이어 갈 힘이 되는 모습을 보며 자비 실천은 언제나 지금, 이 자리에서 필요하다는 사실을 깊이 새기게 됐습니다. 장기기증이 미래의 생명을 살리는 약속이라면 치료비 지원은 지금 이 순간의 생명을 붙드는 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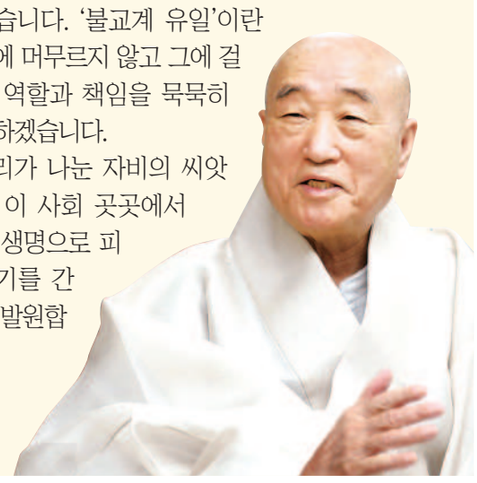
해외구호 활동 역시 의미 있는 발걸음을 이어 갔습니다. 열악한 의료 환경에서 기본 치료조차 받기 어려운 이웃들을 만나며 부처님 가르침에는 국경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묵묵히 후원해 주신 불자 여러분, 현장에서 애써 주신 자원봉사자와 의료진, 생명존중의 뜻에 공감해 주신 많은 분들의 신뢰와 연대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 믿음에 부응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책임임을 늘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자비를 실천하는 공동체입니다. 성과를 드러내기보다 고통의 자리에 먼저 서는 것을 선택해 왔고 그 선택이 쌓여 오늘의 생명나눔실천본부를 만들었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에도 우리는 본래의 사명을 더욱 분명히 하겠습니다. 장기기증 희망등록 운동은 더욱 책임 있게 이어 가고 환자 치료비 지원과 해외구호 활동은 지속성과 전문성을 갖춰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불교계 유일'이란 이름에 머무르지 않고 그에 걸맞은 역할과 책임을 묵묵히 수행하겠습니다.

우리가 나눈 자비의 씨앗들이 이 사회 곳곳에서 다시 생명으로 피어나기를 간절히 발원합니다.





잠시 내려놓은 커피 한 잔
그 따뜻함을 하윤이에게 전해주세요

ARS 후원 060-703-1133
• 전 화 1 통 화 에 5 천 원 후 원 •

태어난지 두달 무렵
몸에 힘이 빠지고 움직이지 못해 병원을 찾은 하윤이는
근육이 점점 위축되어 대부분 두돌을 넘기지 못하는 희귀질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부모님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억원에 달하는 치료비에
하윤이의 치료는 잠시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환자 정기 CMS 후원 신청 02-734-8059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

마음 속 어린왕자 만나요…전등사에서의 특별한 하루

문화사업단, 교계 기자 팸투어

한옥 독채 전등각서 1박 2일
팥죽·사찰음식 등 오감 만족
외국인 구도순례기 강연 눈길
여암 스님 차담…힐링 여기에
"수행, 자기 본질 찾는 과정"

강화=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강화 전등사 무설전 위 어린왕자 조각상. 발굴조각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창시한 이영섭 조각가의 작품이다.

영원한 동심의 상징 '어린왕자'는 자신의 소행성 B-612를 떠나 여행을 떠난다. 여러 소행성에서 다양한 인간 군상들을 만나고 깨달음을 얻는다. 우리의 여행도 마찬가지다. 자신만의 B-612를 떠나 나름의 여정에 이른다.

그중 사찰로 떠나는 여행·순례는 조금 색다르고 설렌다. 세속(世俗)과의 경계인 일주문과 천왕문을 넘어서 들어선 성(聖)의 영역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힐링하고 사유하게 된다. 다른 여행에서는 만날 수 없는 자기 자신에게 이를 수 있는 여정이 사찰로 가는 길에는 있다.

역사 · 문화예술 품어낸 전등사

강화 삼랑성 전등사(주지 여암 스님)는 성속의 경계가 일여(一如)하다. 일주문과 사천왕 대신, 삼랑성(정족산성)의 사대문이 존재해서다. 이는 단군의 세 아들이 성을 쌓았던 신화 시대의 전설부터 고려 시대 가궐(假闕), 조선 시대 사고(史庫), 병인양요 승전지까지 강화 지역의 질곡진 역사를 전등사가 그대로 품어 안고 있음을 보여 준다.

전등사는 381년(고구려 소수림왕 11)에 아도(阿道) 화상이 창건해 진종사(眞宗寺)라 명했다. 전등사라는 이름은 충렬왕(1274~1308)의 비 정화 궁주가 옥등을 시주한 데서 비롯됐다. 절의 중심부인 대웅보전을 만나려면 대조루를 지나야 하는데 키가 작아도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이게 된다. 고개를 다시 들면 대웅보전의 부처님을 만난다.

최근 전등사는 서운 대종사의 법등을 이을 역사문화교육관을 준공하며 사격을 일신하고 있다. 지난 2022년 전등사에서는 '발굴조각'이라는 새로운 장르로 유명한 이영섭 조각가가 '어린왕자와 함께하는 전등사의 가을'이라는 전시를 선보여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 약 두 달의 전시가 끝나고 전시 작품들은 철시돼 전등사를 떠나게 됐다. 하지만 그간 정이라도 들었을까. 주지 여암 스님은 작가에게 전화를 걸어 요청했다. 어린왕자를 전등사에 남겨 달라고.

"당시 전시 작품이 전등사를 떠나 차량으로 이동 중이었어요. 아마 김포 정도까지 갔을 겁니다. 전화해서 돌아오게 했지요. 어린왕자 조각상 중 하나가 계속에 눈에 밟히는 겁니다. 정이 너무 들었나 봐요."

그렇게 영원한 동심의 상징 '어린왕자' 조각 3점이 전등사에 남게 됐다. 이후 전국 몇몇 사찰에서는 어린왕자 조각상을 조성하거나 들이고 있다. 이는 모두 전등사가 만들어 낸 흐름이다. 이에 대해 여암 스님은 이같이 설명했다.

"처음에는 '천년고찰인 전등사에 어린왕자가 어울리냐'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생텍쥐페리의 소설 〈어린왕자〉만큼 불교적인 이야기를 보지 못했어요. 선재동자 구도기와 맞닿은 어린왕자의 이야기는 우리의 본질을 되새기게 하죠. 흐름은 만들어야 돼요. 따라가기만 해서는 흐름을 만들지 못합니다."


기자단에게 제공된 사찰음식 만찬.


현재 한옥 독채 템플스테이로 활용되는 전등각.


주지 여암 스님이 기자단과의 만찬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전등각, 프라이빗한 휴식 가능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일화 스님, 이하 문화사업단)이 12월 12~13일 진행한 불교계 기자단 팸투어는 전등사 전등각(傳燈閣)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전등각은 과거 귀빈 연회소 등으로 활용되던 곳으로 전등사는 최근 이곳을 사찰음식문화연구소와 프라이빗한 한옥 독채 템플스테이를 진행할 수 있는 곳으로 변모시켰다. 이곳에서 기자단은 팥죽 만들기, 사찰음식 만찬 등을 체험하며 몸과 마음을 쉬어 갔다.

전등각 곳곳에는 곶감으로 익어 가는 감들이 널려 있었다. 총무 지불 스님이 하나씩 따서 기자들에게 전했다. 그 맛이 매우 달았다. 지불 스님에 따르면 강화도 특산물 중 하나가 바로 토종감인 '장준감'으로, 임금에게 진상될 정도로 맛과 영양을 자랑한다.

기자단에 제공된 사찰음식 역시 강화에서 만날 수 있는 현지 제철 재료로 만들어졌다. 지혜심 전등사 사찰음식문화연구소장은 "고구마, 배추, 순무 등 제철 및 현지 재료로 조리했다. 강화의 진미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찬에 앞서 문화사업단 사무국장 상원 스님은 "사찰음식에 대한 관심이 국가무형유산 지정 이후 높아지고 있다"며 "오늘 준비된 만찬을 통해 사찰음식의 가치를 다시 한번 느끼길 바란다"고 밝혔다.

여암 스님은 "사찰음식과 문화유산 때문에 도량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시기에 도량도 사찰음식도 있음을 알았으면 한다"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이 음식이 진정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되돌아 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구도와 수행, 그 가치에 대하여

저녁 공양 후에는 문화사업단이 기자단을 위해 준비한 특별 강연인 '한 외국인이 한국 사찰에서 발견한 것들'이 진행됐다. 이탈리안계 캐나다인 조셉 벤지베니 씨가 한국불교와의 인연, 수행 이력, 33관음성지 순례 등의 경험기를 직접 촬영한 사진을 곁들여 소개했다.

원어민 선생님이 되기 위해 전문적인 영어 교육자 자격 과정을 이수하고 2005년 한국에 온 벤지베니 씨는 지인과 처음 찾은 불국사에서 집에 온 듯한 편안함을 느끼며 한국불교에 매료됐다.

이후 친구들과 함께 인도를 찾아 여러 수행을 체험하고 다시 한국에 와서 대행 선사에게 오계와 함께 '길도(吉道)'라는 법명을 받았다. 그는 이 법명을 한국 이름으로 활용해 '조길도'라 이름 지었다.

"대행 선사는 두 번 찾아뵈었는데 연로하셨지만 인자하게 이야기를 전해 주셨습니다. 원래는 한 번만 인사[一杯]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해를 못해서 혼자서 두 번째 절을 올리고 있더군요. 잘못된 것은 알았는데 두 번만 절하는 것은 죽은 사람에게 하는 것은 알고 있어서 삼배를 올렸어요. 조금 창피했는데 선사께서는 크게 웃어 보이셨어요. 아직도 그 모습이 생생합니다."

원효 스님의 해골물 이야기에 감명 받아 팔에 문신으로 남긴 벤지베니 씨는 주말에는 한국인 부인과 함께 경허 선사의 주석처였던 개심사를 찾아 참선 수행할 정도로 신심이 깊다. 그의 구도 여정은 33관음성지 순례로도 이어졌다.

"관세음보살은 만나보셨는가"라는 질문에 그는 "아직 만나지 못했다고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관세음보살을 만날 수 있을지, 이를 통해 더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이라는 대승불교의 본질을 외국인 불자는 삶을 통해 구현하고 있음에 한편으로는 스스로가 부끄러워졌다.

다음날 진행된 주지 스님과의 차담에서도 '본질'을 다시 생각하게 됐다. 여암 스님은 차담을 위해 둘러앉은 기자들에게 '수행'을 이야기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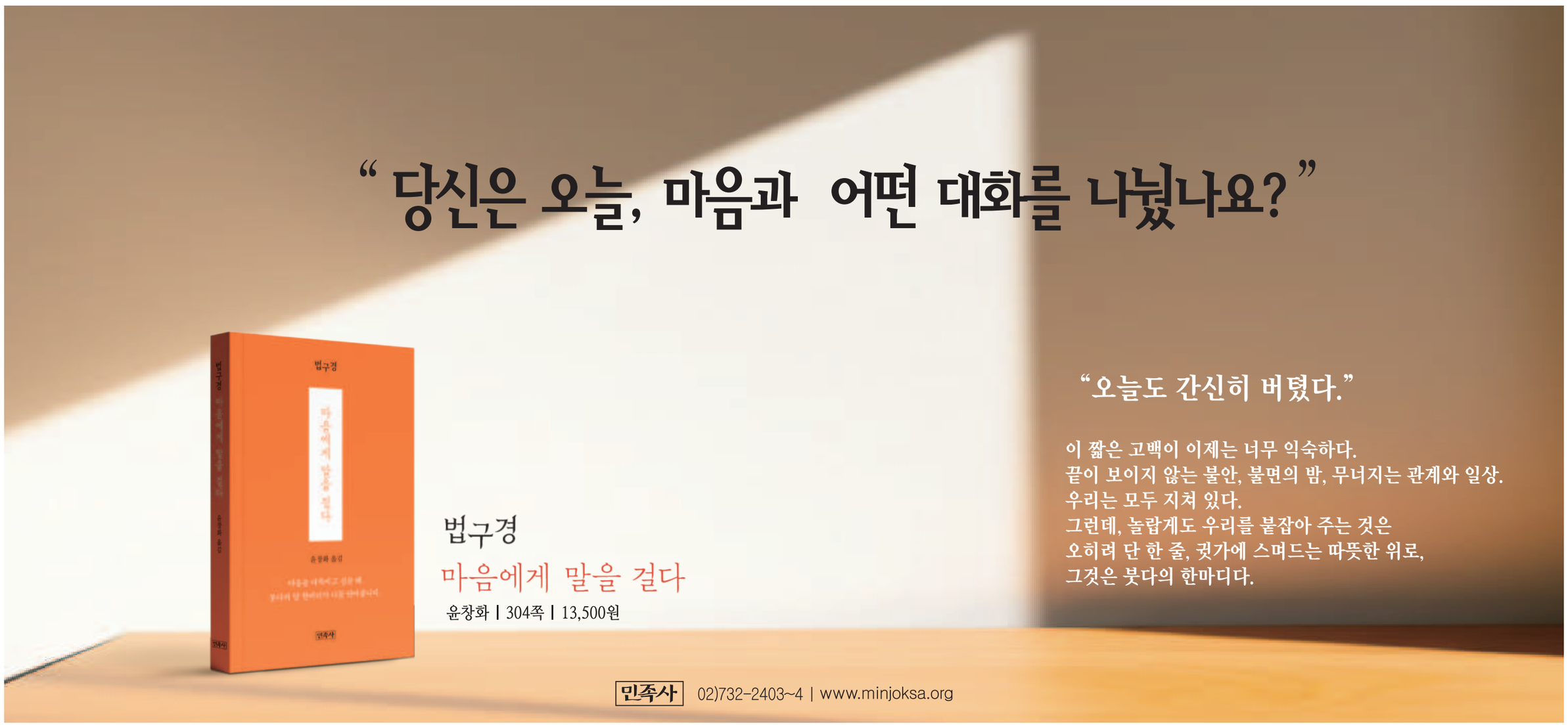
"재가자로서 교계에 몸담고 있다면 '수행력'이 기반돼야 합니다. 내가 쓰는 기사가 부처님 가르침을 얼마나 믿고 다루고 있는지, 행동으로 옮기고 실천하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수행자의 관점으로 세상으로 보고 절집을 바라보세요. 새로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스님은 수행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습의 변화'를 제안했다.

"참선, 선명상, 108배, 사경, 다라니 등 수행은 많습니다. 스스로에게 적합한 수행을 찾아 하루 30분만 투자하세요. 젊은 사람들이 오면 저는 저녁 10시에는 잠자리에 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전 5시에 일어나 30분 수행하고 출근할 것을 조언하죠. 한 번 해보세요. 하루를 알차게 보낼 수 있을 겁니다."

여암 스님은 "불교계 언론에 20~30년 봉직했는데 수행 하나 없이 은퇴하면 불운한 일"이라며 기자 이전 불자로서 본질을 갖출 것을 거듭 당부했다. '본질을 갖추라.' 이는 기자뿐 아니라 모든 이를 위한 당부이기도 했다.

다시 자신만의 B-612로 돌아갈 시간. 어린왕자는 말했다.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에 샘을 감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자신의 마음속 관세음보살, 어린왕자를 만났을까.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Weekly 선명상** 48 깨달음은 언제 나에게 올까



▶한줄 요약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반야심경〉을 한 편이라도 염송하거나 또, 정기적으로 참회의 절을 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참선으로 몸과 마음의 업을 모두 다스릴 수만 있다면 더할 나위 없습니다.

수행으로 업식을 다스려라

> 불교의 깨달음, '苦'를 여읜 상태 의미
> 고통은 잘못된 생각과 마음에서 비롯돼
> 의심 말고 감정 비우고 수행 정진하면
> 두터운 업식을 녹여 마음 평화 이룰 것



해당 삽화는 진우 스님의 한글 게송을 생성형 AI에 입력해 제작했습니다.

[오늘의 명상]
달빛 은은히 숲 그림자 어른거리고
샘물 소리 졸졸졸 솔바람에 묻히었네.
산중에 사는 이가 무얼 그리 바라겠나?
무심히 살다 보면 깨달음도 들르겠지.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이란 근심과 걱정, 괴로움과 고통을 완전히 여읜 상태를 의미합니다. 108가지의 근본 번뇌가 한 가지라도 남아 있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고(苦, 괴로움)는 어디에서 오는가? 물론 잘못된 생각과 마음에서 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낮과 밤, 여름과 겨울, 해와 달, 하늘과 땅, 두 가지 상반된 것 중에 어느 하나만을 선택하려 하는 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를 선택하면 나머지 다른 하나가 동시에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한 가지만을 선택하려고 하는 분별(分別)하는 버릇이 '고'를 부릅니다.

좋은 것을 생각하면 나쁜 것이 생기고, 큰 것을 생각하면 작은 것이 생기며, 극락을 생각하면 지옥이 생기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인데도 이 둘의 분별된 생각 때문에 '고'를 면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같은 인과(因果)의 진리를 여실히 잘 안다 하더라도 이를 단번에 고치지 못하는 숙명과도 같은 업식(業識)이 자신을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잘 알고는 있으나 이를 실천하기란 정말 어렵고 힘듭니다. 수억겁(億劫)의 전생을 거치며 쌓아 온 업식을 하루아침에 없애려 한다는 것은 무모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같이 잘못된 업식을 고치고 깨치지 않으면 고의 윤회(輪廻)를 면할 수가 없으니, 한시라도 빨리 '고'를 여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최선을 다해 '고'를 멸해야 합니다.

첫째, 어떠한 일이 닥치더라도 의심하거나 불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모든 것은 원인에 의한 결과가 서로 주고받는 자업자득(自業自得), 인과(因果), 인연의 결과이기 때문에 절대 더하거나 뺄 것이 없습니다.

둘째, 감정을 비우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 또한 인과의 모습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니, 두 가지 감정 중에 좋은 감정을 찾으면 찾을수록 나쁜 감정이 생기기 때문에 이 둘의 감정을 떠나서 중도(中道)의 마음을 갖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셋째, 마음을 비워 평안의 업을 얻기 위해서는 내 것이라고 하는 마음의 병을 비워 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억지로라도 보시(布施, 베품)하는 습을 길러야 하는데, 계획을 잘 세워서 정기적으로 내어 놓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넷째, 물리적인 습을 통한 업(業)을 조금씩이라도 고쳐나가야 합니다. 매일 시간을 정해 놓고 〈반야심경〉을 한 편이라도 염송하거나 또, 정기적으로 참회의 절을 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참선으로 몸과 마음의 업을 모두 다스릴 수만 있다면 더할 나위 없습니다.

꾸준히 정진하고 정진하다 보면 언젠가는 깨달음의 시간 즉, 괴로움의 윤회에서 벗어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명상]
조금 놓으면 작은 평화가 오고
크게 놓으면 큰 평화가 오며
다 놓으면 완전한 평화가 온다.
그리하여 나와 업(業)의 싸움은 끝을 맺을 것이다.

사람이 사는 목적은 괴로움을 떨치고 즐겁고 행복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동서고금(東西古今)을 거쳐 수천 년 동안 무수한 사람이 살고 갔지만 완전한 행복을 찾은 이는 부처님과 조사(祖師)님들뿐입니다.

완벽하게 행복을 이루신 부처님과 조사님들의 가르침에 의하면 괴로움을 완전히 여의기 위하여는 성불(成佛)을 해야 합니다. 성불이란 부처가 되는 것인데, 부처가 되려면 업(業)을 완전히 멸하여 해탈(解脫) 열반(涅槃)의 경지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업이란 무엇인가? 마음을 업이라고 합니다. 업은 두 종류의 마음을 뜻합니다. 이 마음과 그 반대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란 좋고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편안한 마음을 말하고 그 반대의 마음이란 싫고 나쁘고 괴롭고 슬프고 불행하고 불편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 마음과 저 마음, 즉 서로 반대되는 두 마음은 서로에 의해 생겨나는 것이므로 늘 자가발전하면서 교차하여 나타납니다. 따라서 이 마음이 생기면 그 반대의 마음인 저 마음이 자동으로 생기고, 이 마음이 크게 생기면 저 마음 역시 크게 생깁니다. 반대로 이 마음이 없으면 저 마음도 사라집니다.

큰 희망과 바람은 큰 실망과 좌절을 부르고, 큰 행복은 큰 불행을, 큰 즐거움은 큰 괴로움을 받는 것이 만고불변(萬古不變)한 인과(因果)의 법칙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천 년이 지나도록 인간이 불행하고 인류가 바람 잘 날이 없는 것은 욕심에 의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편안한 것을 억지로 만들려 하는 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괴로움과 고통을 즐거움과 쾌락으로 대체하려 합니다. 그러나 이 둘은 앞과 뒤, 위와 아래의 관계처럼 한 몸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입산(入山) 수행(修行)을 하는 스님들은 모두를 버립니다. 무소유(無所有)하기 위해서입니다. 내 것이라는 마음이 있는 순간 잃어버리고 사라지는 괴로움의 과보(果報)를 받게 되며, 좋은 것이라고 하는 분별심을 갖는 순간 이미 좋지 않은 것이 분별되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두 마음을 모두 버리는 것을 무소유라 하고, 무소유해야 업이 완전히 사라져서 괴로움과 고통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불교의 최고 덕목은 참선(參禪)입니다. 참선은 때와 장소에 구분 없이 두 마음이 없는 무소유한, 그래서 걱정 근심 번뇌가 완전히 사라진 상태의 적멸(寂滅)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도 전혀 받지 않는 마음의 상태를 가리켜 참선의 마음, '선심(禪心)'이라고 합니다.

좋은 생각이든 좋지 않은 생각이든 한 생각이 두 마음을 동시에 만들기 때문에 생사(生死)가 생기고 생멸(生滅)이 생기며, 고락(苦樂)이 생기고 갖은 시시비비(是是非非)가 생깁니다. 참선은 한 생각마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무념무상(無念無想), 무심(無心)을 말합니다.

아무 생각이 없다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답은 하나입니다. '그 생각마저 놓으라.'

가능할까요? 부처님이 말씀하셨고 역대 조사와 아라한께서 여실히 증명했습니다. 업이 두터워 당장은 어려울 수는 있겠으나, 욕심을 조금씩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도록 노력하며, 소욕지족(少慾知足)하면서 점진적으로 비워 나간다면 철갑 같은 업이라 하더라도 조금씩 녹아 없어질 것입니다. 〈끝〉

〈조계종 총무원장〉



최선일의 佛母列傳 시즌2 ⑳ 청윤(淸允) 스님



▶한줄 요약
청윤 스님은 혜희 스님의 계보를 잇는 인물로 추정되며, 약 32년간 경북 북부 지역 주요 사찰에서 불상 조성 및 중수·개금을 주도한 17세기 후반~18세기 초반의 대표적인 조각승이다.

조선 후기 경북 조각승의 계보 이어 가

조각승 청윤(淸允) 스님은 17세기 후반 문경 양산사(陽山寺, 현재 봉암사)에 거주하면서 경북 지역 여러 사찰의 불상을 제작하거나 중수·개금한 대표적인 작가이다. 청윤 스님의 활동 시기는 1684년부터 1716년까지로 확인되며, 현재까지 조사된 수화승으로서의 제작 사례는 1건 3점에 불과하다.

청윤 스님은 1684년 음력 3월부터 6월까지 약 3개월 동안 수화승으로 영주 부석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을 학정(學淨)·승보(勝宝)·묘성(妙性) 스님 등과 함께 제작했으며, 대좌(座臺)는 인해(印海) 스님이 조성했다. 이 불상과 함께 괘불도 역시 조성된 점에서 당시 불사가 상당히 큰 규모였음을 알 수 있다. 현재 부석사 괘불도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돼 있다. 그동안 괘불도 화기에 기록된 불상 제작 작가는 수화승 ○원(○元), ○정(○淨), 인해(印海), 승○(勝○), 묘성(妙性), 상○(尙○) 등으로 판독돼 왔으나, 1960년대에 촬영된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대좌 일부 사진에 묵서가 공개되면서 작가를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 불상 삼존 가운데 본존인 아미타여래는 현재 영주 부석사에, 관음보살은 봉화 중대사에, 대세지보살은 강릉 백운사에 각각 봉안돼 있다.

청윤 스님은 1702년 6월에 문경 대승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을 중수할 당시, 발원문에 '화공(畫工) 통정대부(通政大夫) 청윤(淸允)'으로 기록돼 있다. 이는 정3품(正三品) 당상관(堂上官)에 해당하는 통정대부(通政大夫)의 공명첩(空名帖)을 받은 것으로, 국가적 사업에 참여했거나 국가에서 발급한 명예직 임명장을 취득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청윤 스님은 1706년 2월 25일부터 5월 27일까지 약 3개월간 수화승 금문 스님이 제작한 안성 칠장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과 시왕상 등의 조성에 부화승으로 참여했다. 이때 금문 스님과 청윤 스님은 종2품(從二品) 문무관에 해당하는 가선대부(嘉善大夫)의 공명첩을 받은 사실도 확인된다. 이 불사를 통해 조각승 12명이 명부전에 봉안할 목조지장보살삼존상, 시왕상, 판관상 등 최소 21점 이상을 3개월에 걸쳐 제작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청윤 스님은 1710년 문경 봉암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을 단독으로 개금했으며, 1714년에는 김천 직지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의 개금·중수 불사에 수화승으로 참여했다. 이때 새선(璽旋)·희일(熙日)·태섬(太暹)·무선(武善) 스님 등과 함께 작업했고, 청윤 스님은 황금(黃金) 대시주자로도 참여했다. 또한



강릉 백운사 목조대세지보살좌상(1684년, 영주 부석사 조성)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



영주 부석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1684년)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



봉화 중대사 목조관음보살좌상(1684년, 영주 부석사 조성) ⓒ불교문화유산연구소

혜희 스님의 조각승 계보로 추정
문경 봉암사 거주하면서 32년간 활동
금문 스님 후배, 새선·희일 스님 스승

스님은 1716년에 경산 환성사 목조여래좌상(1466~1474년 조성, 경주 왕룡사원 봉안)을 새선(璽善)·희일·지영(智英)·귀신(歸信) 스님 등과 함께 중수했다.

여러 불상에서 발견된 조성·중수발원문을 종합하면, 청윤 스님은 문경 봉암사에 거주하며 1684년 음력 3월부터 1716년까지 약 32년간 활동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를 통해 1640년대에 태어나 1660~1670년대에 불상 제작의 수련기와 보조화승 과정을 거친 뒤, 1684년 영주 부석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제작을 주도했다. 이후 18세기 초반에는 문경 대승사, 문경 봉암사, 김천 직지사, 경산 환성사 등에서 금동불과 목조불의 중수·개금 불사를 주도했다. 청윤 스님은 1702년 정3품 문관에 해당하는 통정대부, 1706년 종2품에 해당하는 가선대부의 공명첩을 받은 인물로, 당대 조각승 가운데서도 비교적 높은 사회적 위상을 지녔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화승으로서 경북 영주, 문경, 김천 일대 사찰에 봉안된 불상의 중수·개금에 지속적으로 참여했다.



각각 다른 사찰로 이운된 영주 부석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1684년).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오가와 게이키치 조사 문화재 자료〉, 19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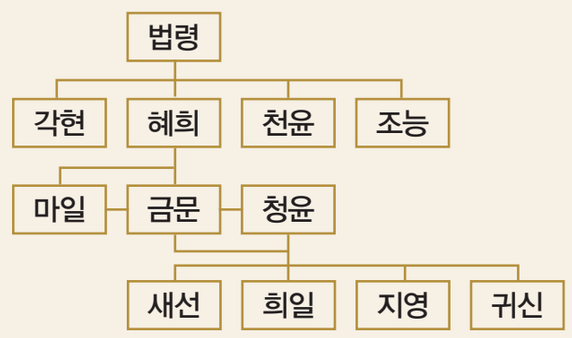
청윤 스님의 대표작인 영주 부석사 장경각 봉안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은 높이가 126.5㎝, 무릎 폭 81.5㎝에 이르는 중대형 불상이다. 상반신을 곧게 세우고 머리를 약간 앞으로 내민 자세를 취하고 있다. 머리에는 경계가 분명하지 않은 육계(肉髻)와 뾰족한 나발(螺髮)이 표현됐으며, 중앙에는 반원형의 중간계주(中間髻珠), 정수리에는 원통형의 정상계주(頂上髻珠)가 배치돼 있다. 방형의 얼굴에는 넓게 벌어진 눈 사이, 가늘게 뜨고 약간 올라간 눈꼬리, 평평한 콧등과 뾰족한 코, 얇은 윗입술과 미소를 머금은 입매, 넓은 인중 등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목에는 삼도(三道)가 가늘게 새겨져 있다.

착의는 대의(大衣) 안쪽에 부견의(覆肩衣)를 받쳐 입은 형식으로, 오른손을 들어 올린 자세로 인해 오른쪽 어깨의 대의 자락이 짧게 접히며, 나머지 자락은 팔꿈치와 복부를 지나 왼쪽 어깨로 이어지는 유려한 흐름이 보인다. 대의 내부에 착용한 승각기(僧脚崎)의 상단은 연판형 주름으로 처리돼 장식적 효과를 더한다. 복부에서 부견의가 대의 안쪽으로 접히며 W자형 주름 구조를 이루고, 하반신으로 내려온 대의는 중앙의 긴 주름을 중심으로 좌우에 4~6가닥의 세부 주름이 전개된다. 후면에서는 목둘레를 감싸는 대의 끝단과 왼쪽 어깨에서 넘어온 자락이 수직으로 늘어져 전체적인 착의 구성의 완결성을 높인다. 수인(手印)은 오른손을 가슴 높이까지 들어 올리고 왼손은 무릎 위에서 엄지와 중지를 맞댄 형태로, 조선 후기 여래상과 보살상에서 널리 채택된 전형적인 형식이다.

현재 청윤 스님이 제작한 불상은 몇 점만 확인되지만, 제천 무암사 극락보전에 봉안된 목조아미타여래좌상 역시 1680년대 청윤 스님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끝〉

〈(사)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장 · csi34@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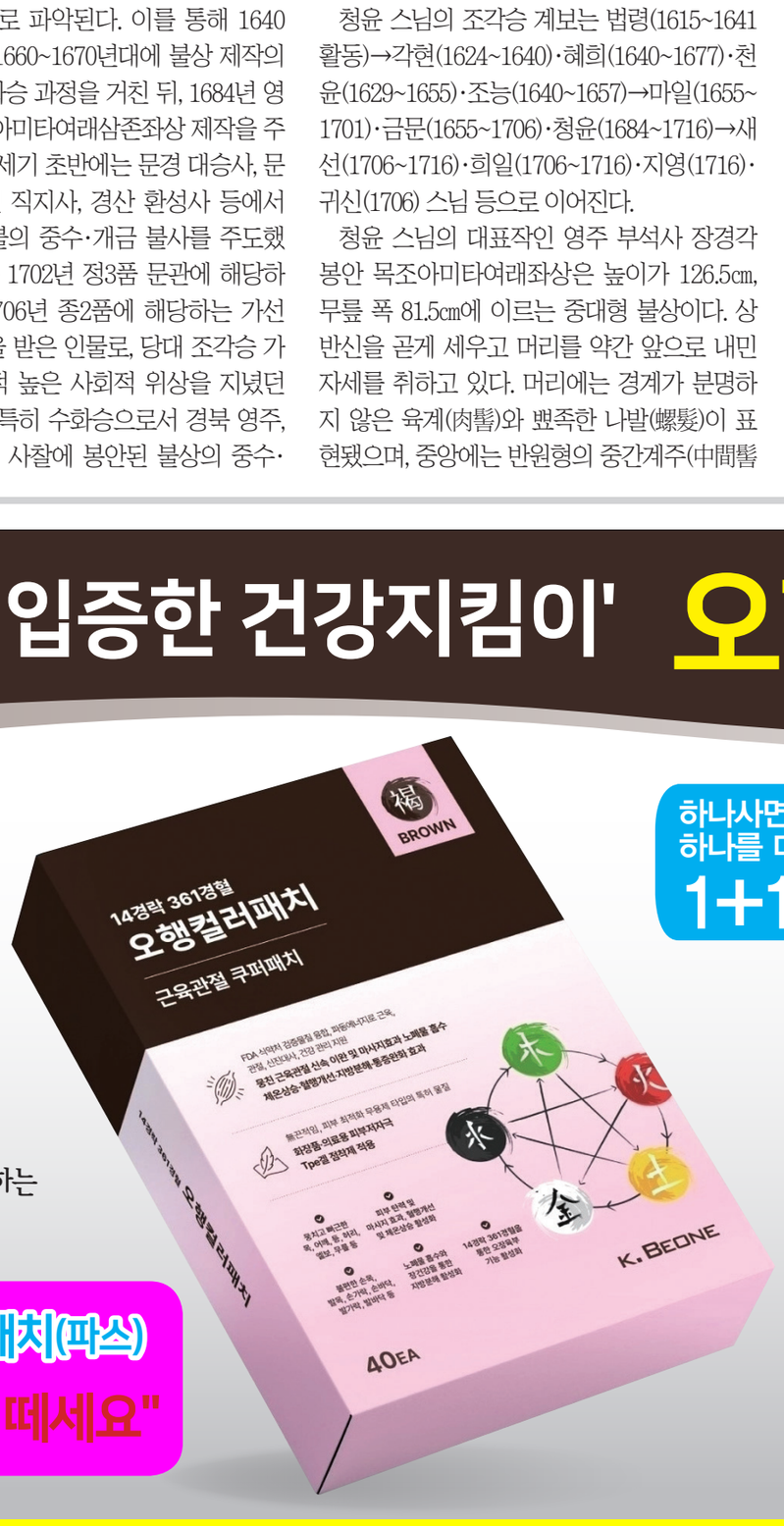
청윤 스님의 조각승 계보 (필자 작성)



'재구매율 1위로 입증한 건강지킴이' 오행컬러패치 2025 할인가

국민대 스포츠건강재활 전공
심영세원 교수가 개발한 오행컬러패치!!
PDA식약처 검증된
피부 친화 Tpe겔 접착제 사용!!

천연광물의 원적외선 파동에너지 기술과
한의학 14경락 361경혈 기반
색상학, 수리학, 명리학을 접목하여
경직된 세포를 마사지하고 통증을 예방 · 완화하는
기술을 패치(파스) 한 장에 담았습니다.



하나사면 하나를 더 1+1

소비자가 ~~₩99,000~~ → 60%할인
₩39,600 총 80매

자면서 저절로 건강해지는 패치(파스)
"취침 전 붙이고, 기상 후 떼세요"

QR코드를 카메라로 찍어보세요
사용법이 자세히 나옵니다

허리통증
무릎통증
어깨/목통증
손목/발목통증

NAVER 마하몰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2025년 12월 24일 수요일 | 불기 2569년

접 수 문자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560호 | 15 | 전면광고

어리석은 사람은 남의 악만 볼 뿐
자신의 악은 볼 줄 모르며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선만 볼 뿐 남의 선을 볼 줄 모른다.

부처님 말씀 읽기 - 《법률삼매경》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경기도
- 대지 : 1000평
- 법당 : 30평 목조포집
- 요사 : 30평, 산 밑
- 매가 : 8억, 차량진입
- 위치 : 서울
- 면적 : 200평, 사찰
- 법당 : 50평
- 요사 : 60평, 산 밑 차량진입
- 매가 : 25억

※5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상담 받습니다.
※전국 전통, 사찰, 암자, 땅, 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양도, 양수, 전통사찰지정, 신행, 출가,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스님유품정리. 골동품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시내
- 대지 : 230평/건물 : 연면적 150㎡
- 대웅전(목조) 산신각(목조신축) 주지스님 처소(신축)
- 요사채 및 종무소
- 진주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전망 좋은 곳
- 가액 : 6억원

010-3808-3852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서천군 서면 춘장대 IC 15분거리
- 대지 : 367평
  건물 연면적 : 160.36㎡
  법당, 주지 스님 처소
- 바다가 보이는 전망 좋은 곳
- 가액 : 3억5천만원(협의가능)

010-5046-5788

사찰(급)안내

- 땅(종교부지) 값만 받고 양도합니다.
- 위치 : 강원도 삼척시
- 대지 : 약 500 평
- 법당, 산신각, 미륵불, 탑 종각 및 범종, 요사채 2동
- 시내와 인접하여 교통 편리
- 집기류 전부 다 줌 • 법회 즉시 가능

좋은 인연 기다리겠습니다.

010-2366-2821

사찰(급)안내

- 신축 빌라식 3층 건물
- 각층 임대 및 매매 가능
- 위치 : 부산시 구포시장 농협 옆
- 1층 근린법당 약 50여 평 5000만 월 70만
- 2층 주택 법당 5000 월60만
- 3층 주택 방3칸 5000 월50만

※3층 복층 사용 가능

010-5511-700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거제시
- 부지 2013㎡
- 법당 약40평, 요사채 약60평, 창고 약20평
- 산세 및 풍광 좋음
- 주차장 넓음
- 매매 : 6억 2천만원

010-3466-9991

사찰(급)안내

- 위치 : 원주 미륵산 명당터, 경관좋음
- 대지 : 1239평, 주차 약 30대, 앞에 큰 도로, 버스정류장 약 300m, 우체국/농협/면사무소 약 도보15분거리 입니다.
- 1층 요사채, 2층 법당, 삼성각, 원주시청, 충주시청, 문막읍 약 20km
- 가액 : 6억5천만원
- 답사하실 분만 전화 요망

010-5371-5567

포교당(급) 안내

- 위치 : 경기 시흥시 정왕동(정왕역 차로5분)
- 주변 : 정왕동아파트 대단지, 대형마트, 대형병원 월곶, 배곧, 아파트 신도시
- 규모 : 4층 전체, 옥상 사용 엘리베이터. (총: 110평) 사용.
- 법당: 삼존불, 신중단, 산신단, 약사여래불, 영단 큰방 3개, 사무실, 창고방, 에어컨법당 2개, 각방마다
- 보증금 : 1000, 월세 110(보증금, 월세조정)
- 권리금 일체시설, (법당, 각방, 일체 집기시설) 4500만원 (바로 법회 가능)

※통화 안될때 문자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010-8599-9468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승학산 등산로 입구
- 1층 공양 생활관, 2층 법당과 연결된 스님방과 화장실 부엌이 있음
- 5불 · 천불불사 · 후불금탱화 · 지장신장탱화 · 십장생조각상단 · 큰법당 종
- 골목 안에 주차장 가까운 관음사 환희요양원과 연결된 융통성있는 주차공간있음
- 토지 140㎡, 건물 146.62㎡
  1층 73.31㎡, 2층 73.31㎡
- 매매 : 2억5천만원

010-9811-4877

토 굴 안 내

- 위치 : 서울 성북구 정릉 배밭골
- 재개발지, 토굴 10평
- 법당 및 화장실, 올수리
- 세탁기 냉장고 등 집기일체 양도
- 금액 문의 (성북구청 보증금 5000만원 있음)

*꼭 필요하신분만 연락 당부

010-5371-132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 (양평역세권 5분거리)
- 대지 : 2종근생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 1동 / 공양간 30평 요사채 23평 2층 - 1동 / 종무소 · 객방 13평 - 1동
- 용도 : 사찰 · 사찰음식 · 명상센터 · 다원 최상입지
- 가액 : 12억원(답사 후 절충)

010-4461-3825

부동산 모든문제(사찰)를 해결해 드립니다

못파는 부동산(사찰)을 팔아드립니다. (무료상담)
못사는 부동산(사찰)을 사드립니다. (무료상담)
(사찰 : 5천만, 9천만, 2억, 5억, 9억, 12억, 15억, 30억, 75억 매물보유)
정성 부동산문제해결연구원 원장 행정학박사 정 용

정용 원장 약력

부동산평론가 (전국최초), 부동산 중개경력 40년 / 영남대학교 부설 글로벌평생교육원 부동산경영최고위과정 책임교수 / 대구과학대학교 부동산금융학과 겸임교수(역임), 방송인 / 경일대학교 부동산지적학과 겸임교수 (역임), 영남일보객원기자(역임)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광역시 9대 지부장, 대구광역시 7대 시의원

대구 동구 제27140-2021-00097호

정용 공인중개사무소 대표 010-2512-7777

도심 최고 중심사찰부지 안내

지금의 사찰은 도심의 최고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 대구시민 240만 인구의 최고 중심
- 지하철 1호선, 3호선 더블역세권
- 불교5대종단 內 소유 종교용지(나대지)
- 다시는 찾을 수 없는 도심속의 명당
- 종교용지 490㎡, 추가 130㎡ 매입가능
- 매매가격 : ㎡당 350만원(협의가능)

053-745-9999, 010-2512-777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금장리 127-1번지
- 총평수 470평(대지 340평, 평밭 130평)
- 대웅전 20평, 요사채 50평, 산신각 5평
- 칠포해수욕장 차로 7분 거리, 시내 10분, 죽도시장 30분
- 가액 : 2억 7000만원(대출 2억 1300만원)
- 물은 지하수입니다.

010-3741-3567

사 찰 안 내

- 위치 : 가야산 아래 백운동 60평
- 1가구 2주택 해당 안되는 공기가 매우청정한 토굴
- 거실, 방2, 화1 군불넣는 잘지어진 황토방1
- 가액 : 6900만원

010-9468-0122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평창 토굴
- 읍에서 4km 떨어진 곳
- 총 726평 중에서 대지 170평
- 건물 3동 본체, 작은 황토방, 농막
- 가액: 3억 5천

010-3671-3776

사 찰 안 내

- 위치 : 밀양시 산외면 금곡4길 68-81
- 대지 660평(사찰 앞 50평) 총 710평 그외 사찰에서 사용가능한 땅 500평
- 건물 : 슬라브 3동, 향토방 2동 해우소(화장실) 1동 (선물은 모두 무 건물입니다)
- 금액 : 5억원

010-9203-1165

광고 접수 번호 안내

02-2004-8204

010-4648-8200

좋은인연 대출안내

-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 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현대불교신문 지면광고시 무료영상 게재

NO.1 사찰 매매 정보 채널

좋은 인연 사찰 안내

사찰 복덕방

www.youtube.com/@사찰복덕방

사찰복덕방





2025년 12월 24일 수요일 | 불기 2569년

접 수 문자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안내

1560호 | 16 | 전면광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축생보다 못하다.



부처님 말씀 읽기 -《대지도론》에서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바라·작법 전승학인 모집

1. 의식 염불, 사물
(49재·천도재·점안 각행사)
2. 천수바라·오공양작법
3. 다게작법·운심게작법

• 특별반 3개월과정모집
• 사) 대한불교문화 전통불교조계종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부산영산재 (전수장학생 한시적 등록추천)
만득동 447-4 총무원 영축사 010-5511-7000

미륵암 '지평대사' (12불 수기)
99% 완치, 말기암 환자 1개월 내 치유

320년간 수기받음 / 교도소, 오지 등 전국방문 가능
즉시 영가 천도 / 불교-무교인 상담환영
집이나 땅 매매 안되는 분 성불 시켜드립니다
공항장애, 간질 등 몸이 안좋으신분 치유해드립니다
지평대사는 법문 대신 설법을 합니다
친견상담비 30분 330만원 / 완치 3000만원부터 시작
010-4804-2309

지리산 암힐링센터
동업 하실 분
관심있으신 분 연락주세요
자연치유대체요법
010-4474-8418

손도사성공론 꼭 읽어봐주세요 책



책이름 검색해보세요
010-5105-5000

국제결혼
인연맺어
드립니다
010-9260-1672

사찰토지보상 전문
JMY토지보상(감정평가)
덮어놓고 보상
삼보정재 손실
원가보상 철퇴!
사찰땅 가치인정
보상상담 도우미
010-2701-950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점안,살풀이,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수강생 모집
명리. 육효
영가 찾는 법
•내 용:기초부터 실전완성(4개월)
•수강료:1개월 무료, 월 15만
•장 소:서울시 관악구 중앙길7
(서울대입구역 6번출구)
백암역리원 010-9150-2284

사 십 구 재
바라. 작법. 살풀이. 연화무.
창작무. 태평소. 향피리. 등등
대~소 행사 저렴하게 보시합니다.
충남북~서울~경기 일원
소중한 도량불사 중에
큰 공덕이 될것입니다.
봉헌사 주지 성광
041-338-1599

이조불교 재활용센터
•대불, 소불, 동불, 탱화, 법당 제작 (수미단, 닷집, 운각)
•법당 철거, 오래된 불서 고가 매입
*사찰 사고팝니다.
010-9177-7842

해썹(HACCP) 인증업체
식품안전관리인증 HACCP 식품의약품안전처
현대해상 식품배상책임보험 3억원
국내산 암컷흑염소와 30가지의 전통원료로 소화잘되는 진액
국내산 진짜 흑염소 진액 100%
(흑염소 높은 함량38%, 정제수 49%, 전통약재 13%)





2박스 (60포)
240,000원
농업회사 (주)미성팜 택배가능
충주시 주덕읍 충청대로 2236-1 나동
043)845-5596 / 010-2136-9889

광고 접수 번호 안내

국내 최대 사찰 생활 정보 안내지로 2000만 불자들에게 전달됩니다. 인터넷 뉴스사이트 '현불뉴스'에서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02-2004-8204
010-4648-8200

향로용 유리알 **향운정주(수정모사)**



▣ **상품명** 향운정주 (수정모사)
▣ **재 질** 크리스탈 유리알
▣ **용 도**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규 격** 1kg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특별공급가격** **1kg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구입처** 전화 02-732-1520 , 팩스 02-737-0696
▣ **계 좌**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 **판매원**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바이넥스 / 원산지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종류		크기			수량
향로(스텐)	特大	지름 20cm	높이 18.5cm	내부 13cm	5kg
향로(스텐)	大	지름 17.5cm	높이 18.5cm	내부 11.5cm	3kg
향로(스텐)	中	지름 13.5cm	높이 16cm	내부 10cm	1.5kg
향로(스텐)	小	지름 12cm	높이 12.5cm	내부 8.5cm	1kg

2026년 동호불교 500평매장 모든 물건 준비되었습니다

불화 탱화 화실 운영 합니다
물품 소진시 마감 됩니다 ※ 택배비도 포함된 가격이며 부가세는 별도 입니다

조상옷
쟈가드 100벌 이상 270,000원
천연펄프 100벌 이상 260,000원
추가옵션 (100개이상)
버선 300원
양말 350원
세면도구 100개 이상 150,000원
속옷 세트 100개 이상 130,000원
베네저고리 100개 이상 120,000원
종이짚신 150개 1BOX 195,000원
종이신발 50족 1BOX 60,000원

종이지옷 (봉투)
지옷 100개 700원 1BOX 70,000원
200개 650원 1BOX 130,000원
수자 200개 1BOX 130,000원
동자선녀 200개 1BOX 150,000원

수입양초
밀대 50개 60,000원
원백 20개 70,000원
돈타래 40개 70,000원

수입홈초
원백 20개 75,000원

식물성 양초 -수입
7일초 20개 55,000원
5일초 24개 55,000원
3일초 40개 55,000원
1일초 100개 95,000원
15일초 12개 90,000원
30일초 4개 130,000원

국산초
밀대 50개 60,000원
원백 20개 70,000원
돈타래 40개 70,000원

국산홈초
원백 20개 75,000원
등신불 25개 75,000원

식물성 양초 최상급 -국산(흰색)
7일초 20개 90,000원
5일초 24개 95,000원
3일초 40개 95,000원
파라핀 1BOX(1.8L/12개) 65,000원

'매장 방문시 추가 할인 혜택 받아가세요'
오색종이 400개 140,000원
삼베 50개 95,000원
삼베옷 (모자포함) 20개 100,000원
군웅 50개 95,000원
소창 50개 95,000원
길배-대 10개 150,000원
영가만원등 100개 200,000원
오색길배 (천왕길배) 30개 135,000원
비석위패 (향나무) 100개 270,000원
예수재 50개 80,000원
금은전 쌍 80,000원
위패 수정 가인 해줍니다. 10개 이상 할인 됩니다.
수제 부적 50장 15,000원
삼베삼제풀이 한박스 400개 240,000원
만월등 청도 100개 오색박스 200,000원
태양전구 할인 100개 150,000원
엘지드 전구 국산 100개 140,000원
경면 인쇄 부적 100장 6,000원
한지삼제풀이 한박스 400개 240,000원
반야용선 대10개 180,000원
반야용선 소10개 160,000원
보시용품 대량 준비되있음

관용대 탄생불 등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량 구매 시 협상 가격 할인!!
※칠보 개금 할인해 드립니다.(기존 불상 가능)※
※불상 조각 조성합니다. (7치소불 500불이상 한불당 12000원)※
4월초파일 착한가격(미리준비하세요)

대표번호 054-762-8200 / 문의전화 010-9748-3366 ■ 계좌번호 : 농협 010-2082-2100-89 (예금주 : 임건순)
■ 오시는 길 : 경주시 강동면 공정길 55-36
구) 경주시 강동면 유금리 401-1

❖ 본 지면의 생활안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서정원의
불교미학산책

㉔ 동국대를 내려오며

미학으로 허무를 하산하다

연말 분위기가 물씬 나는 시기다. 우리의 산책도 1년을 걸려 남산 동국대 팔정도 광장에 겨우 도착했다. 이제 하산할 시간이 다가왔지만, 하산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예정이다.

동국대 중앙도서관 뒤에 자리한 신공학관은 지어진 지 10년이 넘은 건물이지만, 엘리베이터를 타면 우리가 터벅터벅 걸어왔던 그 가파른 언덕길을 30초도 채 안 돼서 내려갈 수 있다. 동대입구역 6번 출구에서부터 올라온 긴 시간이 한 번에 충무로 골목으로 미끄러져 내려가게 되는 셈이다.

우리가 남산을 일 년 동안 산책해 온 일을 돌이켜 보면 동국대라는 불교의 세계로 처음 올랐을 때의 기쁨과 불교의 세계를 탐방했던 정열, 그리고 배운 바 소회를 떠올리게 된다. 그러나 막상 글로 옮기려니, 사실 그렇게 대단한 것을 얻지는 못한 듯한 안타까움 같은 감정이 스쳐 지나간다.

노스롭 프라이는 〈비평의 해부〉에서 장르 문학을 계절에 빗대어 설명하며, 봄을 소생하는 희극, 여름을 성장하는 정극, 가을을 떨어지는 비극, 겨울을 풍자극으로 비유했다. 이에 착안해 돌이켜 보면, 비록 계절의 변화를 잘 전달하지 못했지만 동국대가 자리한 남산은 봄에는 벚꽃 옷을, 여름에는 녹음 옷을, 가을에는 단풍 옷을 입고 변화해 왔다.

이제 겨울 차례로 마무리할 때다. 기껏 올라왔지만 다시 내려가야 한다는 것, 그것도 1년을 걸려 올라왔던 길을 30초도 채 안 되어 내려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니 겨울을 풍자의 시대로 본 것이 참으로 적절하게 느껴진다. 소생하는 봄에 피는 꽃처럼 만발하듯 세웠던 목표들, 여름이 지나며 아지랑이처럼 사라진 목표들, 가을에 떨어지는 낙엽을 붙잡듯 이것만이라도 해내야지 다짐했던 목표들, 이제 겨울이 와서 하나도 이룬 목표가 없나 하는 회의감이 드는 것은 이맘때쯤 한껏 풀어진 입시생과 고시생들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일이다. 이러한 회의감을 극복하는 것은 풍자밖에 없다.

〈미륵하생경〉은 〈미륵상생경〉, 〈미륵성불경〉과 함께 '미륵삼부경'이라고 불린다. 〈미륵하생경〉에 따르면 미륵보살이 지금으로부터 56억7천만 년 뒤 성불하여 미륵부처님이 되고, 용화수 아래에서 세 번 설법하여 모든 중생을 구원하신다. 그 스케일부터가 남다른데, 용화수 아래에서 설법을 할 때마다 90억의 아라한이 생겨났다고 한다.

필자가 이 내용을 처음 읽었을 때 느낀 점은 일종의 부조리극이 주는 골계미였다. 사바세계의 교주이신 석가모니 부처님의 첫 설법에는 다섯 명의 수행자만이 깨달음을 얻었는데, 구원겁 이후에는 설법 한 번마다 90억이나 되는 중생이 깨닫는다니, 비례미가 파격적으로 해체된 듯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동국대 신공학관 전경.
사진 출처=동국대 남산학사 홈페이지

애써 힘쓴 바 허무한 일이어도
분노 대신 미학으로 웃음 짓고
그 위에 부처님 가르침 세워야

아라한이 되는 길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는 몇 차례에 걸쳐 시간과 점(漸), 돈(頓)에 대해 사색해 왔다. 본래 아라한에 이르는 길은 여러 생을 돌고 돌아 점차적·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길이었다. 정각원 계단을 오르며 계단 하나하나의 법위(法位)를 곱씹다 보면, 그 억겁의 세월이 지닌 무게감이 우리를 질식시킬 것만 같았다. 그런데 미륵부처님이 오시기만 하면 모든 사람은 아라한이 되지 않는가. 점교의 바위를 짊어진 시시포스의 일을 감당하지 않은 이들마저 말이다. 기껏 올라오는 데는 1년이 걸렸지만 내려가는 데는 30초, 말 그대로 희극 아닌가.

우리가 남산을 1년을 들여 올라왔지만 30초도 안 되어 하산하게 되는 상황, 다시 말해 미륵보살께서 도솔천으로 상생하여 성불하기까지 56억7천만 년이 걸렸는데, 하생하여 행하는 설법은 고작 세 번으로 끝나 버리는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많은 시간을 허비해 찾은 답이 사실은 별것 아니라고 느껴질 때,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떠해야 할까? 즉, 겨울의 마음은 어떠해야 할까. 사실 답은 이미 나와 있다. 희극은 희극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겨울의 마음은 풍자의 마음이어야 한다. 그래야만 다시 봄이라는 소생의 계절인 봄으로 나아갈 수 있다.

풍자의 웃음이 아니라면 남는 것은 분노뿐이다. '나는 이렇게 노력했는데 왜 어떤 이들은 노력도 없이 내가 성취한 것을 단번에 성취하는가', 혹은 '내가 대단하다고 여겼던 일이 왜 모래성처럼 부서지는가'라는 생각 속에서 우리는 성질만 부릴 수밖에 없다. 물론 그것이 당장의 스트레스를 풀어 줄 수도 있다. 그러나 분노 위에는 아무것도 세울 수 없다. 스스로를 더 깊은 분노로 침식시키는 늪 위에는 그 어떤 생산적인 건물도 지을 수 없다. 미래를 발목 잡는 것이 바로 분노다.

반대로 웃음은 지수화풍의 사대(四大)로 비유하자면 풍(風), 즉 바람이다. 한 번 너털웃음을 지어 보면 알 수 있듯, 웃음이란 깊게 내뱉는 한숨의 바람일 뿐이다.

불교의 우주관에서 수미산을 떠받치는 기초 역시 풍계다. 화가 치밀어 참을 수 없는 순간에도 한숨 내뱉는 웃음으로 분노의 늪을 말려 버려야 한다.

자신이 세울 수미산을 분노라는 늪에 빠뜨려서는 안 된다. 비록 지금까지 해 온 일이 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그 위에 무언가를 더 지어 올릴 수만 있다면 그것은 의미 있는 시행착오다. 반대로 그 의미 없음에 허우적거리며, 다시 말해 분노 속에서 웃음 한 번 지을 여유조차 없다면 과거에 얽매여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미학이라는 것은 이러한 아이러니한 상황에서 한 번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있는 힘을 키우는 학문이다. 불교의 가르침이 우리 스스로를 특별하다 여기지만 사실은 인과에 묶인 오온·십이처·십팔계의 더미일 뿐임을 일러 주더라도, 허무주의에 빠지기보다는 "아! 나라는 게 정말로 보잘 것 없구나"라고 한숨 내뱉으며 웃을 수 있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다.

이 의미 없음의 늪에서 허우적거릴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배를 타고 피안으로 건너가야 한다. '나'라는 것이 없다는 사실에 분노할 시간이 어디 있는가. 서둘러 그 다음을 계획하고 실천해야 한다. 겨울이라는 계절, 1년 동안 허비한 시간에 분노하지 말고 너털웃음 한 번 지은 뒤 빨리 새로운 봄을 맞을 준비를 하길 바란다.

1년 동안 불교미학이라는 특수한 주제에 귀한 연재 면을 내어 주신 현대불교신문, 누구보다 이 재미없는 원고를 읽어 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혹 지금까지 연재의 내용에 문제가 있었더라도 한 번 웃음 짓고 넘어가 주시길, 한마디로 혜량해 주시길 바란다. 감사합니다. 〈끝〉

〈동국대 박사〉

삼승을 닦아도 유정 건지지 않으면 대승 아니다



법공 스님의
〈지장십륜경〉 강의

㊽ 삼승 공신의 요(三乘共信의 要)

이번 이야기는 삼승(三乘: 대승·성문승·독각승)의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며, 대승에 머물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유의행품', 즉 의지함이 있는 행이 여기에서 모두 끝나며, 참회 멸죄의 중요성 및 참회의 원력과 열 가지 법의 공덕 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중생은 성질이 포악하고 말씨가 거칠며, 어리석으면서 총명하다는 교만한 마음을 품고 살생과 삿된 소견을 끊지 않는다. 남이 이익과 공경과 칭찬을 받으면 질투하고, 항상 자기의 이익, 공경, 칭찬을 추구하여 쉬지 않으며 … 자비심과 부끄러움이 없어 남을 괴롭히며, 모든 복밭의 우열을 가리기 좋아하느니라. 또 자신은 대승의 모든 행과 경계에 대하여 배우지도 닦지도 않고, 깨치지도 못했으면서 '나는 대승이다'라고 자칭한다. 그리고 다른 이를 권유하고 자기의 가르침을 따르게 하여, 명예와 이익을 구함으로써 살아가느니라. … 이같이 거짓된 중생은 하천한 사람 몸 얻기도 어려워 좋은 세계, 즉 이승의 열반도 잃겠거늘 하물며 대승을 얻을 수 있겠느냐? 나는 말하느니라. 이런 사람은 대승이라 자칭하지만, 실은 삼승 중 그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느니라.

왜냐하면, 대승이란 청정한 율의를 받들어 지니고 미묘한 선행을 닦고 행하며 … 자비를 일체 유정들에게 행하여 이익과 안락을 짓고 갖가지 액난과 생사의 고통에서 해탈시키며 자신의 안락을 돌보지 않고 유정의 안락만을 구하기에, 이런 이를 대승에 머무는 이라 하느니라.

성문승이란 모든 중생이 항상 부지런히 정진하여 바른 생각에 머물러 선정을 즐기며 오욕에 집착하지 않고, 팔법(八法: 사람의 마음을 선동하므로 팔풍이라고도 함. 이익, 손실, 칭찬, 비난, 헐뜯음, 명예, 즐거움, 괴로움)에 물들지 않고 한결같이 모든 성인의 종자에 머물기를 좋아하는 이런 모습을 갖춘 이를 성문승이라 하느니라.

선남자야, 독각승이란 어떤 이인가? 이른바 중생이 위에서 말한 성문승의 공덕을 모두 갖추고, 오취온[오온五蘊: 색·수·상·행·식]에 대하여 무상관 내지 생멸관을 가져 그곳에 편히 머물며, 연기법에 대해 모든 것은 다 멸하는 법이라고 관찰하는 이러한 모습을 갖춘 이를 독각승이라 하나, 이런 중생은 대승의 그릇이 아니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연기법을 잘 관찰하고 선정을 닦고 모든 온(5온)·처(12처)·계(18계)를 잘 관찰하여 이 십행의 유의륜(의지함이 있는 행법)을 갖추면, 훌륭한 승(乘)의 그릇을 이루어 미혹의 바다를 건너리라. 삼승·이승을 닦아도 자기만이 번뇌와 고통에서 해탈하기를 구하고 유정을 건지지 않고 습기를 버리지 않으면, 이런 사람은 모두 대승의 그릇이 아니다. … 이승을 비방하여 계율의 행을 다 버리고 구족계를 받고는 대승이라 자칭하여 나의 법 파괴하고 중생을 미혹하게 하나니, 때문에 사람 몸 받기 어려우니라. 나의 법을 따르는 성현을 괴롭히고 가사 입은 이를 꾸짖고 벌을 주고 욕하면서 가사와 바리때 등을 빼앗나니 인간과 천상세계의 길을 잃으리라. …"

2025년 을사년 한 해를 현대불교신문 독자님들과 〈지장십륜경〉 이야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장신앙'은 신라 진평왕(22, 600년) 대에 원광 스님이 '점찰보'라는 민중을 위한 수행법(점찰행법)과 경제적 기구(계 조직)로 들여온 것이며, 그 근원은 〈지장삼부경〉 중 하나인 〈점찰선악업보경〉을 응용하여 만든 것입니다.

원광 법사는 589년 중국의 진나라에 들어가는 데, 바로 이해가 수나라 통일의 해이기도 하며 그 후 10여 년을 중국에서 삼계교(지장교)의 경황을 살피게 됩니다. 그 후 삼계교의 탄압을 직면하고 돌아온 원광 법사가 '삼계교'라는 말 이외에 '지장'이라는 말도 못 꺼낸 것은, 모두 삼계교의 탄압과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불교학계에서는 아직도 삼계교나 지장 사상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두운 편입니다.

어쨌든 〈지장십륜경〉의 뒤이은 이야기는 '참회의 중요성'과 '열 가지 착한 업의 공덕' 등을 재삼 강조하며, 착하게 사는 사람의 이익과 그 복업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습니다. 끝부분은 부처님이 경전을 설하실 때 모인 이에게 가르침을 설하시고 '일체 법에 자재한 전명광의지(轉光明依止)의 순인(順忍)과 아라한을 얻었다'라고 부촉하고 계십니다.

현대불교신문 독자 여러분 모두 내년에도 〈지장십륜경〉 법력의 힘으로, 건강과 원하시는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길 간곡하게 두 손 모읍니다. 앞으로도 현대불교신문,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끝〉

〈송림사 주지〉



스님의 마지막을
여법하게 모시는 장례 서비스

대한민국 最高의 불교장례서비스
'연화회'와 '현대불교신문'이 함께 합니다.



불교를 아는 언론포교사 '현대불교신문'
- 행장 및 업적 정리, 보도자료 생산, 부고
- 추모 리플렛, 호외 발행, 언론사 응대 등
- 영결·다비식의 각종 실무 지원

믿을 수 있는 언론포교사가 전담합니다.
취득한 정보는 절대 유출되지 않습니다.

상담문의 010-4727-6065

장보배의 24번의 계절 ㉔ 동지_해인사 길을 걷다



▶한줄 요약
일 년 중 밤이 가장 긴 동지는 겨울의 맹위를 떨치지만, 동시에 낮이 길어지기 시작하는 전환의 시기이기도 하다.

가장 긴 밤은 꺼지지 않는 빛을 부른다

해가 저문다. 아니, 해가 떠오른다. 오늘, 세상에서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고 나면 다시 태양은 떠오르리라. 흔들리던 마음도, 추위와 배고픔의 나날도, 천지를 구르던 적들의 말발굽 소리도 새 아침과 함께 꿈처럼 사라지겠지.

동지(冬至)는 신비로운 시간. 오늘을 위해 우리는 잠을 멈추고, 나무와 돌과 씨앗을 고른다. 지난(至難)한 것들은 모두 어둠 속으로 모두 사라지고, 나와 당신 곁으로 오고야 말 빛의 여정을 위하여. 세상에서 가장 긴 밤을 위해.


가야산 법보종찰 해인사. 장경판전을 향해 오르는 사람들이 보인다.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고려 〈팔만대장경〉은 해인사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하고 있다.


신령한 고목들이 인도하는 길 끝에 가야산 법보종찰 해인사의 문이 열린다.


매일 해인사 사시 예불과 경내에 울려 퍼지는 법고 소리가 가야산을 가득 메운다.


판전 입구인 수다라장의 연화문은 매년 춘분과 추분이면 연꽃 모양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신비로움을 더한다.


해인사 장경판전은 높낮이가 다른 전각과 문 없는 창살 등의 설계로 바람과 습기를 완벽히 스스로 조절한다.

길고 어두운 밤

누군가 세상에서 가장 길고 어두운 밤을 알고 있느냐고 묻는다면, 그 대답은 두말할 것 없이 동지(冬至)일 것이다.

동지는 말 그대로 일 년 중 가장 밤이 긴 날을 말한다. 태양이 적도 이남 23.5도의 동지선에 들어서는 때, 밤은 정점의 자리에 올라선다.

하지만 이 영광의 타이틀은 오직 단 하룻밤의 것. 지난가을 추분을 기점으로 점점 길어지던 밤은 동지에 들어서며 스스로 백기를 들고 만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길고 어두운 그 밤을 끝으로, 다시 낮이 길어지는 신비가 펼쳐지는 것이다.

지구가 존재하고 자전 운동을 멈추지 않는 한 결코 사라지지 않을 우주의 드라마. 그만큼 이 절기에는 인간이 부여한 다양한 의미가, 또 다채로운 세시풍속의 모습이 함께한다.

옛사람들은 태양이 부활하는 동지를 설에 버금간다는 의미의 '아세(亞歲)' 또는 '작은 설'이라 불러왔다. 이러한 모습은 서구권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아, 고대부터 이어진 태양 숭배 문화는 오늘날까지 이 겨울을 밝히는 것이다.

과거 아리아(고대 페르시아 제국)에서는 동지를 맞아 12월 25일마다 태양신 미트라(Mitra)의 부활을 기리는 축제를 열었다. 이 태양 숭배 문화는 로마로 흘러가 완전히 토착화됐고,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하며 미트라 축일을 예수 탄생일로 선포한 것이다. 본래 4세기 무렵에는 예수 탄생일을 1월 6일경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았지만, 부활하는 태양과 예수 탄생일이 결합한 이날은 오늘날 크리스마스의 기원으로 자리 잡게 됐다.

빛을 관장하고 인류의 문명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친 태양의 힘. 어쩌면 이 길고 어두운 밤은 태양을 가장 빛나게 하는 역설의 조력자인지도 모를 일이다.

빛의 씨앗

비록 낮이 점점 더 길어진다고 하지만, '겨울에 이르다'라는 동지의 뜻처럼 겨울은 이 절기와 함께 본격적인 맹위를 떨친다. 이즈음 혹한으로 인한 전염병, 기아와 같은 고비는 동서양을 막론한 공통의 난제였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기약 없는 고통의 원인과 희망을 보다 초월적인 세계에서 찾아냈다.

과거 이집트에서는 동지와 함께 태양신이 힘을 회복한다고 믿으며 푸른 야자나무 가지를 집 안에 장식해 두었다. 또 로마와 북유럽에서는 같은 의미로 상록수 가지를 장식했던 것. 한겨울에도 푸른 생명력을 잃지 않는 나무가 밤의 악령을 퇴치하고, 사람들을 지켜 준다고 말이다. 먼 나라의 그네들에게 푸른 잎의 성스러운 나무가 있다면, 우리에게는 긴긴 동지 밤을 밝혀 줄 붉은 등불이 있다. 그것은 바로 '팥'.

태양이 밤으로부터 완전히 권력을 이양받기 전, 동지 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음(陰)의 세계와 한판 힘겨루기를 한다. 이때 가장 큰 구원 투수가 돼 주는 것이 바로 붉디붉은 팥알이다.

중국의 〈형초세시기〉에서 동지는 전염병의 경보가 울리는 위험한 시기다. 중국 고사 속 인물인 공공씨(共工氏)의 망나니 아들이 동지에 죽어 역귀(전염병을 옮기는 귀신)가 됐는데, 그가 생전에 몹시 싫어한 팥으로 죽을 쒀 쫓아냈다는 것이다. 이후 동짓날이나 생일, 이사 날 같은 때마다 팥은 역병과 삿된 기운을 몰아내는 벽사의식(辟邪儀式)의 주인공이 돼 왔다.

동지에 팥죽이나 팥떡을 준비해 나눠 먹고, 집 안팎으로 고수레를 하는 것. 우물에 팥을 넣으면 물이 맑아지고 질병이 없어진다거나, 잡귀를 내쫓기 위해 상가(喪家)에 팥죽을 쒀 부조하던 옛 풍습은 이 작고 야무진 팥알 하나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전폭적인 것이었는지를 보여 준다.

역귀가 팥을 싫어한다는 것은 아득한 전설. 하지만 팥이 빛으로 가득한 귀한 씨앗임은 분명한 일이다. 6~7월 첫 파종을 해 한여름 태양을 온몸으로 받아 내며 성장하는 곡식. 인간이라면 단 몇 시간도 견디지 못할 그 뜨거움을 손톱보다 작은 씨앗이 견디며 새 생명을 틔워 낸다. 그 강인한 힘을 농축시킨 검붉은 팥을 옛사람들이 귀히 여긴 것은 당연한 일이리라.

빛의 한 글자

경남 합천군 가야면 가야산. 웅대하게 펼쳐진 민족의 영산(靈山)의 품에 한 천년고찰이 있다. 서늘하리만치 청정한 기운이 감도는 숲길, 수령을 알 수 없는 신령한 고목들이 인도하는 그 길 끝에 법보종찰 해인사가 있다.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모셔진 불보사찰 양산 통도사, 한국불교의 승맥(僧脈)을 잇는 승보사찰 순천 송광사.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새긴 〈팔만대장경〉이 모셔진 이곳 법보종찰 해인사를 한국의 삼보 사찰이라 칭한다.

해인사 성보박물관에만 세 개의 국보와 9천여 점의 문화재가 있다는 이 산은 말 그대로 살아 있는 보물 창고. 하지만 해인사를 법보사찰로 여기는 이유는 바로 〈고려대장경〉이다.

불법의 힘을 빌려 거란의 침입을 막고자 했던 고려의 사람들. 하지만 고려 현종 때부터 문종 대에 걸쳐 완성한 〈초조대장경〉이 고종 19년(1232년) 몽골군의 침입으로 불타자, 고려인들은 다시 한번 16년에 걸친 각고의 노력 끝에 〈팔만대장경〉을 완성했다.

새로 조성된 대장경은 왕실부터 귀족, 평범한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고려인 모두가 힘을 모은 범국가적 사업이었다. 그 결과 오늘날 전 세계에 현존하는 경판 중 가장 완벽한 대장경판이 이 땅에 남은 것이다. 어디 그뿐인가. 대장경을 보호하기 위해 세워진, 현대에도 감히 재현하기 어렵다는 저 바람의 판전(版殿)까지도.

이 위대한 작업의 작은 틈새마다 고려인의 마음이 머물지 않은 곳이 없다. 무모하리만치 간절했던 그들의 기원과 희망은 끝내 이뤄진 셈이다. 비록 고려의 이름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이 땅과 사람들은 지켜져 그들이 남긴 시대의 역작과 함께 세상을 밝힌다.

완성한 경판의 수는 총 8만1258매, 팔만사천 중생의 번뇌에 대치하는 팔만사천법문을 수록했다 하여 '팔만대장경'이라고 부르는 보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로 정수한 글자 '마음[心]'. 그 한 글자 안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빛이 머문다.

함께 이겨 내는 겨울

훈기 오른 동지 팥죽은 보이지 않는 역귀를 쫓지만, 아직 남은 겨울은 더욱 길고 무섭다. 하지만 사람들은 가장 아름답고도 강력한 묘수를 내어 고난의 시절을 이겨 내지 않았던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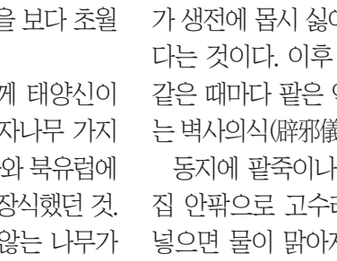
동지를 잇는 다음 절기는 소한. 오래전 다산 정약용은 가혹해지는 이 계절의 백성들을 걱정하며 '소한이 오면 가장 가난한 이들을 먼저 구휼하라'는 뜻을 〈목민심서〉에 전했다. "유리걸식하는 자들도 백성이다"라고 외친 그와 천심(天心) 같은 민중의 뜻은 하나로 흘렀으리라.

가난하고 냉혹한 계절을 이기는 방법은 다시 돌아올 빛의 시간을 믿는 것. 그리고 보리심과 자비행으로 공생의 길을 열어 혹독한 시간을 끝내 함께 이겨 내는 것뿐이다.

지구에서 태양까지 1억5천만 킬로미터, 영겁 같은 그 길을 달려온 빛을 자그마한 팥알 하나가 모두 품는다. 팔만사천의 고뇌도, 그 모든 것을 이겨 낼 힘도 다 가진 우리의 마음이 있다. 그러니 이 길고 어두운 밤도, 지난한 겨울도 두렵지만은 않은 것. 마침내 밤은 저물고 새로운 해가 떠오른다. 〈끝〉 〈작가〉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5,000원
가루자죽염 230g 82,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50,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

체질 개선과 건강 회복을 위한 합리적 조건
당신의 날씬한 건강이 시작되는 곳
'초록원웰빙'
since 1984
프리미엄 효소 제품과 다이어트 제품을 만나보세요



NAVER 초록원웰빙 검색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만나요
강남점 (도곡동 467-24)


김영숙 대표

02-578-1708 / 010-7384-1708



대행 스님

한 점의 마음이 이 우주를 삼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음공부에 진전이 없어요

질문 마음공부를 하면서 조금씩이라도 달라지고 싶은데 진전이 없어 답답합니다. 한 단계씩 좀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나가면서 마음공부 하는 것이 공부 같지도 않고 뭐, 헬렐레하게 생각되기도 할 거예요. 요건 요렇고 요건 요렇고, 요렇게 배우면서 한 계단 한 계단 이름을 가지고서 이렇게 해 나아가야 공부하는 것 같죠? 그런데 우리는요, '사방이 다 터져서 밟을 계단이 없다. 마음은 체가 없는 거니까 강을 건너가려면 강을 건너가고, 또는 산을 넘으려면 산을 넘고, 또 손을 잡아 주려면 잡아주고 마음대로 해라. 마음대로 하되,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나쁘고 좋은 거는 알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나쁘고 좋은 거를 알면 그 나쁜 것은 좀 제껴 놓고 좋은 생각으로 더불어 같이,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그 마음으로, 나쁜 사람이라고 버리지 말고 그것도 한데 넣어서 그냥 좀 탁탁 뛰어 봐라.' 이거죠.

그러니까 한 발로 뛰어 봐라 이거예요. 아, '한 발로, 한 손가락으로 버텨서 하늘을 받칠 수도 있다'고 그랬는데, 항상 여러분 한테 '체는 공했다. 체는 고정됨이 없어서 항상 보고 듣는 것도 다 고정된 게 없고, 그러니까 바람처럼 날아간다. 우리 인생은 구름처럼 둥둥 떠서 가는 도중이다. 우리 구름이 스러져 버리면….' 하는 얘기나 또 막이 내리면 그뿐이라고 하는 탤런트 얘기, 뭐, 별소리 다 해 가면서, 손짓 발짓 다 해 가면서 여러분과 더불어 같이한 것은 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둘 아닌 일대사의 인연을 맺으셨다고 했습니다. 둘 아닌 일대사라면 전체를 말합니다. 요 벌레 한 마리라도 내 몸 아님이 없고 내 모습 아님이 없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리 아님이 없고, 내 삶 아님이 없고' 이랬으니까 '과거 미래 현재도 없고, 그냥 그대로 여여하고 그대로 우리가 둘이 아니다' 하는 이런 인연을 맺으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냥 무조건, 예를 들어서 나쁘게 사는 게 아니니까, 만약에 수백 명을 건질 수 있다면 그냥 점프해라 이거야. 그런데 용기가 없죠, 패기가 없죠, 관습이 많죠, 욕심이 있죠, 습관이 있죠. 그러니까 그냥 거기 말려서 뛰어나가려 해도 뛰어나갈 수가 없어요, 마음이 말입니다. 마음을 마음대로 쓰라고 마음이라고 그랬는데 마음대로 쓰지를 못해요, 마음을 가지고도.

어떤 사람 집에 아침에 도둑이 들었는데 전부 죽을 뻔했다고, 그래서 친정에 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공부 하는 사람 같으면 항시 울타리를 쳐 놓고 산단 말입니다. 지금 시대가 좀 문제가 많으니까, 우선 만나면 죽지는 않겠지만 내가 놀라니까, 모두 그저 놀라지 않게, 무섭지 않게, 둘이 아니게 이렇게 울타리를 쳐 놓으면 들어올 사람이 없거든. 그런데 미리미리 그렇게 마음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를 왜 그렇게 못 하느냐 말입니다.

지금 지구 대기권에서 이렇게 망이 쳐져 있는 거는 법망이란 말입니다, 법망! 우리 몸에도 법망이 있어요. 즉 말하자면 이 세포가 법망이죠. 이 법망이 없으면 온갖 곳에서 들어와서 이거 못 삽니다. 세균성도 들어오고 영계성도 들어오고 유전성도 들어오고 전부 끼어들어 가지고…. 그래서 법망이 있어서 잘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나가지도 못하게 하지요. 이 속에서 만약에 양 개체가 대립해서 싸우면 이 집만 무너지게 돼 있어요. 집만 무너지고 그놈들도 다 죽게 돼 있죠. 그러면 똑같이 또 인연이 돼서 또, 또, 또 간단 말입니다. 뭘로 태어나든지 또 똑같이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천 년이 갈는지 수천 년이 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이거를 다 벗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실천을 해서, 그저 알든지 모르든지, 내가 힘이 없다, 있다 이거를 논의하지 말고, 그저 모르는 머슴아이가 왜, 물 땅땅 치고 그냥 막 개구장이처럼 놀듯이 그냥 점프해서 올라가서 해결을 하고 이래라 이겁니다. 그게 뭘 내가 할 줄 모르고 알고가 없어요. 자불은 본래 있는 겁니다. 자신의 불성이 본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항상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본래 불성이 있기 때문에 여여한 줄 알고, 본래 불성이 있기 때문에 갖추어 가지고 있는 줄 알고, 본래 불성이 있기 때문에 만법을 들이고 내고 자유자재할 수 있다. 본래 불성이 있으니까 찾을 필요도 없다. 있는 것만 믿으면 된다. 저 나무가 자기 뿌리 있는 걸 믿고 그냥 살듯이,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게 없다면 내가 이렇게 말을 하고 움죽거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답답한 심정이지만 나도 겉더껑이로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심정을 알아주세요.

그러니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진실하게 가지세요. 살기 위해서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죽은 세상 산 세상을 왕래할 수도 있고 점프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계단을 밟아서 꼭 그냥 낑낑거리고 올라오려고만 하지, 왜 그냥 뛸 줄은 모르느냐 이거죠. 어차피 체가 없는 나가 체가 있는 나를 형성시켜서 자기 집을 삼아서 이렇게 다니는데 왜 그걸 믿지 못하고, 주인을 믿지 못하고 그렇게 그럽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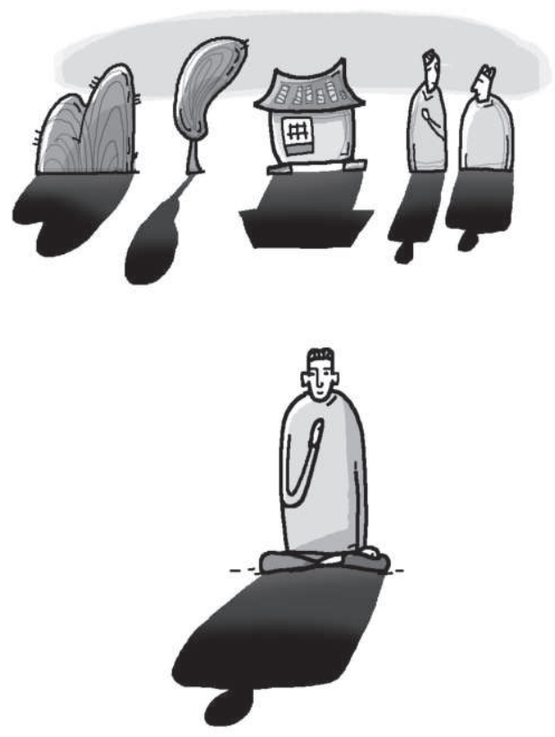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의정이 생기지 않을 때는

질문 마음공부를 하면서 마음이 많이 편해짐을 느낍니다. 이 몸을 벗을 때도 내가 가고 싶을 때 자유롭게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몸 벗기 전에 한번 용맹정진을 해 보고 싶은데 별 의정이 생기질 않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정진해 나가야 하는지요.

답변 자기가 서서 죽든지 앉아 죽든지 누워서 죽든지 자기 마음대로겠죠. 옷 벗는 것도, 내가 전에 그랬죠. 이 업을 모두 녹이지 못하고 그 애고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콩이 익지 못한 콩깍지와 같다. 익지 못한 콩깍지는 까도 속껍질이 찰싹 붙어서 떨어지질 않습니다. 그게 까도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아파서 질질 매고 그냥 죽네 사네 하고 온통 남을 괴롭히고 이런 거와 같습니다, 표현을 하자면. 그러나 콩이 잘 익은 것은 탁 건드리기만 해도 콩이 그냥 싹 나옵니다. 그와 같다 이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건 늙었는데 뭐, 내가 이런 공부는 해 뭘 해?' 하는데 바쁘게 돌아가니까 젊어서 또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

☞ 20면으로 계속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각본대로 나오는 모든 걸 나온 자리에 다시 맡겨 놓아라

☞ 19면에서 계속

까? 젊은 사람보다 외려 더 쉽게 젊어질 거니까 빨리 해야죠. 그러니 노인네든 젊은이든 애든 어른이든 남녀를 막론해 놓고 이 도리를 알아서 벗어나야만이 우리가 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 도는 애고 속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가만히 보면요, 스님네들이 그 도리를 몰라서, 생각하면서 뛰고 뛰면서 생각하는 도리를 몰라서 말입니다, 스님은 이렇게 그냥 가만히 앉아서만 이 있는 것이 스님인 줄 알고 그렇게 돌아간단 말입니다. 그냥 만들어 가지고선 의정을 내는 거예요. 만들어 가지고 의정을 낸다면 그건 의정이 의정이 아니죠. 스스로서 의정이 나야지 그게 진짜 의정이죠. 이런 것은 어디서 왔을까? 이 화나는 것은 어디서 왔을까? 또는 즐겁게 생각이 나는 건 또 어디서 올까? 자기가 스스로 의정이 나야만 의정이지 이거를 만들어 가지고, 아는 것도 일부러 만들어 가지고 의정을 내는 건 의정이 아닙니다. 이 모두가 사람이 생각하면서 뛰고 뛰면서 생각하고, 부지런히 마음의 계발을 해서 이렇게 해야만이 우리 스님네들이나 여러분이나 다 같이 그 공덕의 의미를 세밀히 알고 실천을 하는 데 조금도 어색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애고가 있고 병고가 있다고 해서 금방 그것만 애원하지 말고, '그것이 바로 공부할 수 있는 재료다.' 이렇게 생각을 돌려서 하셔야 합니다. 그냥 그것만 앞장세우고 그냥 애탄지탄하지 마시고 '야, 이런 수확이 어딨어? 이런 게 닥쳤기 때문에 내가 공부할 수 있다. 그리고 실험을 해서 체험을 하겠다.' 한다면 고도 고가 아니에요.

어디 길을 걷다가 지루할 때 말입니다, 혹은 차를 타고 가다가도 그 차가 밀려서 지루하게 쉴 때가 있죠? 그럴 때도 어떠한 좋은 생각을 해서 생각을 할 때는 그 차가 쉬는지 안 쉬는지도 몰라요. 길을 걸을 때도 지루하지도 않고요. 그런데 그냥 멀건히 있으면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그게. 가고 옴이 없이 마음이 가고 오고 뛰는데 뭐가 지루합니까? 그렇다고 그냥 별거 아닌 거를 그냥 꼬투리를 잡아서 자꾸 망상이라고 하지 말고 모조리 다가오는 대로 거기다 놓고 신선한 생각을 한번 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아주 남이 안 하는 신성한 생각 말입니다. 그래야 발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모든 애고 병고, 유전성 영계성 세균성, 어떠한 문제가 닥친다 하더라도 '흥!' 하고 코웃음 탁 치고 웃을 수 있는 그런 물러서지 않는 믿음이 돼야 되겠죠. 어떠한 게 닥치든 '허, 이게 공부할 수 있는 재료가 또 생겼네. 네가 그렇게 공부하라고 내놓은 거니까 그렇게 아프지 않고 어떠한 고가 닥치지 않게 하는 것도 너 아니야. 체험하게 하는 것도 너고.' 이렇게 모든 것을 타파하고 넘어갈 수 있는 재료로 알고 공부 열심히 해 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의정이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어나는 마음 때문에 힘들어요

질문 한동안 아이들 키우는 낙으로 살았는데 요즘은 아이들이 자꾸 제 뜻을 거스르고 제 뜻대로만 하려 하니 마음이 일어나서 너무 힘이 듭니다. 가장 가깝게 여기는 가족에게서 상처받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이 마음을 다잡을 수 있게 한 말씀 일러 주십시오.

답변 그 마음이 어디서부터 좇아 나오느냐 하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에 의해서 마음은 바로 수천수만 가지로 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수천수만 가지의 마음을 낼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바로 차원이 높아질 수도 있고 차원이 낮아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업보도 윤회도 인과응보도 거기서 모두 가져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날까지 수억겁 광년을 거쳐 오면서 그렇게 쫓고 쫓기면서 그 치열한 싸움에, 치열한 개발에, 치열한 진리에 의해서 인간인 고등 동물로 오기까지 얼마나 치열한 피를 흘렸겠습니까?

그런 반면에 우리는 그 잠재의식 속에, 카세트라고 표현합시다. 잠재의식 속의 그 카세트에 수억겁에 거쳐서 감기고 감기고 또 감기고, 그 얽히고설키고 한 업보와 또는 인과응보와 유전성과 모든 것이 거기 감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자 운명은 여러분이 해 놓고 받는 거지 누가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뺏어 가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한 것만치입니다. 그렇다면 그 업보에 의해서 또는 인과응보, 유전성에 의해서 병고도 가난도 모두 거기서 각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연예인들이 감독한테 대사나 모든 걸 받아서 각본대로 영화를 하듯이 말입니다.

그런다면 그 잠재의식 속에 얽히고설킨 그 자체를, 일차적으로는 그 모든 걸 녹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녹일 때에 어떤 사람은 '그 모든 망상을 끊어라.' 이럽니다. 어떻게 끊어집니까, 그게? 끊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즉 말하자면 바로 인과의 줄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줄이 끊어지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그 망상이 있기 때문에 부처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망상은 끊는 게 아니라 녹이는 겁니다. 녹이는 게 아니라 둘이 아님을 알게 끔 해 주는 것이 바로 녹이는 겁니다. 우리가 그 습을, 그 살아나오던 악하고 선한 습을, 거기서 각본대로 나오는 모든 걸 그 자리에다 다시 놓는다면, 맡겨 놓는다면 그대로 녹아 버리는 겁니다.

> 여러분이 구덩이에 빠지느냐 안 빠지느냐도
> 한 점의 마음에 달려 있으니
> 이 생각 하나를 귀중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러니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모든 것은 주인공 자리에서, 잘못된 것도 거기에서 나를 다지고 테스트하기 위해서 나에게 잘못된 거를 주는 것이다.' 하고 맡겨 놓으면 그건 스스로 잘됩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생활에서 실천해 보신다면 그것이 납득이 될 겁니다. 이건 거짓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 몸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간이나 위나 심장이나 콩팥이나 대장 소장이나 이자나 방광이나 어느 부분을 막론해 놓고 모든 생명들이 일차 이차 삼차 사차 오차까지, 뼈의 세포까지 생명체들이 전부 얼개미 같은 그런 법망을 쫓아다니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행하는 그 생명들은 어디를 따르느냐? 내 한 생각에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은 옛날의 태초의 내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마음의 그 뜻, 한 점의 마음은 이 우주를 삼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이 여러분에게 모두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생각에 의해서 주인공에 감사하게 맡겨 놓고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것대로 되게 하느라고, 이렇게 다지기 위해서, 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끌고 가는구나 하고 참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능력을 기르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 축이라는 게 있습니다, 축. 우주의 축이 있는가 하면 인간의 축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에서부터, 이 축에서부터 오관을 통해서 정신으로 가서 이 전체의 몸을 통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한 점, 그 한 점에 달렸습니다. 여러분이 구덩이에 빠지느냐 안 빠지느냐도 한 점 마음에 달려 있으니 이 생각 하나를 귀중하게 생각하십시오. 아무렇게나 생각해서 아무렇게나 던지고 자식들한테도 아무렇게나 욕을 하거나 부부지간에도 아무렇게나, 조금만 잘못해도 "저런 도둑놈 같으니…." 아, 이렇게 말을 마구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 생각,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사람에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금방 그 자리에서 닥치진 않아도 그냥 그대로 닥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한생각이 내 몸을 끌고 가는 데 역점이 되고 또는 운전수가 되고 또는 사공이 된다는 얘기죠. 나침반도 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축이 모든 거를 행해 나가는 데 용광로와 같다 이겁니다. 용광로와 같아서 잘못된 거, 잘된 거 모든 거를 거기다 맡겨 놓으면 그냥 녹아 버립니다. 이런 인연줄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 열치열과 같이 뜨거운 물은 뜨거운 물이 녹인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자기가 죄업을 지은 거는 스스로서 그것을 녹여야지, 강제성을 띠어서 녹이는 것도 아니고, 칼로 끊어서 끊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일차적으로 내 몸 하나 건강하게 끌고 다닐 수 있는 여건을 갖는다면 바로 가정을 끌고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건 왜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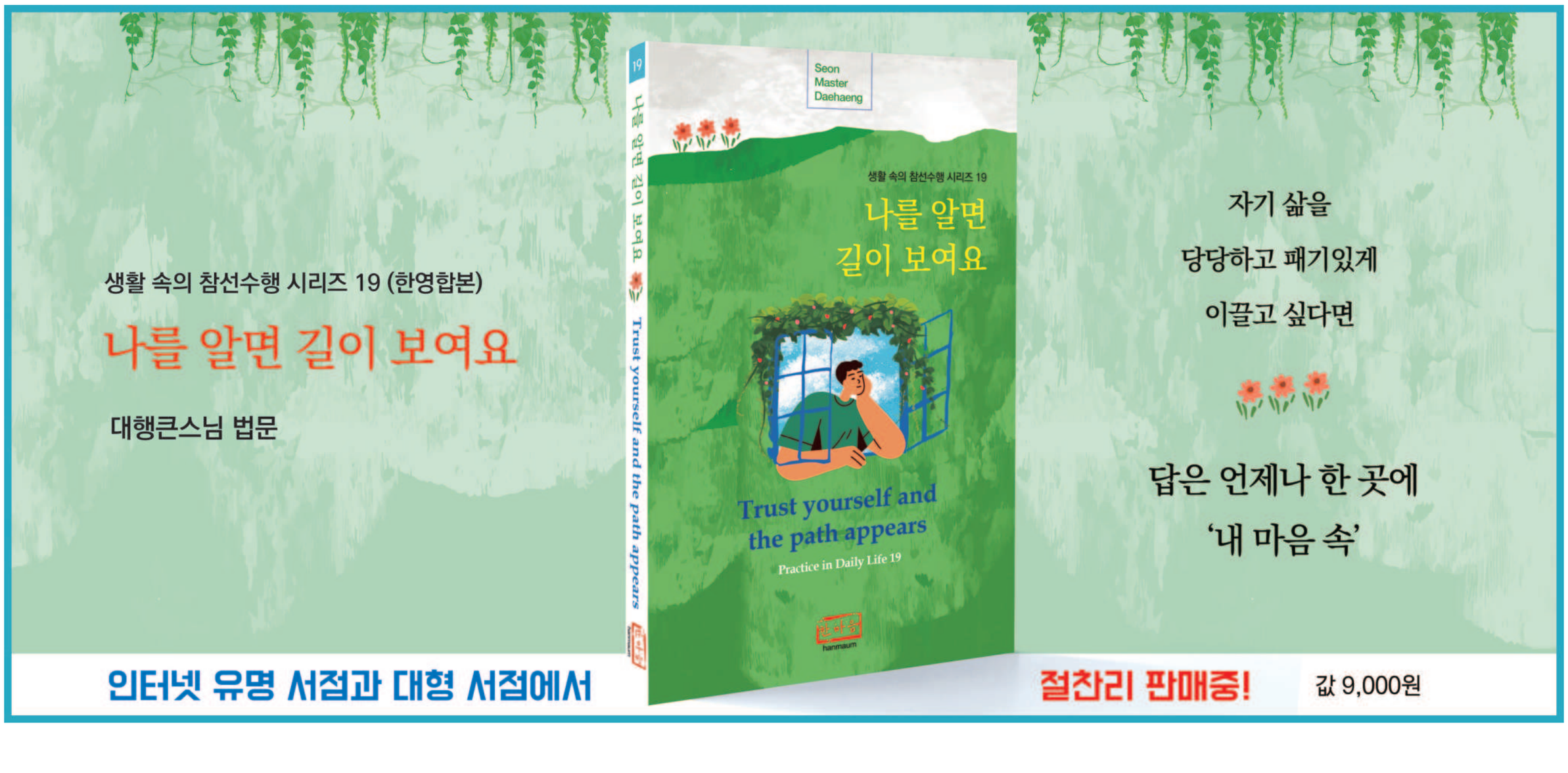
아주 오래 전 일입니다만 어느 신도가 정성을 보름 동안 남편이 승진을 하게 하려고 정성을 지극히 들였는데 말입니다, 끄트머리에 뭐가 나왔냐 하면 승진이 안 되고선 좌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도가 그냥 울고불고 그래서 찾아왔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 것도 법, 되는 것도 법이야." 그렇게 인제 쫓아 보냈죠. 그런데 서너 달 만에 와서는 또 "참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남편 대신 다른 사람이 승진이 돼 가지고 월남에 갔다가 해골로 왔다 이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뒤에 남편이 다시 승진을 했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선 울기에 "그것 봐." 그러고선 난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 사람이 지내 보고 겪어 보고, 자기가 걸어 봐야 알아요, 모든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집념 있고 좀 인내 있게 기다리면서 지켜보면서 연구하면서 발전하면서 나가야지 그냥 절이나 하고 그냥 갖다 기도나 하고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꿈을 꾸고 마음이 안 좋을 때는

질문 며칠 전 아주 기분이 안 좋은 꿈을 꾸었는데 아직도 마음에 걸립니다. 이러럴 때 마음을 어떻게 놓아야 하는 것인지요.

답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항상 말하지만 "꿈을 꾸거나 이렇게 살아가면서 누구의 얘기를 듣거나 이래도 나쁘게 생각하지 마라. 잘되는 거 못되는 걸 떠나서 내가 주장하는 생각으로 그냥 나가면 그게 법이다." 이럽니다. 남이 잘됐다거나 못됐다거나 너는 나쁘다 너는 좋다 이런 걸 다 떨쳐 버리고 망상에 그냥 개입하지 말고 내가 주장하는 대로, 꿈을 꿔서 나쁜 생각이 들어가더라도 주인공에 맡기고 '야! 나쁜 생각이 왜 들어? 내가 모두 좋게 생각을 하면 좋게 돌아지는데!' 하고선 좋은 생각을 해서 거기 탁 맡겨 놓으면 좋게 그냥 돌아가는데, '아이고, 이거 이렇게 되면 이거 어쩌나.' 하곤 그냥 그럭하면 고렇게 일이 돌아옵니다. 돌아와 닥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생각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단 얘깁니다. 그러니 두려워 마시고 그냥 한생각 좋게 돌려놓으세요.





강소연의
수행 다이어리
㉔ 붓다 수행법의 요체

지+비, 통찰과 사랑
〈智〉 〈悲〉

사마타 수행[정定]의 요지는 '집중의 유지'이고, 위빠사나 수행[혜慧]의 요지는 '알아차림의 유지'이다. '정'을 통해 고요함을 획득하고, '혜'를 통해 대상을 꿰뚫는다. 계속 움직이는 총부리를 고정시키고[정] 총알을 발사해[혜], 과녁(대상)을 정확히 박살 낸다.

'하나하나 나누어' 통찰하기

사마타 수행을 통해 '나'로부터의 '덩어리' 째 분리를 체험할 수 있다면, 위빠사나 수행은 일상생활 중에 '나'라는 착각을 상속시키는 '요소요소들'로부터의 분리다. 매 순간 '나'라는 착각을 일으키는 '요소들의 작용'으로부터 그것을 하나하나 떼어 내는 작업이다. 그 방법에 대해 석가모니 붓다께서는 〈불타오름경〉, 〈짓눌림경〉, 〈아나타삔디까경〉 등에서 같은 말씀을 누차 반복하신다.

"비구들이여, 눈[안眼]이 불타고 있다. 눈에 보이는 빛깔과 형상[색色]이 불타고 있다. 눈의 알음알이[안식眼識]가 불타고 있다. 눈과 대상의 접촉[촉觸]이 불타고 있다. 눈과 대상의 접촉에서 생기는 즐겁거나 괴롭거나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들[수受]이 불타고 있다.(〈불타오름경〉 중에서)" 귀, 코, 혀, 몸, 마노[의意]에 대해서도 각기 같은 문맥의 내용이 적용된다. "그러면 무엇에 의해 불타오르는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불타오르고 있다"며 탐·진·치의 갈애와 집착을 장작 삼아, 이러한 상속이 이어짐을 말하고 있다. 즉, 세상을 인식하는 주체라고 착각한 '나'의 실체와 작용을 '하나하나 나누어서 제대로 보라'고 안내하신다.

〈짓눌림경〉에도 눈·귀·코·혀·몸·마노와 그것이 만드는 조건에 중생은 항상 짓눌려 있음을 말하고 있다. "마노[의]는 짓눌려 있다. (마노의 대상인) 법은 짓눌려 있다. 마노의 알음알이[의식]는 짓눌려 있다. 마노의 감각 접촉[촉]은 짓눌려 있다. 마노의 감각 접촉을 조건으로 하여 일어나는 즐겁거나 괴롭거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수]은 짓눌려 있다." 현상이 조건 지어져서 타오를 때마다 알아차림을 통해 그것으로부터 분리돼 해탈을 맛보라는 말씀이시다. 〈아나타삔디까경〉에는 사대(四大)가 흩어지는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임종 직전의 아나타삔디까(급고독) 장자에게 "6근·6경·6촉·6식·6느낌·6계·6처 등에 취착하지 않으리라"라는 가르침으로 그를 평온한 죽음으로 인도하는 말씀이 적혀 있다. 날카로운 반야[혜]의 힘을 일으켜 반응하는 대상을 하나하나 분해해 통찰한다. 그러면 매 단계마다 들러붙는 취착이 소멸돼 더 이상 업력이 진행되지 않고 멈추게 된다. 이렇게 보지 않는 한 부지불식간에 전개돼 버리는 무명과 고통의 업력을 이길 수는 없다.


'자애'는 나와 남을 보호하는 최고의 무기이다. ©강소연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자애의 힘

"우리는 항상 어머니의 사랑을 갈구하는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틱낫한 스님은 말씀하신 바 있다. 우리는 평생을 (외부로부터의) 사랑과 관심과 인정에 허덕인다. 하지만 수행 중에 만나는 빛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사랑을 말해 준다. 어떤 판단과 분별도 없이 그저 비추기만 하는 지고지순한 빛! 그 빛 속에서 우리는 저열한 사랑과 관심에의 허덕임에서 놓여난다. 수행을 하든 하지 않든, 깨어 있든 잠자고 있든, 몸이 있든 없든 간에, 그 빛은 항상 그렇게 세상 만물을 (일체의 반응 없이) 여여(如如)하게 비추고 있다.

석가모니 붓다께서는 세상(나와 남)에 대한 혐오와 악의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애'를 강조하셨다. 〈자애경〉의 핵심은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이다. 이에 "자비의 염을 놓치지 않도록 전심전력하라"라고 한다. 물론 '모든 중생'에는 누구보다도 먼저 자기 자신이 포함된다.

"그대들 자애가 함께한 마음으로, 연민이 함께한 마음으로, 더불어 기뻐함이 함께한 마음으로, 평온이 함께한 마음으로 〈중략〉 네 방향을 가득 채우면서 머물러라. 이와 같이 위로 아래로 주위로 모든 곳에서 모두를 자신처럼 여기고, 충만하고 광대하고 무량하고 원한 없고 악의 없고 평온이 함께한 마음으로 모든 세상을 가득 채우고 머물러라"라고 설하시고, 이것이 "깨달음의 요소"가 된다고 하셨다. 즉, '자애, 연민, 더불어 기뻐함, 평온[자비희사慈悲喜捨]'과 함께하는 '알아차림'으로 정진하라고 하신다. 2026년 새해에는 자비희사와 더불어 쇠심줄 같은 알아차림의 확립으로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발원하며, 본 연재를 마친다. 〈끝〉

〈중앙승가대 교수〉

동네약국 사용설명서
㉔ 나만의 단골약국을 찾는 방법

'내 몸' 제대로 대화할 약국 찾으라

찬 바람이 싸늘하게 귓불을 스친다. 날씨가 꽤 추워졌고 이제 2025년 한 해를 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다. 15년 가까이 약국을 운영해 온 필자가 1년에 걸쳐 여러분에게 약국에 대한 오해를 풀고 약국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동네약국 사용설명서를 알려 드렸다. 그렇지만 사실은 아직도 전하지 못한 말이 약국 창고 구석 악성 재고처럼 쌓여 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내용을 알려 드리겠다. 제대로 된 동네약국을 선택하는 방법이다.

첫 번째, 복약지도를 제대로 하는 약국을 찾아라. 처방전을 약국에 제출하고 약을 조제 받을 때나 일반의약품을 구매할 때 약사에게 듣는 복약지도는 약사가 수행해야 하는 중요한 업무 중 하나다. 약 복용 시 주의할 점이나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그 부작용을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 주는 것이 복약지도의 기본 중 기본이다. 그런 설명 없이 식후 30분에 드시라고 말하며 뒤돌아서는 약사가 있는 곳이라면 안 봐도 뻔한 약국이다.

좋은 약국을 구분할 수 있는 팁을 한 가지 더 알려 드리자면, 간단한 질문을 하나 던져 보는 것이다. "이 약을 먹으면서 불편할 수 있는 점이 있나요?" 혹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약이나 특별히 주의해야 할 음식이 있나요?"와 같은 평범한 질문들 말이다.

고객이 먼저 질문을 했는데 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거나 얼버무리는 약사라면 속세에 찌들어 약사의 본문을 잊었거나 약사 자격증에 대한 자각이 부족한 사람이니 상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 약사 본인이 매일 짓고 복약하는 약에 대한 질문조차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하는 약사에게 건강 상담을 받고 싶은 사람은 단연코 없을 것이다.

복약지도를 듣는 시간은 약사와 1:1로 온전히 대화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다. 그러니 제발 그 시간을 완연히 즐기고 동네약국의 옥석을 가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자.

두 번째, 고객 관리와 메모를 하는 약국을 찾아라. "혈압약 한 달분 나왔습니다. 아침에 매일 챙겨 드세요"라고 하는 약국이 있다.

"어? 이번에는 혈압약 용량이 늘었네요? 혈압 조절이 잘 안 되셨어요? 혹시 최근에 특별히 스트레스가 심한 일이 있으셨다거나, 건강관리에 소홀하셨던 부분이 있으셨어요? 지난번에 혈압약 받으면서 함께 구매하셨던 코엔자임 Q10 영양제는 꾸준히 드시고 계세요?"라고 묻는 약국이 있다.

두 약국의 차이는 오직 고객에 대한 메모와 지속적인 관리 여부 정도일 것이다. 물론 이 일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드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고객에 대해 메모하고 관리하는

부작용 · 주의사항 등 복약지도
약력 잘 관리되는 약국이어야
자신만의 소중한 단골약국 찾길

약국은 복약지도와 상담 내용이 풍성해질 수밖에 없다. 내가 꾸준히 가는 약국이 있다면 내 약력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세 번째, 항상 자리를 지키는 약사가 있는 약국을 선택하라. 약국에 대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는 약국장이 항상 자리를 지키고 있는 약국에서 상담받는 것이 좋다. 조금 바쁜 약국에는 근무 약사와 국장이 함께 있기 마련인데, 약국 근무 약사의 평균 근속연수는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체감상으로 2년 미만이다. 그만큼 다음에 왔을 때 그 자리에 없을 확률이 높다는 뜻이다.

그리고 약국의 복약지도 스타일이나 일반의약품, 영양제의 구색은 국장의 의지를 그대로 반영한다. 그 제품의 특징과 의도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은 약국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고 약국을 가장 사랑하는 국장일지니, 단골 약국을 정해 건강 상담을 받고자 한다면 약국장과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좋다.

국장이 아닌 근무 약사가 너무 친절하고 상담을 잘해서 좋다면 근무 약사님의 단골이 돼도 좋다. 그 근무 약사님도 언젠가 약국을 개국할 것이니 좋은 약사님들 만났다면 놓치지 말자.

"모든 것은 나로부터 나아가 나에게 돌아온다."

어떤 약국을 고르는지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본인의 자세와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 나 스스로가 본인이 받아 복용하게 될 약에 관심이 없다면, 아무리 주옥같은 내용을 약사가 이야기한들 아무 소용이 없다. 핸드폰을 목에 끼고 복약대로 와서 카드를 툭 던지며 약 달라며 손가락만 까딱까딱하는 손님에게 약사가 무슨 이야기를 하겠는가!

약국에서 약사와 내가 먹을 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는 잠시 하던 일을 내려놓고, 그 순간에 집중해 경청하고 대화하자. 친구와 시시콜콜한 잡담, 핸드폰 게임의 경험치 2배 이벤트, 오르내리길 반복하는 주식 창을 하염없이 쳐다보는 것과 내 몸 상태와 건강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 중 어느 것이 더 소중한지 생각해 보자.

필자는 여러분이 동네에서 자신만의 소중한 단골약국을 찾게 되길 진심으로 소원한다. 부디 크기만 크고 가격이 싼 약국을 단골 삼지 마시고, 내 몸에 대한 대화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약국을 찾아 단골 삼는 현명한 소비자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임종섭
울산희망약국 대표약사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이야기, 바로 당신의 삶입니다"

삶은 스쳐 가는 순간들의 연속이지만, 그 안에는 잊혀서는 안 될 소중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법보신문은 스님과 불자들의 수행 여정, 지혜의 말씀, 사찰의 역사와 전통을 한 권의 책으로 담아냅니다.
당신의 삶은 누군가에게 울림이 되고, 또 다른 이에게 길이 됩니다. 기록되지 않은 기억은 사라지지만, 글로 남긴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살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스님과 불자들의 삶은 현대 불교사의 소중하고 생생한 기록입니다.
법보신문은 깊은 존경과 정성으로 당신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것이 잊히지 않고, 누군가의 마음에 깊이 머물도록. 지금, 당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세요. 당신의 삶이 곧 가장 빛나는 가르침입니다.



법보신문 다르마기록문화연구소

- 스님과 불자를 잘 아는 전문 기획사
- 불교 이해가 깊은 전문 필진 확보
- 기획부터 책자 제작까지 원스톱 시스템
- 종이·전자출판 올인원(all in one) 서비스
- 고객 수요와 주문에 맞춘 제작 시스템

법보신문 다르마기록문화연구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문의 ☎ 070-4707-4965

전법 일기

장애인은 희망의 꽃이다

사람들의 걷는 속도가 다르거나 말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 다르다고 해서 멀어져서는 안 된다. 우리는 모두 같은 길 위에 서 있고, 각자의 걸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느린 발걸음 속에도, 더듬거리며 이어지는 말 속에도, 세상을 향한 진실한 마음은 담겨 있다.

나는 상담과 법회를 통해 많은 장애인들과 함께하며 매일 아침이면 직업재활원 발달장애인들과 마주하게 된다. 출근하는 발달장애인 중 매일 법당에 올라와서 부처님께 참배하고, 온 직원들에게 인사를 마치고 업무를 시작하는 것이 습관이 된 친구들이 있다. 만일 출근 시간에 눈을 맞추지 못하면 휴식 시간에라도 찾아와서 얼굴을 마주하니 그들에게 사랑의 마음이 깊이 쌓인다.

그들은 나보다 걸음이 느릴 수 있고, 소리를 못 듣고 볼 수도 없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눈빛은 나와 다를 수 없다. 그들은 예전엔 세상의 편견과 차가운 시선에 부딪히며 상처를 입기도 했지만, 이제는 굳게 다져진 불심(佛心)으로 다시 일어나 웃음을 지으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 이들의 그 웃음 속에는 단단한 용기와 따뜻한 사랑이 담겨 있다. 그 모습은 나에게 늘 큰 울림을 준다. 장애는 결코 한 사람의 가치를 줄이지 않는다. 오히려 그 속에서 피어나는 인내와 용기, 사랑이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들고 있다.

같은 햇살 아래에서도 꽃마다 다른 색을 피워 내듯, 그들의 삶도 각자의 자리에서 고유한 빛을 내고 있다. 각자의 눈동자에 담긴 세상은 내가 아직 보지 못한 한 송이 진리일 수 있다. 조용히 멈춰 선 그 자리에는 내가 알아채지 못한 연꽃이 피어 있었는지도 모른다.

모든 존재는 자기 자리에서 피어나는 꽃이다. 바람이 다른 방향으로 불어도, 그대는 그대답게 충분히 아름다운 사람이다. 장애가 있다고 해서 삶이 멈춰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넘어지면서도 다시 일어나는 그 마음이야말로 진짜 용기이고, 세상을 밝히는 힘이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그 꽃잎은 맑고 고요하다. 장애인의 삶 또한 그러하다. 흔들리며 피는 꽃이 더 향기롭듯, 그들의 삶도 바람 속에서 더 깊고 단단해진다. 어려움 속에서도 맑은 마음을 지켜내며 세상을 향해 희망의 빛을 내뿜는다. 그 빛은 단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다.

장애인은 희망의 꽃이다. 그 꽃은 세상의 편견을 넘어 서로 다른 자리에서 함께 어울려 피어나며, 우리 모두에게 삶의 의미를 다시 일깨워 준다. 맑고 고요한 마음으로 세상을 밝히는 그들의 존재는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등불과 같다. 장애인은 단순히 보호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 우리 사회를 더 아름답게 만드는 희망의 꽃이다. 우리는 장애인들이 희망의 꽃을 가득 피울 수 있도록 아름다운 넓은 마음의 정원을 잘 가꿔야 한다.

그 꽃이 피어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사랑과 자비, 인간다운 삶의 가치를 깨닫게 된다. 그 깨달음은 우리 마음 속에 작은 씨앗이 되어 언젠가 더 큰 숲을 이뤄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될 것이다.



해성 스님 사회복지법인 연화원 이사장



김권태의 **요즘 학교는** ㉓ 사랑보다 더 깊은 사랑

상대의 단절과 외로움을 알아차리라

"다 너 때문이야. 너 만나고 나서 내가 이렇게 됐어!"

"제발 좀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면 안 되니? 너는 내 말을 귓등으로 들어?"

"네가 나한테 해 준 게 뭔데? 너는 항상 그래! 너랑 얘기해 봤자, 내 입만 아파!"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쩌다 이런 대화만 주고받게 된 걸까?

자기는 원래 안 그랬는데 그를 만나서 성격 파탄자가 됐고, 조금만 개선해 달라는 부탁에도 그는 끝까지 변하는 게 없고, 아무리 잘해 보려 노력해도 그는 늘 같은 말을 반복하게 한다. 그러고는 이렇게 맨날 싸우느니 차라리 그만두자고 말한다. 사랑이 지옥도가 된 풍경이다.

꽤 모범적인 학생이 한동안 학교를 나오지 않아 그 배경이 궁금했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채로 등장한 학생은 시름시름 앓는 것처럼 어딘가 아파 보이고 무기력했다. 여러 루트로 조심스럽게 알아보니, 부모님이 최근에 이혼해 그 충격으로 정신과를 다니며 약을 먹는다고 한다. 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그렇게 싸우는 걸까.

교직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된다. 하루에도 수백 명의 학생들과 마주치고, 또 같은 공간에서 부대끼며 수업을 한다. 서로 신념이 다른 선생님들과 만나게 되고, 다양한 요구를 가진 학부모들을 만나게 된다. 이런 만남이 얼마나 고단한지, '선생 똥은 개도 안 먹는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다.

화는 긍정 자원 바닥났단 신호

불안은 주변에 위협 존재 징후

문제 행동 시 도움 요청 감지해야

그래서 고단함을 진단하는 나만의 기준이 있다. '화가 일어났다'는 것은 지금 나에게 긍정 자원이 바닥났다는 신호이고, '불안이 밀려오는 것'은 지금 나를 위협하는 것들이 주변에 포진해 있다는 신호임을 아는 것이다. 그리고 비상 센서에 불이 켜질 때마다 그 원인들을 찾아보고 점검한다.

학생들과 지내다 보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순간이 있다. 명백한 잘못을 저지르고도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거나 남 탓을 하는 경우다. 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었나, 마음이 들끓다가도 '아, 내가 지금 긍정 자원이 바닥났구나!'라는 알아차림에 곧 평정심을 되찾는다. 그리고 모든 문제 행동은 도움을 요청하는 왜곡된 신호이자, 숨은 욕구를 발견하는 단서임을 알아차린다. 세상 모든 것은 서로 조건 지어져 일어난 것이니, 그 결과인 감정과 행동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원인이 채워지지 않은 욕구에 초점을 맞출 때, 매직 아이처럼 떠오르는 새로운 진실을 만날 수 있다.

단계적 관문처럼 사랑 이후에 등장하는 새로운 사랑이 있다. 애착이다. 애착은 어린 시절 아이와 양육자와의 관계 패턴으로, 아이가 거리낌 없이 자신의 미성숙한 감정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대상과의 친밀감을 뜻한다. 새롭게 등장한 이 애착은 상대에게 무의식적으로 부모님과 같은 안전한 환경과 배려가 있는지를 확인하려 하고, 또 어린 시절 마땅히 받아야 했으나 받지 못한 사랑을 자기도 모르는 새 현재 관계에 재연하며 빚을 독촉하듯 파괴적으로 요구하기도 한다. "너는 정말 구제불능이야!"라는 공격은 실은 "언제든 내 곁에서 나를 지켜 줘!"라는 단절과 외로움에 대한 왜곡된 비상 신호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퇴행적 사랑의 숨은 사연들이다.

왜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싸우는 걸까? 사랑보다 더 깊은 사랑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을 알아차릴 때, 우리는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오래된 출구를 발견하게 된다.

〈동국대사범대학부속중학교 교사〉

기자칼럼

해외포교의 빈틈, 마닐라와 맨해튼이 남긴 경고

2011년 필리핀에 개원해 한국불교를 알려온 '마닐라선원'이 최근 대만 불광산사에 인수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필리핀 정부에 매각될 뻔한 일도 있었다지만 불광산사의 인수로 불교 명맥을 유지하게 돼 다행이다. 하지만 이면을 들여다 보면 한국불교 해외포교의 현주소를 되묻게 하는 씁쓸함이 남는다.

마닐라선원은 조계종 비구니 무진 스님이 필리핀 현지에서 포교와 수행, 공동체 활동을 일궈 온 도량이다. 타국의 언어와 문화, 제도적 장벽 속에서도 한국불교의 맥을 지켜 온 공간이었다. 그러나 뒤를 이을 상주스님을 구하지 못해 결국 2018년 1월 문을 닫았다는 게 전언이다. 한국불교의 이름으로 쌓아 온 시간과 노력은 그렇게 조용히 막을 내렸다.

얼마 전 홍대선원 주지 준한 스님이 뉴욕 맨해튼 조계사 주지로 부임했다. 맨해튼 한복판, '노른자위' 입지에 자리한 사찰이다. 그러나 실상 대출 규모만 23억원, 매달 갚아야 할 대출 이자가 1900만원에 달한다고 한다.

해외 사찰은 겉으로는 화려해 보여도 이면에는 인력 부족과 재정 압박, 끝없는 책임이 쌓여 있다. 해외 포교 현장은 '한 스님의 헌신'에 기댈 수 밖에 없는 구조로 스님이 떠나가는 순간, 사찰 전체가 흔들린다. 불교계의 시스템 부재를 드러내는 대목이다.

조계종은 해외특별교구를 두고 국제교류위원회를 운영하며 한국불교 세계화를 말하고 있다. 그러나 마닐라선원과 맨해튼 조계사가 보여 주듯 현장은 녹록지 않다. 정보 공유도, 위기 대응도, 인력 순환과 재정 지원에 대한 중장기 구상도 체감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자금과 인력 문제에 허덕이는 해외 사찰은 또 다른 '마닐라선원'이 될 수 있다. 한국불교 세계화는 선언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귀를 열고 손을 내밀고 함께 책임지지 않는다면 그 말은 공염불로 남을 수밖에 없다.

준한 스님은 조계사에서 집중기도를 올리고 인등을 밝히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말했다. 불자들도 수희 동참해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해 밝혀진 불씨가 꺼지지 않고, 정법으로 계승되길 기대한다.



임은호 편집국 차장

현밀 스님의 **뭉밀이 佛스타툰**





말 달리자

현불논단



법장 스님
조계종 교육아사리

'살다 보면 그런 거지 말은 되지 모두들의 잘못인가 난 모두를 알고 있지 닥쳐 …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달리는 것뿐이다 무얼 또 바라냐'.

밴드 크라잉넛의 '말 달리자'라는 노래의 가사다. 이 노래가 처음 나왔던 1998년에는 매우 파격적이라는 생각도 했지만, 약 20년이 지난 요즘에 다시 들어 보면 이 사회에서의 삶을 참 재미있게 표현했다는 생각이 든다.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러려니 해'라는 말이 자주 나온다. 뉴스 등에서 여러 문제를 보며 '이건 과연 누구의 잘못인가'라고 탓하지만, 결국 모든 원인에는 우리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제를 살았고 오늘을 살아가며 내일을 살아가야 한다.

그리고 이제 2025년 을사년이 지나간다. 시간은 우리 곁에 영원토록 있는 듯하지만, 단 순간도 우리를 기다려 준 적 없고 시간의 흐름대로 맹렬히 앞을 향해 나아간다.

올 한 해도 수많은 문제와 대립과 일들이 벌어졌다. 그 시간 속에서 누군가는 여유를 즐기고 누군가는 괴로워하고 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자! 과연 안 그랬던 날이 있었던가? 정말 '살다 보니 그런 거지'이다. 그럼 그런 삶을 그냥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일까? 아니다. 우리는 불교를 믿고 그 법을 따르며 수행적 삶을 살기에 다르다.

불교의 핵심은 수행과 변화다. 수행을 하면 범부인 중생도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한다. 불교는 석

한 해 미련 갖고 원망해선 안 돼
병오년 업과 번뇌 반복하지 않고
말처럼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야

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음과 가르침에 따라 모든 인간이 자신의 수행과 노력에 의해 지금 당장 변하여 내일 달라질 수 있다고 확실하게 설한다.

올 한 해 동안 혹여 아쉽거나 미련이 남거나 못한 것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절대 그것들을 원망하고 아쉬워만 해서는 안 된다. 시간은 절대 되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내년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오늘로 다가올 것이기 때문이다. 붉은 말이 맹렬히 달리는 2026년 병오년에는 활활 타오르는 불길과 같이 우리의 업과 번뇌와 문제가 타버려 다시는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게 해야 하고, 앞을 향해 질주하는 말과 같이 우리의 오늘을 충실하고 아깝지 않게 살아가야 한다.

말이 잘 달리는 이유는 뒤의 땅을 힘차게 치고 나오고, 지금의 땅에 발을 잘 딛고, 다음 땅을 향해 정확히 발을 내딛기 때문이다. 우리가 2026년을 새롭게 맞이하기 위해서도 어제를 힘차게 딛고 일어나 오늘 이 순간을 잘 확인하고 살아서, 내일의 우리에게 정확히 노력과 공덕을 내줘야 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달리는 것뿐'이라는 가사와 같이 우리는 잘 달릴 수 있다. 다소 실수를 하거나 잘못 갔어도 다시 잘 달려가면 된다.

'땅에 넘어진 자, 그 땅을 딛고 일어나라'는 보조 지눌 선사의 정혜결사문과 같이 우리는 이 땅과 이 시간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 이 땅에서 힘차게 딛고 일어나 새해를 붉은 말처럼 잘 달리자. 앞을 향해 한 걸음씩 뚜벅뚜벅 나아가다 보면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깨달음도 행복도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수행과 정진은 될 때까지 할 것이고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많은 일이 있었고, 지금도 진행 중인 2025년이지만, 현대불교신문과 함께하시는 인연들의 곁에 항상 관세음보살님의 자비가 함께 하시길 두 손 모아 발원드린다. 2026년 새해도 항상 법답고 바른 가르침을 수행하는 한 해가 되십시오.

달력이 내게 말을 걸어왔다

세간과 출세간



최원형
환경생태작가

새해 달력을 선물 받았다. 새 달력은 일 년을 어떻게 잘 살아갈지 먼저 생각하게 하고, 자연스레 지나온 일 년을 돌아보게 한다. 이맘때는 일 년 중 달력에 관심이 가장 많은 시간이 아닐까 싶다.

어느 사찰 달력을 식탁에 두었는데 밥을 먹다가도 지장재일, 관음재일 글자가 눈에 들어오면 그날의 의미를 생각하게 된다. 오늘 하루 지장보살의 마음으로 살아 봐야겠구나, 관세음보살의 자비심을 흉내라도 내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달력의 역할은 이미 달성했다고 본다.

인공지능이 21세기 해결사가 될 것만 같은 세상이어도 '동지'라는 두 글자는 겨울이 정점에 이르렀다는 걸 알려 준다. 달력에서 '입춘'이란 글자를 발견하면 생강나무 꽃향기가 코끝에서 느껴지는 것만 같고 글자 안에 안온함이 환하게 켜져 있는 것 같다. 24절기가 우리 삶을 지배할 힘을 잃고 기후 시스템이 널뛰는 시절이어도 '입추'라는 두 글자는 폭염의 끝이 멀지 않았다는 위로를 건네 준다. 생각해 보니 달력은 꾸준히 내게 말을 걸어오고 있었던 거다. 작은 추위, 큰 추위가 물러가고 나면 포근해질 거라 일러 준다. 보슬보슬 봄비가 대지를 적시면 봄비 편지를 받은 개구리는 긴 겨울잠에서 기지개를 켤 거라고. 그저 무뚝뚝하게 숫자만 한가득 담겨 있다고 생각했던 달력이 들려 주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대지

기후 위기·생물다양성 훼손 인류 탓
지구 오염 등 우리 책임 잊지 않아야
생명 더 챙기는 '불살생' 새해 됐으면

의 리듬이고 생명의 순환이었다.

청명하게 맑은 날에 나무를 심자고 '식목일'을 달력에 새겨 넣었는데 기후가 변하면서 나무를 심기 적절한 시기도 변하고 있다. 지구 기온이 오르면서 땅속 온도도 상승했기 때문이다. 급기야 한 환경단체는 '온난화 식목일'을 만들었다. 식목일에 아무리 나무를 심은들 종이를 마음껏 소비한다면 나무 심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며 식목일 전날을 '종이 안 쓰는 날'로 만들었다.

1969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타바버라 인근에 있던 원유 시추 시설이 폭발하면서 갈라진 틈으로 원유 10만 배럴이 쏟아져 나와 어마어마한 규모로 바다를 오염시켰다. 수많은 해양 생물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이 일을 계기로 미국에서만 2000만 명이 자연 훼손과 환경 오염으로부터 지구를 지킬 '지구의 날'을 만들자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런 기념일들은 우리 환경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어떤 동물이 절멸의 끝자락에서 버둥거리고 있는지 절절하게 전해 준다. '지렁이의 날', '고래의 날', '참새의 날' 같은 기념일들이 지구 곳곳에서 만들어졌다. 이런 기념일은 단지 환경이 황폐화되고 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항변할 수 없는 수많은 생명의 목소리를 담고 있다. 환경 기념일을 만들고 알리는 이들이야말로 이 시대의 보살이 아닌가 싶다.

인류가 기후를 어긋나게 만들고 생물다양성을 훼손하며 지구를 쓰레기장으로 만든 장본인이기에 지금 이 시대를 '인류세'라 부른다. 우리 인류에게 많은 책임이 있다. 그 책임을 잊지 않으려 새 달력을 받으면 내가 알고 있는 환경 기념일을 달력을 넘겨 가며 날짜를 찾아 적어 둔다. 새해에는 자기 목소리와 자리를 잃은 수많은 생명을 더 챙기는 '불살생'의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社 說

고통 속 피어난 자비, 성찰로 새해 열자

다시, 시간의 매듭을 짓는 세밑이다. 다사다난이라는 말로 다 담아낼 수 없을 만큼, 2025년은 인고와 정진이 교차한 엄중한 시간이었다.

사회적으로는 비상계엄과 조기 대선이라는 정치적 격랑을 겪었고, 자연은 대형 산불과 수해로 천년고찰과 삶의 터전을 위협했다. 불교 내부적으로는 조계종 청사 화재라는 예기치 못한 시련도 겪었다. 그러나 이 모든 혼란과 상실의 순간마다 불교계는 침묵하거나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고통의 한복판에서 국민을 위로하고, 사회의 균열을 메우는 역할을 자임했다는 점에서 2025년은 한국불교의 사회적 책임과 존재 이유를 다시 확인한 해로 기록될 것이다.

사회적 위기에 국민 곁에 선 불교
재난과 상실에도 멈추지 않은 자비
올해의 교훈을 새해의 지혜로 회향

특히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불교계가 보여준 행보는 상징적이다. 각 종단은 국민의 불안과 상처를 먼저 헤아렸고, 민주적 절차에 따른 해결과 대화합을 일관되게 호소했다. 헌정사의 중대한 국면에서도 폭력과 대립을 경계하며 '상생과 통합'을 강조했다. 종교가 갈등의 당사자가 아닌 갈등을 녹여내는 공적 자산임을 여실히 보여준 대목이다.

자연재해가 남긴 상흔은 깊었다. 경북 산불로 고운사를 비롯한 전통사찰이 소실되는 아픔을 겪었고, 집중호우는 전국 곳곳의 사찰과 지역 공동체를 휩쓸었다. 그럼에도 불교계는 복구와 지원, 나아가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수행과 실천이 둘이 아님'을 몸소 보여줬다.

위기 속에서도 미래를 향한 움직임은 멈추지 않았다. 태고종과 관음종은 종단 정체성을 재정립하며 도약을 선언했고, '힙불교'로 상징되는 청년 세대와의 만남은 불교가 '살아 있는 종교'임을 확인시켜 줬다. 또 불교사회복지 30년의 성과는 자비의 구체적 실천법을 제시했고, 미얀마 지진 현장 등에서의 국제구호는 동체대비의 정신이 국경을 넘어 흐르고 있음을 보여줬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불교 독립운동사를 복원한 노력과, 사회적 약자의 곁을 지킨 연대 활동은 불교가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고통을 함께 껴안는 종교임을 확인시켰다. 동시에 큰스님들의 잇따른 원적은 수행과 전법의 무게, 그리고 다음 세대가 짊어져야 할 과제를 우리 앞에 놓았다. 종교인구조사를 앞두고 범종단적 대응에 나선 것 또한 변화하는 시대 흐름 속에서 불교의 내일을 준비하려는 자각의 발로다.

이제 송년의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해의 교훈을 새해의 지혜로 전환하는 '회향'이다. 2025년의 불교는 상처를 외면하지 않았기에 위로할 수 있었고, 갈등을 피하지 않았기에 화합을 말할 수 있었다.

2026년의 한국불교는 그 위로와 화합을 일상에서 구체적인 실천으로 꽃피워야 한다. 자비는 더욱 세심하게 중생의 삶 속으로 스며들고, 지혜는 사회적 목소리로 더 당당히 드러나야 한다. 새해를 향한 기대는 막연한 낙관이 아닌, 성찰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고통의 현장에 가장 먼저 다가가고, 역사를 잊지 않으며, 미래세대와 소통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불교. 그 정진의 길 위에서 한국불교는 2026년에도 우리 사회의 든든한 등불이 될 것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스님 대표 겸 편집인 : 한명우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기사제보 (02)2004-8257
광고문의 (02)2004-8204
구독문의 (02)2004-8212
인터넷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대구경북지사 : 010-4152-4376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강 원 지 사 : 010-7339-8688
경기남부지사 : 010-8825-4367
경기북부지사 : 010-5323-0834
구독료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 단 공 고

대한불교대승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 대승종은 1988년 도암선사께서 창종하였으며 (사)한국불교 종단협의회 회원종단으로 총본산은 서울 종남산 흥도사이며 제6세 종정예하 법경 스님과 제14대 총무원장 일봉스님을 중심으로 전국 350여의 사찰과 750여명의 승려및 전법사들이 포교와 수행에 매진하고 있는 대승불교의 대표 종단입니다.

이에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의 대승불교 정신을 계승하고 중생교화에 뜻을 함께 할 도반을 모집합니다.

문의 : 010-5165-0108 교육원장 진산

불기 2569년(2025) 12월 24일

대한불교대승종 교육원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도 모집 안내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은 1988년 일붕 서경보 스님을 개조로 서울 일붕선원에서 창종된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재단법인으로서 일붕선교종은 국태안민과 남북 평화통일 기원 만등불사, 국군장병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지원사업, 종도단합 및 국운 융창기원법회 등 각종 법회와 사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전할 종도를 모집합니다. 02-991-8175

불기 2569년(2025) 12월 24일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삼론종은 고구려 삼론종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제6세 종정 혜승 스님과 제10대 총무원장 해불 스님을 중심으로 2023년 삼론불교대학을 개교하고 전법 포교에 나설 승단 양성에 역주하고 있으며, 중국 삼론종 발원지 및 사찰들과 결연을 맺고 자비실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법 포교에 함께 나설 종도를 모집합니다.

불기 2569년(2025) 12월 24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남륜 스님

사)여래불교조계종

종도 모집 안내

사단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은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 모습을 정립하고자 공익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을 창종하고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불법홍포에 앞장설 전국 종도 스님을 모집하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인천지역 상주하시는 종무원장 스님과 종도 스님들을 모집합니다.

010-6219-4757, 010-5385-3658

불기 2569년(2025) 12월 24일

여래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덕평 스님

Heungkuk
흥국생명

누구나 좋은보험!

제례의식의 수행 주체인 **사찰을 수익자(보험금 수령)로 지정**할 수 있는

(무)흥국생명 49재 하늘소풍 제례 종신보험

"죽고 나면 내 제사는 누가 지내주나?"
더 이상 자녀와 후손에게 부담은 그만!
가족 간의 불화와 갈등인 제사 고민 끝!

이제 사찰에서 여법하게 모십니다.

다양한 보장금액으로
나의 재정 상황에 알맞게
든든한 미래 준비

보험료 납입 중 사망하더라도 가입금액 전액 보장
가입 후 2년 이내 자살 등의 경우 부지급

선택사항

49재(천도재)와 기제사(1년~5년)를
기본으로 구성. 범패, 바라, 위패봉안,
큰스님 영가법문 등 사찰에서 이루어지는
전통 다비식까지 다양한 옵션

보험가입자(피보험자)

웰다잉! 내가 선택하는 사후(死後)

유가족

제사 부담 해소, 고인에 대한 예우

사찰

안정적인 제사 확대

상담문의전화 선우HK 보험대리점 1522-1543

<가입시 알아두실 사항> 본 보험은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으로 은행의 예,적금과는 다른 상품이며 저축보험, 연금보험이 아닙니다. *본 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라며 보험계약 청약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받으시기 바랍니다. ※ 선우HK보험대리점등록번호 제 20250308022호) 및 소속모집종사자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해당 모집종사자는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체결 및 대리·중개하는 보험대리점이며,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금융상품대리업자임을 알려드립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 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회사는 보험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고의로 인한 사고 및 일반사망 보험금의 경우 2년 이내 자살할 경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 계약자는 보험 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단,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 위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65세 이상을 보험계약자로 하는 통신판매보험계약의 경우에는 45일로 합니다)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 할 수 없습니다. 청약 철회 기간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듣지 못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납입한 보험료와 정해진 이자를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계약 전 알릴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기재하고,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계약 전 알릴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는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장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 시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가 아닌 해약환급금이 지급됩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계약자 및 보험료 납입추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예금자 보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의 위험직(업)종 또는 운전차량 종류 및 용도에 따라 가입이 거절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께서는 본상품에 대한 내용과 본상품에서 제시된 보장내용, 보험기간 등을 변경하여 보험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당사의 상품과 유사한 다른 회사의 상품을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 보험에 관한 불만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콜센터 1588-2288로 문의하여 주시면 신속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 흥국생명보험 :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68 흥국생명빌딩 소비자보호팀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https://fss.or.kr) : 국번없이 1332 ※ 보험상품비교공시 : www.klia.or.kr(생명보험협회) ※ 보험상품 및 가격공시실 : www.heungkuklife.co.kr(당사홈페이지 ※ 승인번호 :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25-06403호 (2025-09-23~2026-09-22)